

2021학년도 1학기 금강 학이시습지

수업에세이 공모전 작품집



2021학년도 1학기 금강 학이시습지

수업에세이 공모전 작품집





[CONTENTS]

시상자

대상

[영어 말하고 듣기] 다시, 포리(Again, Fourie) 김동원 5

최우수상

[불교와 예술] 깨달음 속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김예찬 13
[대학일본어1] 히랍어 시간? 아니 일본어 시간! 이수복 21

우수상

[헌법총론] 듣지 않으면 손해보는 교수님 이채은 29
[행정법1] 법학에 무지한 나를 법학적인 사고를 정지윤 35

[일본어 문형연습]

야, 너두 일본어 할 수 있어! 최성림 41

장려상

[중국어문형분석과 활용] 정석으로 배운 중국어, 빛을 발휘하다 김수림 49

[미디어일본어] ‘미디어 일본어’ 수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남준우 55

[회계원론] 회계, 누구나 가능하다 박민희 61

[시사일본어 듣기] 일본어 성적 급상승의 비밀 신정인 67

[대학영어1]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법 주승현 73

[국제사회의 변화와 이해] 국제정치학 강의를 듣다 하희철 81

2021학년도 1학기 금강 학이시습지 수업에세이 공모전 작품집

좋은 수업을 배우고 때때로 익혀
학우들과 공유하면 그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참가상

참가상

[공직자실무영어1]	공직자실무영어	권순모	87
[중국어 읽고 쓰기]	실천의 중국어	김 신	93
[인간관계와 심리학]	매주 과제가 기대되는 과목	김단후	99
[미래교육 디자인]	지금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김솔비	105
[신문사설 번역]	번역의 첫걸음	김운선	111
[노동법개론]	인간만사 노동지하	김은태	115
[헌법총론]	논리적 사고를 위해	김준태	121
[초급산스크리트]	귀엽고 감쪽한 산스크리트어 어떠신가요?	서건희	125
[청소년이해론]	나의 사춘기에게	이서진	131
[사회복지상담론]	사회복지에 대한 고찰	이승혁	137
[불교영어실습]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수업	이종희	141
[재무관리]	경영학과라면 꼭 들어야할 전공	이한병	145
[인권과 세계시민]	세계와 인권	정세윤	151
[SI 시대의 공공성과 행정책임]	배우는 자의 자세와 바른 생각	홍서빈	157



[대상]

다시, 포리(Again, Fourie)

김동원 / 행정학

구분	전공 □	교양 ■	교수명	포리(Fourie)
교과목	영어 말하고 듣기			
추천 이유	원활한 상호작용/학생중심 수업/다양한 수업자료/ 유용한 지식전달/깨달음을 주는 수업/이해하기 쉬운 설명			
한줄 평	영어듣고말하기 수업은 영어 말하기 실력의 사다리 이다.			

다시, 포리(Again, Fourie)



이제 누구나 말하기의 중요성을 안다. 자기 PR을 위해 어떻게 말을 해야 좋을지를 배우는 사람도 정말 많아졌다. 외모, 옷차림만큼 중요한 것이 말하기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글로벌 시대’라는데, 영어도 한국어만큼 말을 할 줄 알아야 어디서나 좀 알아주지 않을까? 번역기가 있다 해도 영어만의 뉘앙스, 그들이 쓰는 말투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나는 포리 교수님의 ‘영어 듣고 말하기’를 듣게 됐다.

포리 교수님은 역시 훌륭한 교수님이다. 지난 학기에도 포리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다. ‘영어 듣고 요약하기’이다. 그때는 ‘듣기’에 좀 더 가까운 수업이었다면, ‘영어 듣고 말하기’는 말하기에 더 가까운 수업이다. 수업 시간 혹은 과제로 영어를 많이 말하게 될 것이다. 영어를 잘 말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영어 듣고 말하기’를 추천하는 이유로 여섯 가지(원활한 상호작용, 유용한 지식 전달, 학생 중심 수업, 다양한 수업자료, 이해하기 쉬운 설명, 깨달음을 주는 수업)가 있다. 다음 문단부터 추천 이유를 수업에 대한 특징 및 세부 내용과 함께 자세히 서술해보겠다.

첫째, 원활한 상호작용이다. 수업은 줌(ZOOM)을 통해 진행하며 실시간으로 교수와 학생은 영어로 대화를 나눈다. 수업 시간이나 수업 시간 외에도 카톡방을 통해 질의응답을 할 수 있어 상호작용이 아주 원활하다 할 수 있다.

둘째, 유용한 지식 전달이다. 요즘 번역기가 잘 나오면서 영어가 별 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하지만 말하는 것은 글 쓰는 것과 다르다. 글쓰기는 번역기를 돌려보면서 천천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말하기는 ‘실시간 상호작용’으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잘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영어 듣고 말하기’는 그에 걸맞은 경청하는 법과 상대가 알아듣기 좋게 말하는 법인 ‘역양, 뉘앙스, 말투’ 등 좀 더 세밀한 부분의 지식을 알려준다.

셋째, 학생 중심 수업이다. 교수님은 강의 시간을 이룬 설명으로 보내기보다 학생들이 영어를 더 많이 듣고 말할 시간으로 쓴다. 포리 교수님이 제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학생들은 교재인



영어 듣고 말하기 수업의 자체 사이트다. 여기서 숙제에 대한 정보, 단어, 퀴즈 풀기, 말하기 연습 자료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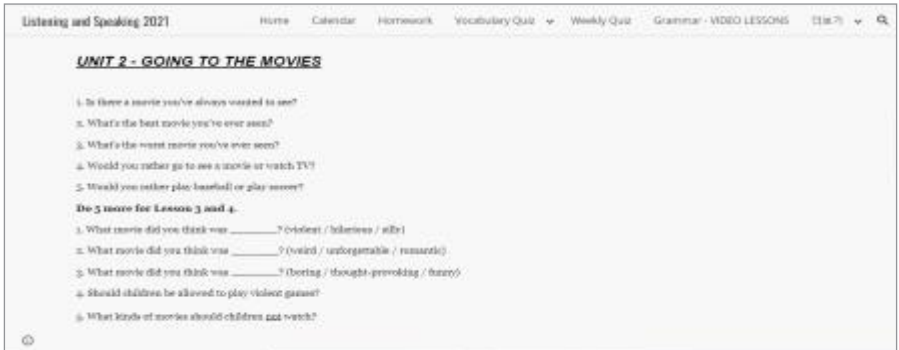
<Top notch 2>에 나오는 대화 예시를 본다. 그리고 학생 두 명을 따로 소회의실에 배정하여 그 대화를 더욱더 어렵고 복잡한 대화로 만들고 연습하라고 한다. 그렇게 두 학생은 소회의실에서 영어 말하기를 연습한 뒤 본 회의실로 돌아가 교수님 앞에서 완성된 대화를 들려준다.

넷째, 다양한 수업자료이다. 교재는 <Top notch 2>를 쓴다. 학생들은 미리 교재에 있는 듣기 문제를 풀어 와야 한다. 수업시간에는 그 답을 확인하고 교재에 있는 다양한 말하기 자료를 말하는 데 시간을 쓴다. 교재 외에도 <Top notch 2>에는 워크북이 있다. <Top notch 2>를 구매시 오류로 워크북을 받지 못한 학생을 위해 포리 교수님은 직접 워크북을 복사하여 자료를 나눠주었다. 다른 수업자료로 LMS에 올리는 외국 강사가 설명하는 어법이 있다. 그리고 '듀오링고'가 있다. '듀오링고'는 영어 회화를 연습하기 좋은 App이다. 여러 회화를 제공한다. 매주 일정 포인트를 채울 만큼 연습해야 한다. 이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후에 서술하겠다.

다섯 번째,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다. 포리 교수님의 설명은 정말 어렵지 않다. 수업 자체의 난이도가 쉬운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한 번도 이해가 안 된 적이 없었다. 이해를 못 한 학생은 질문하면 된다. 교수님은 친절하게 다시 자세한 예시를 들어주어 설명한다.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섯 번째, 깨달음을 주는 수업이다. 이것은 개인적인 에피소드와 연관되어 있다. 포리 교수님은 매주 과제를 내주시는데 내가 게으름을 피운 적이 있다. 그것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는 후에 내가 이 수업을 듣고 '성장'한 부분에서 자세히 써보겠다.

이렇게 여섯 가지의 추천 이유를 종합해서 볼 때 이 수업의 최고 장점은 교수법에 있다고 생각한다. 교수님은 여러 수업자료를 제공해주시면서, 학생들이 최대한 수업의 목표인 '잘 듣고 잘 말하기'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기다려준다. 수업 시간 내에서는 학생들이 교재에 나오는 기본적인 대화를 들은 뒤 더욱 복잡하고 회화의 표현을 추가하여 대화문을 연습할 수 있게 독려한다.



영어 듣고 말하기 자체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질문들

또, 영어 듣고 말하기 자체 웹사이트에서 단원마다 제공되는 인터뷰 형식의 질문이 있다. 과제로 미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녹음한 뒤 교수님에게 제출한다. 그리고 교수님은 이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수업 시간에 학생들끼리 서로 묻게 한다. 수업 내외로 연습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은 일단 영어를 '말한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좀 긴장하고 버벅했던 필자와 다른 학우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꽤 유창해지고 당당하게 말하는 자세를 가지게 됐다. 시험은 어려운 것이 없다. 이 수업 시간 자체가 시험에 대한 연습이다. 교재에서 들었던 듣기 문제를 다시 푸는 것과 방금 서술했던 '인터뷰 형식의 질문'을 교수님과 1대1로 듣고 잘 말해보는 것이 시험의 핵심이다.

이제 필자가 이 수업에서 어떤 자세를 갖고 참여했는지와 듣기 부분과 말하기 부분에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학습 노하우를 서술해보고자 한다. 일단 수업에 임하는 태도는 '최대한 많이 말하자'였다. 대화문도 '누가 읽을래?' 하면 최대한 내가 읽으려고 했다. 열심히 참여하면 실력도 늘거니와 재밌기 때문이다. 스스로 열심히 참여하는 수업은 재밌어진다.

듣기 부분은 <Top notch 2>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영상을 활용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n8vtgvacgo&feature=youtu.be&ab_channel=StepWall

이 링크에 들어가면 <Top notch 2>의 듣기 자료를 모두 들을 수 있다. 가끔 너무 안 들리는 게 있을 때는 유튜브에서 0.75배속을 하며 들릴 때까지 들었다.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온라인 RC 프로그램" 중에 영어 듣기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영어 듣고 말하기'를 수강 신청하면서 도움이 될까 생각이 들어 신청했는데, 말이 빨라 생각보다 어려웠다. 그만큼 듣기 실력에 도움이 됐고, 실제 회화를 사용하는 장르이다 보니 실제 표현을



익히기 좋았다. 어떤 강의를 수강하려 할 때 그와 관련된 도움이 될만한 비교과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공부법인 것 같다.

말하기 부분은 발음 연습에 신경을 썼다. 과제로 영어 질문에 대한 답을 녹음한 뒤 제출해야 하는데, 발음이 너무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수업에서 해답을 얻었다. 영어도 우리나라 말처럼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하는 것이 아닌 연결 해서 발음하는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연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글자를 이으며 발음할지 알게 되자 연습을 통해 점점 발음이 나아지는 게 느껴졌다. 연음에 관한 내용은 교재에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헛갈리는 단어의 발음은 파파고를 활용했다. 파파고가 어떻게 발음하는지 듣고 따라 해보고 다시 녹음을 해보고 내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던 녹음기의 내 목소리는 어느 순간 익숙해졌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부분에서 성장했는지 LOTUS 핵심역량과 함께 서술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글로벌리더십 역량 군의 외국어 능력이 향상되었다. 단어 암기, 어휘는 기본이다. 매주 단어 시험을 봐야 했다. 그리고 2주에 한 번꼴로 영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녹음하고 수업 시간마다 영어로 학우들과 대화했던 것이 영어의 유창성에 특히 도움이 된 것 같다.

둘째로, 인성 역량 군의 자기조절 및 관리 능력이 향상하였다. 이 수업이 '깨달음을 주는 수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다. 필자는 사실 그렇게 성실한 성격이 아니다. 매주 과제를 수업 시간 하루 전에 완료해서 제출하거나 몇 시간 전에 제출했었다. 그날은 제일 심각했던 날이었다. 음성 녹음을 보내는

것과 더불어 ‘듀오링고’를 완료하는 과제를 수업 5분전에 다 완료한 것이다. 교수님은 수업이 시작하자마자 내게 가르침을 주었다. “나는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 매일 꾸준히 조금씩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을 했다. 그러나 너는 이렇게 몰아서 하니 학습량을 더 늘려야 될 것 같다.”라는 말을 하며 ‘듀오링고’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치를 올렸다. 나는 이 순간 큰 충격을 받고 내가 얼마나 게을렀는지 깨달았다. 그래서 매일은 아니더라도 2일에 한 번씩은 꼭 ‘듀오링고’로 영어 학습을 하게 됐고, 과제는 적어도 2일 전에는 제출하는 성실함을 갖게 됐다. 포리 교수님의 이런 일갈이 아니었다면 내가 게을렀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을 것 같다. 게임 할 시간에 자투리 시간에 조금 시간을 내어 학습하는 방법을 익히게 됐다.

셋째로, 공감 협업 역량 군의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됐다. 수업에선 회차마다 무작위 상대방 한 명과 대화를 짜야 했다. 매주 대화를 만들 때 최대한 다채로운 영어 표현을 쓰려 노력했고 영어 말하기 연습 외에도 안부를 묻는 등 ‘어떻게 하면 어색하지 않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도 의사소통 능력에 도움을 준 것 같다.

이렇게 ‘영어 말하고 듣기’에 대한 소개와 수업을 추천하는 이유, 필자의 노력 및 성장 과정에 관한 내용은 끝이 난다. 포리 교수님은 계획적이고 커리큘럼에 따라 열심히 하시는 교수님이다. ‘영어 말하고 듣기’는 난이도가 상당히 쉬운 과목이지만, 스스로 좀 더 어려운 표현을 찾고 포리 교수님이 제공하는 다양한 학습 도구를 사용하면서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번 학기에 이어 여전히 필자는 뻘뻘한 일정의 포리 교수님이 좋다.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바로바로 알려주고 일갈해주는 포리 교수님이 좋다! 영어 말하기 부분에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학우들은 포리 교수님의 ‘영어 말하고 듣기’를 수강하면 분명히 실력을 향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제목의 의미를 깨달을 것이다. ‘다시, 포리 (Again, Fourie).’



[최우수상]

깨달음 속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김예찬 / 불교학

구분	전공 ■	교양 □	교수명	배경아 교수님
교과목	불교와 예술			
추천 이유	다양한 교수법/유용한 지식전달/깨달음을 주는 수업			
한줄 평	불교와 예술 수업은 아름다움과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징검다리이다.			

깨달음 속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1. 수업소개 및 추천 이유

2021년 1학기, 내가 수강 중인 수업들 중 나의 예술적 감각을 성장시켜준 수업은 배경아 교수님의 <불교와 예술> 수업이다. 본 수업은 사물을 예술적으로 그리고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하였으며, 전공지식과 교양지식 함양에도 도움이 되었다. 특히, <불교와 예술> 수업을 통해 나의 장래를 계획하는데 있어서 긍정적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나는 2021년도 1학기 금강 학이 시습지 수업에세이 공모전의 주제인, '금강인에게 추천하고 싶은 좋은 수업'으로 <불교와 예술> 수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불교와 예술> 수업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다. <불교와 예술> 수업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불교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수업이다. <불교와 예술> 수업에서는 불교미술의 범주에 속하는 불화, 불교벽화, 불상 등을 조망한다. 또한, 불교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범패(梵唄), 염불, 찬불가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민족 사이에 전승되어 오는 불교 설화 및 민담, 그리고 각종 불교의례와 공연 등에 대해 학습한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본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예술 영역에서 불교예술이 접하는 위상과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으며, 현재 우리 주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불교 예술을 알아보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2. 수업 내용

<불교와 예술> 수업이 갖는 특징과 그 장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먼저, 본 수업의 가장 큰 특징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진행 방식을 들 수 있다. 본 수업에서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각각 '리액션페이퍼'와 보고서 제출로 대체된다. 수업 내용 중 관심 있는 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한 후 '리액션페이퍼'를 작성한다. 그 후 완성한 '리액션페이퍼'를 바탕으로 기말 보고서를 작성한다. 만약, 강의 계획서 상에 관심 있는 주제가 있다면 아직 그 내용에 대한 수업 진도를 나가지 않았더라도 해당 주제를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리액션페이퍼'는 기말 보고서를 위한 일종의 계획서를 뜻한다. 따라서 '리액션페이퍼'는 주제에 대한 단순 정리가 아닌, 기말 보고서와 같이 논술문의 형태로 작성되어야

한다. 글리액션페이퍼를 수정, 보완하여 완성된 것이 기말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중간고사 기간이 되면 “ZOOM 실시간 미팅”을 이용하여 자신이 작성한 리액션페이퍼를 수업 시간에 발표하여야 한다. 자신이 조사할 주제에 대하여 교수님과 수업을 함께 듣는 학우들에게 설명하고, 그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 즉 하나의 문제에 대해 학우들과 함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존재함을 깨달을 수 있다. 또한, 자신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리액션페이퍼’와 보고서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주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보고서의 주제에 대해, 수업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학생 스스로 조사한 내용이 첨가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시험을 치르는 대신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은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의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고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장점이 있다. 보고서는 선택한 주제에 대한 철저한 자료 조사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훈련은 학생으로 하여금 주제에 대한 논리적인 서술과 체계적인 사고를 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중간, 기말 진행 방식은 비단 <불교와 예술> 수업만이 아닌, 내가 앞서 수강하였던 배경이 교수님의 다른 수업에도 적용되었다.

다음 특징으로는 매주 수업 내용 안에서 간단한 퀴즈가 출제된다는 점이다. 교수님은 매주 수업의 핵심 내용 중 몇 가지를 추려, 이에 대한 간단한 퀴즈를 출제하신다. 퀴즈를 푸는 과정에서 수업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데, 이는 수업 내용에 대한 학생 스스로의 이해를 점검하게 하며, 수업 내용을 장기적으로 기억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준다.

<불교와 예술> 수업의 마지막 특징으로는 매주 수업 내용에 대한 단문의 감상(鑑賞) 혹은 단상(斷想)을 제출하는 과제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매주 수업에서 다룬 예술 작품이나 관련한 내용에 대한 감상 혹은 단상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스스로의 미적 정조(情調)를 함양할 수 있다. 또한,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고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모든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느끼는 점은 대면 수업에서 얻을 수 있는 교수님 그리고 학우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불교와 예술> 수업의 경우,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교수님, 그리고 수업을 함께 수강하는 학우들과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는 수업 내용에 대한 상호 간에 지적 교류를 비롯하여, 수업 일시 공지와 수강 시 장애 상황 보고 및 공지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 때문에 수업을 수강하면서 한 번도 교수와 학생

간에 상호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언제든 교수님에게 질문을 할 수 있었고, 학우들과 교류할 수 있었다.

상술(上述)한 단상 제출 과제와 과제 제출하듯 교수님은 그것들을 다음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소개해주신다. 학생들이 제출한 짧은 글들이 수업의 일부가 되어, 하나의 논의 주제로 활용되는 것인데,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만든다. 또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어진 주제에 대해 보다 깊게 생각하게 하며, 더욱 철저한 배경 지식 조사를 유도한다.

<불교와 예술> 수업의 평가 방식을 간단히 살펴보겠다. 수업 평가 배점은 출석 20%, 과제 20%, 중간고사 25%, 기말고사 35%로 이루어져 있다. 지각 시 평가 점수 0.5점을 감점하는데, 세 번의 지각은 한 번의 결석과 같은 점수를 감점한다. 과제 점수의 경우, 교수님이 매주 내주시는 과제들을 얼마나 성실히 수행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부여된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각각 '리액션페이퍼'와 기말 보고서 제출로 대체되며, 수업 평가함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본 수업의 이러한 평가 방식은 수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평가함에 있어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3. 수업 참여

나는 배경아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수업에 대한 몇 차례의 수강 경험을 바탕으로 <불교와 예술> 수업의 학습활동 혹은 교수법 등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에 맞는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나의 학습 전략을 간단히 소개해 보겠다.

먼저, 수강신청 단계에서 강의계획서를 정독하고 수업의 개요를 파악하는 것이 수업을 수강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이전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따라서 나는 수업이 시작되기 전 강의계획서를 통해 본 수업의 개요와 학습목표 그리고 강의 교재 등을 파악하였다. 이렇게 파악한 수업 정보들을 바탕으로 수업 시작 전 미리 교재와 참고 도서들을 읽어보았다. 또한, 강의계획서 상의 주차별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중 관심주제가 있으면 이에 대한 독서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간단한 선수 학습을 하였다.

다음으로, 내가 학기 중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였는지 서술해 보겠다. 수업을 듣기 전, 나는 한국의 전통예술이나 한국미술사 혹은 불교예술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무한 편이었다. 따라서 나는 수업



의 원활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서적들을 읽기 시작하였다. 덕분에 불교예술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불교예술의 변천 과정은 어떠한지, 한반도의 토착문화와 불교예술 간에 습합과정은 어떠한지 등 불교예술의 맥락을 어렵듯이 알게 되었다. 특히,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내용과 내가 독서 과정에서 읽었던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가 잦아졌고, 그럴 때마다 학습에 대한 동기가 강하게 유발되었다.

사진 속 다섯 권의 책들은 불교예술에 대한 사전 지식을 학습하고 참고하기 위해 내가 읽은 것들이다. 위에서부터 아래의 순서로 ① 앤 세퍼드 저, 유호전 역, 『미학개론』(東文選) ②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저, 『불교문화』(조계종출판사) ③ 김미숙 저, 『불교문화 2』(정우서적) ④ 문명대 저, 『한국불교미술사』(한인) ⑤ 디트리히 제켈 저, 이주형 역, 『불교미술』(예경) 이다.

다음으로 각각의 책들에 대해 아주 간단히 소개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강의 교재이기도 한 『미학개론』은 이름 그대로 미학의 개론서라고 할 수 있으며, 미학의 핵심 개념들을 담은 아홉 개의 주제로 구성되어있다. 이 책을 통해 미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립할 수 있었다. 둘째로 대한 불교조계종 포교원에서 출간한 도서 『불교문화』이다. 이 책의 경우, 불교음악에 대한 내용들을 위주로 읽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흥미롭게 살펴보았던 점은 승려들의 수행생활을 문화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생동감 넘치게 묘사하였다는 것이다. 셋째로 경전(經典)과 율장(律藏) 그리고 국내 주요 사찰에 대한 여러 사실들을 다룬 도서 『불교문화 2』이다. 이 책은 기말 보고서를 작성할 때 참고하였는데, 책의 내용 중 경주 토함산(吐含山) 석굴암(石窟庵)에 안치되어 있는 불상에 대한 서술을 중심으로 읽었다. 넷째로 한국불교미술의 전개 과정을 분야와 시대별로 구분지어 망라한 도서 『한국불교미술사』이다. 이 도서의 경우 불화와 불상에 대한 방대한 양의 삽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시대

에 따른 불교미술의 변모 과정을 눈으로 살펴보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맥락에서 불교미술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 불교미술 분야의 고전, 디트리히 제켈의 저서 『불교미술』이다. 이 책은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미술의 전개 양상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불교와 예술〉은 미학 수업이다 보니, 매주 부과되는 과제에서 예술 작품에 대한 감상이 주가 되었다. 단순 요약정리를 요구하는 과제보다, 주어진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작성하는 과제가 나에게 더 흥미롭게 느껴졌던 것 같다.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과제로 주어진 예술 작품에 관한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과제에 첨부하기 위해, 며칠에 걸쳐 과제를 수행한 적이 여러 번이었다.

앞서 살펴보았듯, 수업 중 배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였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참고 자료를 찾고, 참고가 될 만한 논문이나 단행본을 찾아보았다. 도서, 논문, 인터넷 자료 등의 다양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크로스 체크를 하는 학습 방식은 지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적 호기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4. 성장

나는 〈불교와 예술〉 수업을 통해서 한국의 전통적 미적 감각을 알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나는 장차 건축학을 공부하고자 하는데, 한국의 아름다운 건축양식의 기본은 대체로 불교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더욱 불교 예술을 공부해보고 싶었다. 나는 〈불교와 예술〉 수업을 수강하면서 불교건축, 불교미술, 불교의례 등 불교문화 전반에 걸친 예술적 요소들에 대해 깊이 있는 고찰을 하게 되었으며, 인도로부터 시작되어 한국, 중국, 일본에 뻗어나간 불교예술의 특징을 알게 되었다. 또한, 불교예술에 있어서 종교적 의미와 예술적 의미를 구분 지을 수 있게 되었으며, 매우 인접해 있다고 할 수 있는 종교와 예술의 관계에 대해 다시금 고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매주 주어진 과제와 중간, 기말고사를 수행하면서 수차례 글을 써야했던 경험은 나로 하여금 글쓰기를 통해 나의 생각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시켜 주었다.

이러한 나의 성장 지점을 LOTUS 핵심역량에서 찾아본다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불교예술적 미학사상을 습득함으로써 장차 내가 일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기존의 방식과 다른 접근방식을 토대로 새로운 방법과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었다. 이는 LOTUS 창의융합 역량군 중 '창의적 사고와 혁신 추구' 역량에 해당된다. 둘째, 본 수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지속적인 글쓰기 훈련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공유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이는 LOTUS 공감협업 역량군 중 ‘의사소통능력’ 역량에 해당된다. 셋째, 불교예술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를 거쳐 다양한 형태의 변모가 이루어졌음을 학습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타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수용 능력을 함양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나의 문화, 가치관과 타 문화 간에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다. 이는 LOTUS 글로벌리더십 역량군 중 ‘나눔’ 역량에 해당된다.

끝으로, 프랑스의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나 일본의 건축가 안도 다다오(Tadao Ando)는 모두 현대 건축의 대가들이다. 언젠가 그들의 건축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글을 읽으면서 나는 ‘주체적 미학사상’에 바탕을 둔 건축 양식이야말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고 느꼈다. 그러나 한국의 건축가로서 불교 미학에 바탕을 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나는 더욱 이 방면에 매진할 생각이며, 장차 한국의 전통 미(美)와 불교예술에 사상적 토대를 둔 건축가가 되기 위해 끊임없는 정진과 노력을 거듭할 것이다. 아울러, “불교예술적 미학사상”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불교와 예술> 수업을 통해 내가 받은 긍정적 자극과 도전을 이 수업을 수강할 다른 학우들도 경험하길 희망한다.



[최우수상]

희랍어 시간? 아니 일본어 시간!

이수복 / 불교인문학부

구분	전공 □ 교양 ■	교수명	마츠하시 사치요
교과목	대학일본어 1		
추천 이유	원활한 상호작용/개방적인 수업/학생중심 수업/다양한 수업자료/ 다양한 교수법/유용한 지식전달/깨달음을 주는 수업/이해하기 쉬운 설명		
한줄 평	마츠하시 사치요 교수님과 함께하는 대학일본어 1 수업은 금강대 속 작은 일본이다.		

희랍어 시간? 아니 일본어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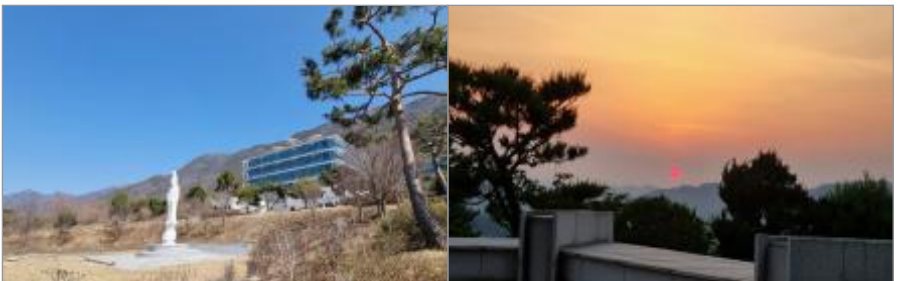


지금 나는 부산의 자택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엄중한 코로나 시국만 아니었다면, 작년 가을 입학 시험을 치르기 위해 들렸던, 계룡산 자락 고즈넉한 산사와도 같은 금강대 교정에 좌정(坐定)하여 이 글을 쓰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왕관’이라는 뜻을 가진 코로나바이러스는 우리네 일상을 참 많이도 바꾸어 놓았다. 이러한 코로나의 ‘진황’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비대면 캠퍼스라는 선택을 통해 나름의 활로를 찾고 있다. 이 글은 비대면 캠퍼스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내가 겪은 한 수업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이다. 본격적으로 이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내가 금강대학교에 지원하게 된 계기부터 밝히고 싶다. 그러는 편이 이 글에 조금 더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금강대 불교인문학부 21학번 신입생이다. 신입생이지만 나이는 33살로 다소 늦깎이 대학생에 속한다. 졸업을 했던 것은 아니지만 과거 지방의 한 대학에 입학하여 캠퍼스 생활을 경험해보기도 했고, 대학에서 나온 뒤로는 경찰간부시험을 준비하였다. 몇 년간 경찰간부시험을 준비하던 와중에 어떤 기연(奇緣)을 만나 불교에 깊이 침잠(沈潛)하게 되었는데, 작금의 코로나 상황처럼 끝이 보이지 않던 수험생활 도중 만난 책이 바로 현 금강대학교 불교인문학부 정상교 교수님이 일본 유학 중에 쓰셨던 『도쿄대학 불교학과』였다. 책을 다 읽고 덮는 순간 ‘내가 갈 길은 바로 이것이다!’하는 확신이 그야말로 ‘금강(金剛, Vajra 벼락)’처럼 나의 몸과 마음에 내리쳤다. 나는 일말의 미련도 없이 부모님께 그간 준비해온 경찰 시험을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고 금강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학기가 결정되었을 때 다소 실망하기도 했지만,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이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 1학년이라 아직은 교양수업만 들을 뿐인데도, 수업을 진행하시는 교수님들의 뜨거운 열의와 수준 높은 강의들이 참으로 인상 깊었던 것이다. 정말 이 글을 쓰기 전까지 어떤 강의를 선택해서 추천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했던 기억이 머리에 스친다. 희랍의 철학자 플라톤이 지은 저작 중에 『향연』이라는 책이 있다던가. 금강대학교 로터스 칼리지(Lotus College)가 금강대 재학생들을 위해 차린 풍성한 교양 강좌의 식탁 위에서, 오랜 고민 끝에 내가 엄선한 메인디쉬(Main Dish)는 바로 <대학일본어 1>(이하 ‘대학일본어’) 수업이다.

대학일본어는 이름 그대로 일본어를 배우고 익히는 어학 수업이다. 마츠하시 사치요 교수님이 수업을 맡으셨는데, Zoom으로 진행된 비대면 개학식에서 분명히 이름만 보면 일본 사람 같은데 특유의

밝고 힘찬 목소리와 함께 유창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셔서 놀랐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선명하다. 수업 첫 시간에 수강생들이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하였는데, 내 차례가 되었을 때 '일본의 불교학이 수준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언젠가 일본어로 쓰인 불교학 관련 논문이나 원서들을 직접 읽고 싶습니다'라고 소개했던 기억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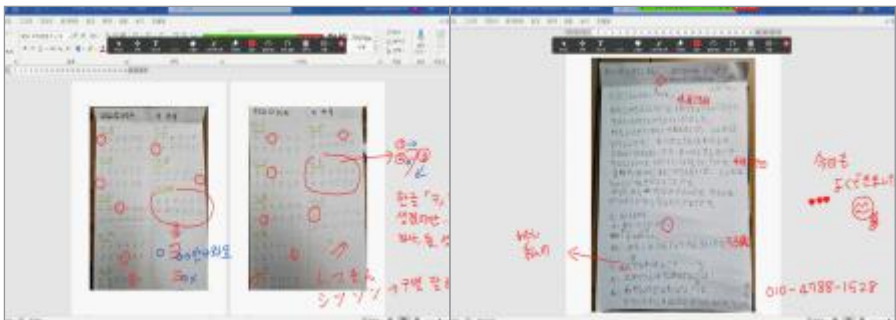
수업은 기본적으로 Zoom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기본 교재는 동양북스에서 나온 <NEW 디스크 일본어 STEP 1>이다. 기본 교재를 파워포인트 파일로 변환한 것을 Zoom 화면상에 띄운 채로 강의가 진행된다. 화요일 아침 수업이라 다소 피곤할 만도 하건만, 교수님의 수업에선 좋아본 기억이 별로 없다. 예의 교수님의 밝고 씩씩한 발성이 수업에 생기와 활력을 더해 주기 때문이다. 학생 수가 10명 남짓 하다는 것도 이 강의의 장점이다. 어찌 보면 소수 정예의 리버럴 아츠 칼리지(Liberal Arts College)를 지향하는 금강대의 기본적인 특성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소박한 인적 구성은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수자 간의 소통과 유대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어 준다. 이러한 금강대의 기본적인 특성에다 마츠하시 교수님의 열정이 더해지니 대학일본어 수업은 그야말로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자랑한다. 과거 다녔던 지방의 어느 대학은 규모 면에선 상당히 큰 종합대학이었는데, 거기서는 3년 남짓 학교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런 분위기를 겪은 적이 없다. 조금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극히 일부 강의를 제외하면 교수님은 마치 모놀로그 하듯 강의를 진행하시고, 학생들은 무덤덤하게 강의를 듣거나 대개는 소위 '딴짓'을 하기 십상이었다. 반면 대학일본어 수업은 이러한 소수 인원이라는 장점에 마츠하시 교수님의 세심한 배려가 더 해져 빛을 발하는 수업이다. 교수님은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수강생들이 자연스럽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고 북돋아 주신다. 수강생들은 교수님이 유도하시고 마련하시는 자연스러운 참여의 장(場)에서, 교재의 제목처럼 한 스텝 한 스텝, 그러나 꾸준하게 일본어를 익혀 간다.



▲ 교수님이 학기 중에 단체 카톡을 통해 보내주셨던 학교 전경 사진. 비대면 강의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간접적이거나 캠퍼스의 낭만을 느낄 수 있었다. 나무 관세음보살!

참으로 다양한 장점을 가진 대학일본어 수업이지만, 단언컨대 그중에서도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담당 선생님이신 마츠하시 사치요 교수님이라고 할 수 있다. 교수님은 일본의 기본이 되는 4개 도서 중 본섬에 해당하는 혼슈의 가장 북쪽 아오모리(靑森)에서 오신 분이시다.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 보면 한국과 일본 양국에 대한 교수님의 깊은 애정이 느껴진다. 교수님이 종종 Zoom 대기 화면으로 설정해두시는 아오모리의 지역 축제 <네부타마츠리>의 타오르는 듯한 사진을 볼 때마다, 그리고 일본어를 가르치시는 교수님의 유창한 한국어를 들을 때마다 그것을 느낄 수 있다. 교수님은 그러한 열정과 애정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종종 과제를 내주시고 적극적으로 피드백해준다. 과제는 주로 그 주의 수업 내용을 복습하기 위한 구글 퀴즈와, 새로 배운 표현을 익히거나 간단한 작문 능력을 기르기 위한 별도의 과제로 이루어진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충실히 따라간다면 결코 어렵다고는 할 수 없는 난이도와 분량이다. 대신 과제를 할 때는 되도록 철저히 하는 것을 추천한다. '설마 이 정도까지 검사하시겠어?'하고 실렁실렁 과제를 수행했다간 자칫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마츠하시 교수님을 소개하면서 다소 열정적인 면만 강조한 것 같은데, 작은 실수 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과제를 체크하고 피드백하시는 마츠하시 교수님을 보면서, 교수님은 예의 열정적인 모습 이면에 굉장히 이성적인 자세로 수업에 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츠하시 교수님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그리고 영화로도 큰 인기를 끌었던 일본의 소설 제목인 『냉정(冷情)과 열정(熱情) 사이』에 계신 분이라고 할까? 금강대의 새내기 불교학도로서 감히 한 마디 더 거든다면, 냉정과 열정 사이의 '중도(中道)'를 견지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일본어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수업을 학우들에게 소개하면서 그 시험이나 평가방식에 대한 설명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시험의 경우 다른 강의와 마찬가지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이루어진다. 중간고사는 그때까지 배운 기초 어휘나 문법, 표현의 숙지를 묻는 일종의 지필고사 형식의 시험만을 본다. 지필고사이긴 하지만



▲ 교수님의 과제 피드백 예시. 교수님이 친절하시면서도 꼼꼼하신 분임을 알 수 있다.

청해 문제도 있다.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구글 퀴즈 형태로 중간고사 이후 배운 어휘와 문법, 표현 등을 테스트하고, 마지막으로 회화시험을 본다. 이 글을 쓰는 현재는 구글 퀴즈 형태의 기말고사를 마치고 마지막 회화시험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기말회화시험의 경우 일본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래는 따로 수업이 없는 보강주에 교수님께서 친히 시간을 내주셔서 수강생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회화시험 리허설을 해주시기로 하셨다. 학생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시간을 내주시는 교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회화시험 리허설을 기다리고 있다. 아마 다른 학우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 학기 동안 마츠하시 교수님의 지도에 따라 대학일본어 강의를 수강하면서 소소하나마 이런저런 일도 많았고, 더러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것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불과 이 글을 쓰기 사흘 전 일이라 지금도 기억에 선명하다. 학기 막바지에 이르러 교수님은 조별 과제 발표 수업이 있을 것을 예고하셨다. 조별 과제의 내용은 교수님이 짜주신 조들이 각각 <오무스비코로링>이라고 하는 일본의 전래동화 연극을 준비해서 수업 시간 때 따로 발표하는 것이었다. 사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내심 당황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과거 대학에서 조별 수업을 할 때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서로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때때로 출신 학과마저 다른 학생들이 함께 모여 조별 과제를 한다는 것은 정말 지난한(?) 일이다. 아마 이 땅의 대학생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금강대에서 가진 '첫 조별 과제



▲ 간단한 질문에도 정말 최선을 다해 답변해 주신다.

기억'은 아주 좋았다고 말할 수 있다. 나의 '경험'에 기반한 걱정은, 교수님께서 과제 수행을 위해 강의 막간에 열어주셨던 소그룹 채팅에서 기우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우리 조는 나를 포함 총 3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내가 조장을 자청하기는 했으나 나머지 두 분 다 조장을 맡으셔도 될 만큼 굉장히 적극적으로 채팅에 참여하셨고, 톡톡 튀는 의견을 제시해주셨다. 노자 『도덕경(道德經)』에 '상선약수(上善若水)'라 했던가, 언제 제한 시간이 다 됐는지도 모를 만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끝난 첫 소그룹 채팅 이후로 발표일 당일까지 포함해 우리는 무려 3번의 자체 Zoom 리허설을 따로 더 가졌다. 참고로 말하는데 우리 조의 조명은 '옹아~ 니혼고노신세-지'이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옹애~ 일본어의 신생아'가 되겠다. 조원 모두가 이제 막 일본어의 첫걸음을 댄 초보자들이기에 그러한 조명을 붙였다. 대학일본어 수업을 함께 듣는 다른 수강생들에게, 우리 '일본어의 신생아'들은 그야말로 '앙팡 테리블(Enfants Terrible)', 즉 한다면 하는 '무서운 아해(兒孩)들'로 기억에 남았을 것이다. 3인의 아해(兒孩)가 도로를 질주하오,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오!

길지 않은 글을 쓰면서 돌이켜 보는데도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한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지난 14주 동안의 여정, 그 '뜻밖의 여정'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우선 말하고 싶은 것은 나의 사고방식이 보다 '글로벌(Global)'해졌다는 것이다. 단순히 일본어를 조금 익혔다는 의미에서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본래 금강대학교에 진학할 때만 해도 외국 유학까진 생각해보지 않았었다. 앞서 언급한 정상교 교수님의 『도쿄대학 불교학과』를 읽었을 때만 해도, 서른이 넘는 나이에 '금강대학교'에 진학할 용기까지는 어찌어찌 낼 수 있었다. 그러나 교수님처럼 다소 늦은 나이에 유학까진 넘본다는 것은 내게는 만용이요 언감생심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작금의 나는 조심스러우나마 유학을 꿈꾸고 있다. 우선순위는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일본이다. 나는 교양수업을 듣다가 나의 미래까지 구체적으로 꿈꾸고 설계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본 수업을 통해 비대면 캠퍼스 제도 시행에 따른 대인관계 방면의 결핍과 단절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다. 학우들과 조별 과제를 수행했던 일은 물론이고, 수시로 카카오톡을 통하여 교수님께 일본어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피드백을 받았던 것은, 비단 나의 일본어 실력을 제고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감성도 고양해주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마츠하시 교수님께서서는 일본어의 여러 가지 표현을 가르치는 중간중간에, 문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에서 쓰면 안 되는 표현 등을 자세히 구분해서 가르쳐주셨는데, 그러한 표현의 구체적 활용에 관한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 주셨다. 나는 이 수업에서 비단 일본어뿐만 아니라 일본어의 배경이 되는 일본의 문화까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금강대학교의 교양강의인 대학일본어 수업을 소개하였다. 글을 마무리할 때가 되니 문득

한강의 소설 『회랍어 시간』이 생각한다. 베스트셀러였던 소설의 소개는 이렇다. ‘말(語)을 잃어가는 한 여자와 눈(眼)을 잃어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 나는 이곳 금강대에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석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일본어 시간』을 통해 소박하나마 일본어라는 말(語)을 얻었고, 조출하나마 일본을 바라보는 눈(眼)을 얻게 되었다. 천성이 불제자여서일까? 선종의 삼조 승찬 대사님이 지으신 <신심명(信心銘)> 중 ‘지도무난 유험간택(至道無難 唯嫌揀擇)’이라는 구절이 문득 머리를 스친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다만 간택함을 꺼릴 뿐이다’라는 구절. 제불조사(諸佛祖師)의 말씀은 일자(一字), 일획(一劃)도 함부로 바꾸어 선 안 되겠지만, 이번만큼은 감히 한 글자를 바꾸는 불경(不敬)을 저지르고 싶다. ‘지도무난 유유간택(至道無難 唯唯揀擇)’이라! 금강대의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와서 보라!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오직, 오직 간택할 뿐이다. 그 무엇을? 마츠하시 사치요 교수님의 대학일본어 수업을!



[우수상]

듣지 않으면 손해보는 교수님

이채은 / 경영학

구분	전공 ■	교양 □	교수명	김성률
교과목	헌법총론			
추천 이유	원활한 상호작용/유용한 지식전달/깨달음을 주는 수업/이해하기 쉬운 설명			
한줄 평	헌법총론 수업은 인생에 있어 듣지 않으면 손해보는 과목 이다.			

듣지 않으면 손해보는 교수님



일단 본 에세이를 작성하기 전, 내가 이 수업을 들었던 계기와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내가 헌법총론을 들었던 학년은 2학년, 단일 전공으로 경영학과에 속해있었다. 행정과목을 들을 이유가 없는 단일전공자지만, 고등학교 시절 나는 사탐 과목 중 인기가 많던 사회문화를 택하지 않고 법과 정치를 택하여 적은 수의 학생(38명)과 경쟁하며 힘들게 배우는 것을 택할 만큼 법과 정치에 대한 흥미가 높았다. 그 당시 꿈도 경찰이나 법조인이었기 때문에 “1등급 한 명”이라는 각박한 경쟁률에서 수업을 들었어도 재밌고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떠올라 교양으로 행정과목을 들어볼까 했던 마음이 컸다. 사실 경영보다 행정에 좀 더 흥미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벌써 3학년 1학기가 끝나가고 있는 지금 나는 경영과 행정을 자율설계 융합 전공으로 묶어 경영행정 전공자가 되었다. 여기서 내가 행정을 융합 전공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끔 크게 작용한 과목이 이 에세이에서 소개할 김성률 교수님의 ‘헌법총론’이다. 고등학교 때 헌법을 수필로 전부 적어오면 생활기록부에 특별기재를 해주시겠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헌법을 무작정 통째로 적었던 적이 있다. 2학년 수강신청 기간에 어떤 수업을 들을까 하다가 헌법총론이라는 수업을 보게 되었고, 1학년 때 행정학 개론을 재밌게 들었기에 무작정 신청하고 보았다. 사실 2학년 1학기라는 나이에는 타 전공을 일반적으로 듣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모하다고 생각이 들어 걱정을 많이 하긴 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법 과목인 만큼 더 열심히 해서 행정전공자 못지않게 점수를 잘 받아야겠다는 다짐을 했던 것 같다.

작년 1학기부터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었다. 헌법 총론 과목은 행정학 전공으로 김성률 교수님이 맡아 수업하셨고, 녹화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학기에 김성률 교수님의 수업을 또 듣고 있는데, 일단 김성률 교수님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할 때는 시험을 보지 않는다. 어쩌면 시험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한다. 심지어 점수도 후하게 잘 주신다. 하지만 헌법 총론 수업은 매주 과제가 있었다. 교수님이 한글과일에 작성해두신 문제를 풀고, 어떠한 주제를 제시해주시면 그 주제를 설명하고 헌법과 접목해 헌법을 침해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라면 어느 부분에서 헌법이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내 생각을 적는 것이 과제였다. 사실 제시해주신 사건들에 헌법이 적용되었는지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조차 주관적인 처지에서 생각하여 쓰는

것이었기 때문에, 글 쓰는 것을 싫어하는 학생에게겐 약간의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헌법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민 주제를 위한 법이 아닌가. 나는 이 과제들을 하며 여러 사건을 알아보고 그 사건에서 어떠한 헌법적 요소가 침해되었는지 작성하고, 헌법에 대해 찾아가며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계기를 준 과제라고 생각한다. 자기 생각을 적는 것이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주관을 밝히는 것 자체가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주제에 관한 생각을 위해 주제를 더 정확히 파악해야 함으로써, 심화적으로 깊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 같다. 실제로 이 수업의 과제를 진행하며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같이 사회적으로 이슈였던 여러 사례와 헌법들을 접목시키며 왜 이슈가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등 사회·시사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알게 되었다.

과목에 대한 설명은 이쯤하고, 교수님과 수업방식, 나의 수업 참여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김성률 교수님은 행정학과에서 (내 기준) 모든 수업을 챙겨 들어가 손해 보지 않는 교수님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앞서 말한 내 생각을 적는 과제들에 항상 코멘트를 달아주셔서 어떤 점이 틀렸고, 무엇을 잘못 이해했는지 알 수 있었다. 2학년의 나는 교수님께 연락드리는 게 아직 조심스러웠기에 문제의 답이 잘못되었다거나, 헛갈렸던 문제가 결국 틀렸다는 코멘트를 받으면 인터넷의 모든 자료를 뒤져보고, 내가 틀린 점을 찾아보았다. 아! 코멘트에 오답인 이유를 적어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다. 항상 틀린 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개념을 다시 설명해주시며 왜 틀린 것인지 알려주셨다. 내가 따로 모든 자료를 찾아 나의 틀린 점에 대한 의문을 해소했던 것은, 그만큼 과제 자체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누구나 열심히 한 결과물에 오류가 있다면 그것이 왜 오류인지 찾을 것이다. 이것 역시 비대면이지만 대응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신 게 아닐까 생각한다. 매주 과제 제출 시 바로바로 나오는 점수에 “100”이 아닌 낮은 우울해질 정도로 처음으로 대학교에 와서 이 정도의 열정을 뽐아낸 과목이다. 교수님의 코멘트만으로 이해가 되는 날도 있었지만, “법”이라는 주제 자체가 항상 객관적인 것이 아니기에 누군가의 판단이 개입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기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사례를 찾아보며 이해하고, 지식을 넓혔다. 사례를 찾아보는 동시에 사회에 대한 지식도 늘었고, 아무것도 모르고 학교에 다니던 학생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더 뿌듯했다. 또한, 이미 행정 전공과목을 듣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갓성률”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만큼 교수님에 대한 학생들의 호감도는 엄청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김성률 교수님의 맞춤형 수업 설명이 아닐까 한다. 먼저 모든 수업마다 개념을 학생들의 일상 생활이나 그 주변에 빚대거나, 이해하기 쉬운 단어들로 설명하고, 판례 등의 예시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나의 경우처럼 전공자가 아닌 학생이 들어도 어려운 단어가 없고, 수업을 한번 듣고 과제를 바로 작성할 수 있을 정도의 눈높이에서 설명해주신다. 사실 1학년 때 행정학 개론을 들으며 한자를 못 하던 나에게 매 주차 모든 강의자료에 한자가 빠지지 않고 나와서 실시간 수업을 따라가기도 힘

들었고, 암기하기도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김성률 교수님은 어려운 단어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 주치의 강의자료를 따로 올려주시고 녹화 수업은 항상 말로만 진행하시는데도 한 번도 지루하다고 생각된 적이 없었다. 아마 가끔 교수님의 법과 관련된 견해나 사담이 재밌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지루하지 않게 중간중간 사담이나 견해, 현재의 정치 상황 등을 섞어 이야기 해주심으로써 집중력을 좀 더 향상해주는 수업방식과 아직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눈높이 강의, 주관을 작성하게끔 하는 과제를 통한 자율적 심화학습 유도, 매주 달리는 과제 코멘트를 통해 본인의 오류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점이 김성률 교수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 수업을 들으면서 사회·시사는 물론 헌법에서 명시하는 기본권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였고, 아직도 유용한 지식으로 사용 중이다. 또한, 과제를 하기 위해 여러 논문이나 기사, 지식백과를 찾아보는 검색 활동을 통해 어떻게 자료를 찾는지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고, 그렇게 찾은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 내가 원하는 부분을 도출해내는 능력도 기르게 되었다.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한 후 그 자료들에 대한 내 생각을 작성하며 더 깊게 생각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었고, 한 가지 법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여러 견해를 종합해보기도 하는 등 더 심화한 학습을 할 수 있었고, 이미 판결된 사례에 대해 어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며 창의력도 기를 수 있었다.

사실 1학년의 나는 아무 생각도 없고 시험 하루 전날 공부하는 보통 노는 대학생이었다. 하지만 헌법 총론 수업을 들으며 배운 내용을 토대로 더 세세히 알아가고, 그것을 위해 자료를 찾고 정리, 종합하는 과제를 수행하며 엄청난 발전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1학년,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닌 학교에 적응할법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은 다르게 보면 짧을 수 있다. 2학년 1학기 헌법 총론이라는 수업을 듣고, 수업을 ‘제대로’ 듣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항상 엄마가 누누이 말했던 공부를 ‘제대로’ 하라는 말의 방법을 찾지 못했는데, 헌법 총론 수업을 들으며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더 깊게 알고자 하고, 공부에 욕심이 없던 내가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슬프기도, 억울해하기도 하는 점수 욕심도 생겨났다. 사실 ‘헌법 총론’ 과목 자체에 흥미가 있어 더욱 재밌게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했던 것도 있지만, 교수님의 쉬운 설명과 내가 생각하고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과제를 통해 더 많은 발전을 도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1학년의 나였다면, ppt 하나를 만들어도 대충 발표만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거나, 글을 써야 하는 과목은 알아서 될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또한, 글을 써도 문맥을 정리하지 못하거나, 내 생각을 어디에 넣어야 할지 가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 과목과 이 교수님은 학생에게 맞춘 수업 난이도와, 지속해서 글을 쓰고 생각할 기회를 제공해주어 “어렵지 않다.”, “해볼까?” 하는 생각을 준다. 과제 방식은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안

다.”라는 속담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를 배워 그 하나를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게 했기에, 내가 공부를 제대로, 개념을 완벽히 이해하는 방법을 깨닫게 해준 수업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교에 들어와 과제를 해결해낼 수 있게 연습할 수 있고, 방법을 깨닫게 해주었고, 열심히 하면 안될 건 없다는 생각과 나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는 용기를 북돋아 준 수업이었고, 이것은 모두 김성률 교수님의 수업방식을 통해 유도되고 형성된 것들이기에 헌법 총론 수업 또는, 김성률 교수님의 수업을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우수상]

법학에 무지한 나를 법학적인 사고를 가하도록 만들어 준 고마운 행정법

정지윤 / 행정학

구분	전공 ■	교양 □	교수명	김성률
교과목	행정법 1			
추천 이유	원활한 상호작용/학생중심 수업/다양한 수업자료/ 다양한 교수법/유용한 지식전달/깨달음을 주는 수업/이해하기 쉬운 설명			
한줄 평	행정법 1 수업은 법학에 무지한 자들을 법학적인 사고를 가하도록 이끌어주는 뜻 깊은 스토리텔링 수업이다.			

법학에 무지한 나를 법학적인 사고를 가지도록 만들어 준 고마운 행정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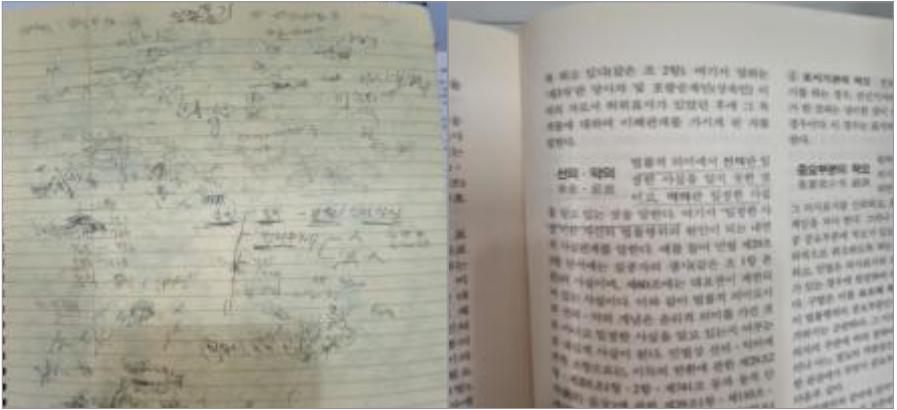
행정법1은 행정법 총칙을 배우는 부분이다. 행정법은 크게 행정법 총칙과 행정법 각론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행정법1의 부분인 행정법 총칙은 개별적인 행정법 각론에서 공통된 부분들을 뽑아서 옮겨 놓은 부분이라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행정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처음에는 행정법이라는 과목은 듣기만 해도 어려운 것 같고, “법”이라는 용어 때문에 어려워 보여서 다가가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작년에 김성률 교수님이 헌법의 어려운 용어를 반복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과제 내용에 관해 학생들이 어려워하면 조언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가려운 때 끊어주시듯 시원하게 해결해주시고, 스스로 법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도록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과제를 부여해주셔서 만족하면서 강의의 틀을 틀어 김성률 교수님을 믿고 올해 행정법1이라는 강의를 개설 하셨길래 듣게 되었다.

행정법1 교수님의 수업은 다른 교수님들의 수업방식과는 다르게 과제내용을 심도 있게 평가하신다. 그래서 김성률 교수님은 잔머리로 인터넷에서 아무거나 복사하고 붙이는 허튼 수작을 부리는 과제를 싫어하신다. 나의 많은 생각을 거쳐서 다듬어진 “법학적인 사고”를 원하신다. 김성률 교수님의 과제는 행정법1을 듣는 학생들에게 법학적인 사고 길러주기 위해서 격주로 많이 생각하고 나의 생각을 정리해야 하는 “1. 판례요약 2. 법리적 쟁점 3. 나의 생각” 이렇게 3부분으로 나누어서 격주로 과제를 부여하시는데 이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글을 써야 한다. 나는 처음에 판례요약을 하는데 있어서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들어가서 판례 전문을 보면서 원고가 누군지 피고가 누군지 파악 하는 것조차 힘들었다. 왜냐하면 원고의 뜻과 피고의 뜻도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법률용어 사전을 사서 원고가 무엇인지 피고가 무엇인지를 깨우쳤고, 원고랑 피고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니까 주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통 법원에 소송을 청구하므로 소송을 한 자가 원고라고 생각하면 쉽게 와 닿는 것을 깨달았다. 원고와 피고를 나의 사고로 정확한 의미를 깨우친 후에 판례를 읽으면 원고가 누구인지 피고가 누구인지를 파악이 돼서 주체가 누구인지도 몰랐던 판례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판례정리를 하는 힘이 키워진 후 법리적 쟁점의 의미도 파악을 하는 데 애를 먹었다. 산 넘어 산이라

는 말이 여기서 나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법리적인 쟁점이 뭘까? 라고 계속 생각을 해왔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서 사전을 뒤졌는데 법으로 싸우는 점이라고 나와서 이해가 잘 안 갔는데 교수님이 학생들이 법리적 쟁점 부분을 이상하게 써서 낸다고 생각하셨는지 나중에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법리적 쟁점은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쓰는 것이 법리적인 쟁점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의문점이 풀렸다. 혼자 열심히 사전도 찾아보고 고민해보고,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고민했기 때문에 교수님이 초반에 과제를 내고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신 법리적 쟁점의 쓰는 방법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분명 나에게 더 쉽게 다가오는 것 일 것이다. 판례 요약과 법리적 쟁점을 쓴 뒤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제일 막막했다. 처음에 나의 생각이라는 것이 난 이 판례를 찬성한다. 또는 반대한다. 이렇게 쓰는 것으로 잘못 파악해서 교수님이 그런식으로 쓰지 말고 "판결논거를 본인생각으로 정리하기 보다는 본인의 생각만을 보다 명확하게 기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평가 코멘트를 남겨 주셨는데 이 코멘트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쓴 나의 생각 부분을 읽어보니 판결을 설명하고 정작 나의 생각은 쓰지 않아서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평가 코멘트를 받은 뒤로 나의 생각 부분에 판결을 설명하지 않고, 판례를 통해서 내가 느낀 감정, 생각,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고쳐나가면 좋겠다 라고 나의 생각을 정리했다.

김성률 교수님이 부여한 행정법1 과제는 내가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법학적인 사고를 키워 줘서 감사했다. 처음에 과제가 너무 어려워서 교수님을 원망한 적이 많았다. 법학에서의 선의량 약의 의미도 모르던 내가 매주 행정법 과제를 통해 법률용어 사전을 찾아다니면서 울고 웃었다. 법전이 가끔 한문으로 풀어져있어서 난감할 때랑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 싶을 때 네이버, 구글 등 인터넷을 열심히 돌아다니고 내가 찾고자하는 법률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숙지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법률 용어가 녹아든 예시들을 통해서 법률용어가 어느 부분에 쓰이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법률용어사전 등은 조선시대 때 일본서적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중요한 한문을 자필로 쓰면서 음과 뜻을 익혔다. 법률용어를 글로 쓰면서 말하면서 잘 외워지는데 글씨 쓰는데 너무 힘을 주거나 예쁜 글씨 써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 정작 실질적인 공부는 안하고 글씨 예쁘게 쓰는데 치중해 있어서 외워야 하는 상황에서는 줄 노트에 줄을 안 맞추고, 연습장 쓰듯이 그냥 글씨는 날라 가면서 여러번 반복해서 쓰면서 외워야 잘 외워지기 때문에 항상 그런식으로 외웠다. 또한 모르는 용어가 나올 때마다 사전이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고 반복해서 나의 용어가 될 때까지 자연스럽게 익혔다. 법률용어뿐만이 아니라 행정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비례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자재 완성적 신고 등의 의미를 법학 사전을 통해 찾아보았고 법학 사전에 내용이 없으면 행정법 교과서에 있는 내용의 필요한 부분을 정독해서 읽었다. 그래도 계속 가먹는 법 내용은 포스트잇에 정리를 해서 자주 볼 수 있도록 책상에 붙여 놓았다. 계속 가먹는 부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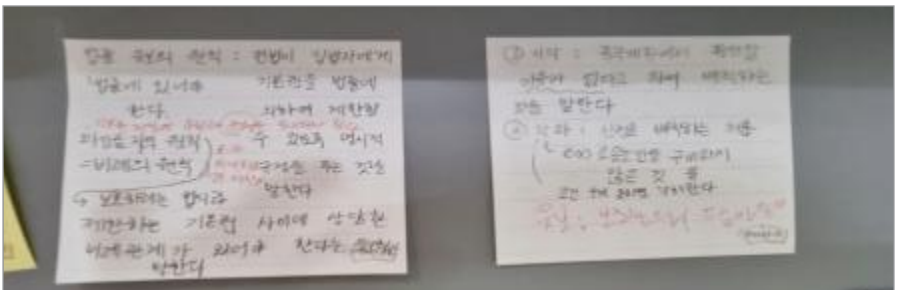


〈 법률용어를 법적이요건 등을 자필로 쓰면서 암기하는 사진이다.

처음이라서 법률용어랑 법적이요건이 막막하고 어려웠다. 글씨가 날라 다니는데 이유가 있다. 글씨를 예쁘게 쓰는데 집중하다보면 막상 머리 속에는 남아 있는게 없기 때문에 글씨가 날라 다니든 말든 상관을 안 쓰면서 외워야 머릿속에 더 잘 남기 때문이다.〉

〈 선의·악의는 법학에서 제일 중요하고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부분인데 법학을 처음 배울 때는 그것조차 몰라서 법률용어 사전에 밑줄을 그어가면서 정독을 한 사진이다. 계속 반복해서 보아서 나중에 저절로 터득이 되었다.〉

포스트잇에 정리해서 자주 보다보니 법의 내용이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행정법에서 반복되는 내용이 나올 때 빠르게 넘어갈 수 있어서 뿌듯했다. 또한 행정법 교과서는 개별 요건에 대한 구체적 사안인 판례가 적용된 사례를 보여주어서 미리 예습을 하고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 교수님의 수업을 이해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



〈 법률용어랑 개별 요건의 의미를 사전을 찾아보고 계속 봐도 안 외워지는 부분을 따로 포스트잇에 정리해서 책상에 붙여서 계속 봐서 저절로 암기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과제제출 정보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과제가 업로드되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 : 나의 생각은 편협하다. 지형지리교육에서 좋은 평가는 업물을 올리거나 위약법위를 넘어서 교총할아버지의 행동은 본당 잘못이 있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지형지리단 평가 적야 하고 특히 교총할아버지의 경제적 능력도 판단하여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무법제 보호하기 위해서도 수감법으로 인한 피해는 지형지리단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제출내용	정자는 2개짜리 과제입니다.	
첨부	12주회+9553011-과제+11+5+1.jpg_117008Byte	
평가코멘트	잘 준비되었습니다. 다만, 판결논거를 판단한법적으로 정답이 가 보다는 판결의 정당성을 보다 정확하게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평가점수	95점 / 100점	

< 내가 90점대에 머무른 이유를 거의 학기말에 가서 교수님의 평가 코멘트를 받고 깨달았다. 나는 나의 생각에 정말 나(본인)의 생각을 써야 하는데 나의 생각은 안 쓰고, 판례를 정리를 한 것이다.>

과제제출 정보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과제가 업로드되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 : 제재를 한 행정기관과 제재를 당한 시민간의 존재의 문제이지 이 때문에 인하여 다른 사람의 헌식적 이익을 얻었다 하여 제3자에 불과한 다른 사람에게까지 소송능력을 부여 한다는 것은 법에 의미를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내용이 불어짐으로 판단에도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소송은 법률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만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만약 모든 관계인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 법원의 법이 너무 넓어지고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일을 해결할 수도 없을 것이다.
제출내용	정자문	
첨부	12주회+9553011-과제+11+5+1.jpg_117408Byte	
평가코멘트	잘 정리했습니다. 좋은 판례를 선정하였고, 본인 생각을 잘 기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평가점수	100점 / 100점	

< 감성을 교수님의 평가 코멘트를 꼼꼼히 읽고 나의 잘못된 부분을 고쳤다. 그래서 거의 학기말이 돼서 100점을 받았다. 나의 생각을 판례를 정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말 내가 생각하는 느낀점과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제대로 된 나의 생각을 기술했기 때문에 좋은 점수가 나왔다.>

이처럼 행정법1 수업을 통해서 스스로 법학을 공부하는 방법을 깨우쳤고, 법리적인 쟁점이 무엇인지 나의 생각을 기술하는 것이 단순히 판례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판례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는지 이 판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등을 깨달았다. 특히 행정법1 수업을 통해서 LOTUS 핵심역량 강화에 있어서 지식탐구에서 좋은 판례를 선정할 수 있는 정보 활용 능력을 기르게 되었고 판례를 선정한 후에 판례의 법리적 쟁점이 무엇이고, 원고와 피고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나의 생각을 판례를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나의 느낌과 판례에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른 측면으로 바꾸면 원고와 피고의 마찰이 줄어들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구상하면서 나의 사고의 힘이 커지므로 분석적인 사고를 기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법학에 무지한 나를 법학적인 사고를 가지도록 만들어 준 고마운 행정법1 수업이다. 고마워! 행정법1 수업!



[우수상]

야, 너두 일본어 할 수 있어!

최성림 / 불교학

구분	전공 □ 교양 ■	교수명	마츠하시 사치요
교과목	일본어 문형연습		
추천 이유	원활한 상호작용/학생중심 수업/이해하기 쉬운 설명		
한줄 평	일본어 문형연습 수업은 줌(ZOOM)으로 떠나는 방구석 어학연수 이다.		

야, 너두 일본어 할 수 있어!



I. 들어가며

미국인 타일러 라쉬는 외국인 토크 예능 프로그램 '비정상회담' 출연으로 유명세를 탔다. 그는 무려 8개 국어를 구사한다고 알려진 이른바 '언어 천재'이다. 혹자는 우스갯소리로 그를 '한국인보다 한국어 잘 하는 외국인'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언어에 타고난 재능을 가진 타일러도 한국어를 배우며 간혹 실수를 했다고 한다. 그는 한국어를 배우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국어 동사가 모두 '하다'로 끝난다고 생각하여 '쉬고 싶다'는 말을 선생님께 '쉬하고 싶다'고 말하는 실수로 당황한 적이 있다고 한다.

얼마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윤여정은 무례한 사람으로 몰리는 해프닝을 겪었다. 외신과의 인터뷰를 국내 일부 매체가 잘못 번역하여 그녀의 말을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사용한 'admire'를 인터뷰 맥락상 '동경'으로 번역해야 했지만, 일부 매체가 '존경'으로 잘못 해석하여 벌어진 일이었다.

위 두 사례처럼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우며 다양한 실수를 저지르고, 그 실수로 인해 좌절감을 느끼기도 한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그 언어에서 쓰이는 단어, 문법 따위를 공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 언어가 사용되는 국가 또는 문화권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려 할 때, 오롯이 언어를 배운다고 할 수 있다.

II. '일본어 문형 연습'과 함께 한층 더 성장하다

1. 이 수업을 선택한 이유

다들 알다시피 우리 학교는 졸업하려면 제2외국어, 중국어나 일본어를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필자는 졸업인증제 이수를 위해 그전까지는 중국어 수업을 들었으나 작년부터 일본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엉뚱한 이유로 보일 수도 있지만,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들을 보고 나서 일

본어가 배우고 싶어졌다. <어느 가족(万引き家族)>,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そして父になる)>와 같은 영화를 보며 자막 없이도 그 영화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호기롭게 일본어 공부에 도전하였지만 처음부터 많은 난관에 부딪혔다. 히라가나와 가타가나를 따라 쓰는 것조차 벅찬 일이었고, 시간·날짜 등에 사용되는 숫자 표현을 익히는 것은 더 힘든 일이었다. 그러던 와중에 접하게 된 마츠하시 사치요 교수님의 '대학 일본어' 수업은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이게 했다. 원어인 교수님답게 일본어 입문자가 일본어를 학습하며 어려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셨다. 교수님의 수업 덕분에 난생 처음 배우는 일본어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이번 학기 '일본어 문형연습' 과목을 수강신청하면 일본어 실력을 진일보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게 만들었다.

2. 과목 소개

마츠하시 사치요 교수님의 일본어 문형연습 과목은 일본어능력시험(JLPT) 초급 수준의 기초 문법을 학습한다. 다락원에서 출판하는 『일본어 표현 문형 200』을 사용하여 다양한 문법을 정리한다. 교재는 다양한 문형이 기능별·수준별로 분류되어 있어 문형의 정확한 쓰임을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교수님께서서는 수업 중에 오용 예문을 정리하여 이 문법이 왜 맞는지 또는 왜 틀렸는지를 설명하신다.

수업이 끝나면 수강생들은 매주 과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바로 일본어 문장 작문이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히 작문하여 과제로 제출한다. 이때 작문은 기본적으로 간단한 문장의 형태여야 하지만, 가상의 인물들이 대화하는 형식이어도 무방하다.

교수님은 학기 초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여 수강생들을 모두 초대하신다. 옆의 사진처럼 단체대화방은 해당 주차 내용에서 학생들이 헛갈려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관련 웹사이트 링크 또는 내용 정리를 통해 수강생의 이해를 도우려 하신다.

많은 학우들이 수강신청을 하려 할 때, 이 과목이 글로벌지역통상학(일본) 전공수업으로 개설되어 부담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와 같이 일본어에 서투른 학생도 잘 이해할 수 있을만큼 교수님께서 쉽고 친절하게 수업을 진행하신다. 그렇다고 해서 '수박 겉 핥기'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않을까 걱정하지는 말자. 교수님께서서는 다양한 예문과 연습문제로 수강생들이 확실하게 그 내용을



수업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의 모습

이해할 수 있게 만드시니까 말이다.

3. 다른 수업과의 차별점

다른 수업들과 이 수업의 가장 큰 차별점은 바로 교수님께서 일본어를 모어로 사용하신다는 점이다. 이 수업을 통해 막연하게만 이해하던 단어의 용례들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사전에서 찾을 수 없는 어휘들 사이의 미묘한 의미 차이들이나 그 적절한 사용법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きれい’와 ‘にがて’는 모두 개인적인 불호(不好)를 나타내는 어휘이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웬만하면 ‘にがて’를 사용하는 편이 좋다고 알려 주셨다. ‘きれい’가 다소 강한 어감을 지니고, 그에 비해 ‘にがて’는 완곡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의 언어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여 한국어에는 다소 직설적인 표현이 많은 반면에 일본어에는 완곡한 표현이 많다. 이 수업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きれい’를 남발하여 대화 상대방을 당혹케 했을지도 모른다.

명령형에 대해 수업을 진행하던 중 일본어에 남성이 쓰는 말과 여성이 쓰는 말이 구분된다는 점도 알려 주셨다. 예컨대 ‘(어떤 장소로) 가라’를 일본어로 말하고자 할 때 남자는 ‘行け’를, 여자는 ‘行きなさい’를 사용한다. 물론 남녀가 말투를 바꾸어 사용해도 괜찮지만, 그럴 경우 어색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같은 말처럼 보여도 표현 방식에 따라 그 뉘앙스가 다를 수도 있다는 점도 배울 수 있었다. 예를 들어 ‘今日は行かなくていいよ.’와 ‘今日は行かなくてもいいよ.’는 모두 한국어로 ‘오늘은 가지 않아도 돼.’로 번역된다. 그런데 전자의 표현은 땡땡이 치자고 회유하는 느낌을 주지만 후자는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할 때 사용된다.

인터넷이나 일본어 학습교재들을 찾아보아도 알기 힘든 내용들을 이 수업을 통해 알게 되었다. 다른 수업이었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내용들을 일본어 모어 화자이신 교수님 덕분에 배울 수 있었다.

4. 노력이 결실을 맺는 과정

학생들이 일본어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하려는 교수님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학생들의 노력이 필수불가결하다. 필자는 다른 수강생들과의 일본어 실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매 수업 전후로 연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려고 노력했다. 강의계획서를 참고하여 해당 주차에 진행될 내용을 연습하고, 교재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 뜻을 사전에서 찾아 따로 단어장에 정리했다.

수업이 끝나면 그날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데 최소한 10분 이상씩 투자했다. 이 수업은 화요일 오후에 진행되는데 수업 당일 복습하고, 이를 뒤에 다시 복습하고, 마지막으로 일요일에 과제를 하며 복습하면 수업 내용을 잊지 않을 수 있었다.

매주 부여되는 과제에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 과제물을 제출하면 교수님께서 검토하여 피드백을 주신다. 아래 사진처럼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대한 수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과제물을 작성하려고 했다.

이번 학기는 수업에서 뒤떨어지지 않으려 많은 노력을 한 것 같다. 모르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고, 노트에 써가며 외우는 것은 고된 일이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을 통해 필자의 일본어 실력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p>Q.79</p> <p>A: 書いて下さい。いっしょにコーヒーを飲むに行きませんか？お茶でも、何か 커피 대신에 가지 않겠습니까?</p> <p>Q: ええ、いいです。</p> <p>→은네, ...커피도는 선택권을 꼭 달아 줘주세요. 감사합니다. 커피도...라고 말하는 것이 선택권이 혹시 커피를 대신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가 필요할 때까지, 가는 말로 필요하고 싶으면 어떤 말투가 좋습니다.</p> <p>(한말)</p> <p>A: コーヒー飲みませんか？</p> <p>Q: いいね、行こう。</p>	<p>내역?</p> <p>Q: ええ、いいです。</p> <p>→은네, ...커피도는 선택권을 꼭 달아 줘주세요. 감사합니다. 커피도...라고 말하는 것이 선택권이 혹시 커피를 대신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가 필요할 때까지, 가는 말로 필요하고 싶으면 어떤 말투가 좋습니다.</p> <p>(한말)</p> <p>A: コーヒー飲みませんか？</p> <p>Q: いいね、行こう。</p> <p>→은네, ...커피도...라고 말하는 것이 선택권이 혹시 커피를 대신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가 필요할 때까지, 가는 말로 필요하고 싶으면 어떤 말투가 좋습니다.</p>
---	--

[과제 피드백 예시]

Ⅲ. 맺으며

외국어 능력은 점점 중시되는데 외국어를 제대로 배우고 싶어도 그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해외로 어학연수나 유학을 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학교의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중단되었고, 외국인 학생과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나 해외 대학으로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대부분 비대면 방식으로 제한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적어도 일본어를 공부하는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마츠하시 사치요 교수님의 수업이 있으니까 말이다. 교수님의 수업을 수강한다면 간접적으로나마 어학연수나 유학의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문형만을 공부하는 것을 넘어 왜 그런 문형이 사용되었는지, 원어문이 자주 사용하는 문형은 무엇인지 배우고 싶은 학우들에게 마츠하시 사치요 교수님의 수업을 강력 추천한다.

중독성 있는 CM송으로 인기를 끈 한 어학원의 캐치프레이즈로 이만 글을 마치려 한다. 야, 너두 일본어 할 수 있어!



[장려상]

정석으로 배운 중국어, 빛을 발휘하다

김수림 / 행정학

구분	전공 □ 교양 ■	교수명	유아려 교수님
교과목	중국어문형분석과 활용		
추천 이유	원활한 상호작용/학생중심 수업/유용한 지식전달/이해하기 쉬운 설명		
한줄 평	중국어문형분석과 활용 수업은 중국어 능력자가 되기 위한 초석 이다.		

정식으로 배운 중국어, 빛을 발휘하다



중국어를 정식으로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 <중국어문형분석과 활용> 과목은 필수코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과목은 실용적인 중국어 실력을 갖추기 위해 실제로 중국인들이 쓰는 표현을 통해 문형 분석과 활용에 중점을 둔 수업입니다. 초중급 중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기에 1학년 때 교양 수업을 듣고 온 학생도 충분히 수강할 수 있는 레벨의 수업이라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인의 생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국 현지인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알아보고 교재에 있는 다양한 주제별 테스트를 통해 활기차고 재미있는 실용적인 중국어 수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는 어렸을 때 아이가 일상생활 속에서 모국어를 배우듯 최대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본문 문형을 암기하는 것이 아닌, 본인이 생각되는 대로 자연스러운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교수님께서 하나하나 지도해주시는 수업이기에 이를 통해 유연한 사고로 중국어의 문장구조를 배우고 다양한 글을 통해 문장구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중국어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수업만의 특징 및 장점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것은 중국인 원어민 교수님께서 수업을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목표 언어만의 습득으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언어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고유의 언어문화를 함께 이해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어와 한국어는 이 두 언어는 계통적으로 다릅니다. 고립어인 중국어 문장에서는 어순이 달라지면 그 의미도 달라지는 반면에 교착어인 한국어는 대명사의 위치가 바꿨는데도 의미상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문화 배경 차이가 존재하기에 문장표현법도 다릅니다. 이처럼 본 수업은 중국어의 언어적 특징을 분석하여 현지인처럼 자연스러운 표현을 활용하는 데 목적을 두었기에 이를 수강한 학생들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가며 수월하게 받아들여 실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교수님만의 편안한 교수법입니다. 학생들의 중국어 발음 개선과 생생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ZOOM을 이용하여 수업을 해주셨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업을 듣기에 강의 미루거나 버려치기를 할 수 없기에 한 번에 몰아서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한 위험부담이 없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중국어로 표현해야 하는 시간에는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시기에 부담

스렵지 않게 중국어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중국어를 읽는 것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모든 문장에 병음을 표시해주셔서 같이 공부하는 학우들이 공부하기에 보다 수월하다며 이 수업방식에 모두 환호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소수정에 수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중국어 실력이 각각 상이합니다. 중국에서 몇 년 이상 오랫동안 살아 온 학우들도 있고, 교환학생으로 단기간 중국에 다녀온 학생들도, 중국어가 거의 처음인 학생들도 있는 등 수준이 가지각색이지만 교수님께서 저희의 수준을 모두 파악하고 계십니다. 소수정예가 아니라면 이렇게 한명 한명의 수준을 간파하고 있는 것은 무리이기에 수업만으로 실력 향상이 어려울텐데 소수정예이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실제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중국인이시기에 알 수 있는 현지 문화, 유행하는 영화 등 일상 소재를 다양하게 소개해주시며 학생들에게 중국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게 도와주셨고, 이는 실제로도 학우들이 중국이라는 나라와 중국어에 대해 몰음표를 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시는 영화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아 중국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관심이 생겨 그에 대한 리서치 등 자료를 찾아보면서 중국에 대한 호기심이 더해졌습니다.

평가방식은 크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이루어집니다. 중간고사는 교수님과 화상 플랫폼 ZOOM으로 일대일 1:1 구술시험을 봅니다. 하지만 주제는 시험 일주일 전쯤 LMS 공지사항을 통해 미리 알려주시기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2021년 1학기 같은 경우, 주제가 5개 주어졌고, 그중에 자신이 가장 마음에 들거나 자신 있는 주제를 골라 준비해서 5분에서 10분 정도 발표하고 교수님께서 이를 바탕으로 한 두 문제 정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과 주제는 실제상황에 따라 본인의 쇼핑 방식에 대한 소개, 2과 주제는 최근의 날씨 소개, 3과 주제는 이번 학기 선택한 과목에 대한 소개, 4과 주제는 어떤 장소의 위치, 역할, 가는 방향에 대한 소개 마지막으로 5과 주제는 본인이 좋아하는 요리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3과 주제를 선택하여 제가 이번호학기 듣고 있는 7개의 과목을 소개하고, 그 과목을

<p>중간시험 안내</p> <p>작성일 : 유머리(심심정혜학부) 등록일 : 2021-06-12 15:28 조회수 : 8</p>	<p>과목: 중국어 문장분석과 활용</p> <p>날짜 : 4월19일 오후 1시~2시 정상수업 2시10분부터 중간시험 실시</p> <p>시험유형 : 스피치 5분~10분 (질문에 대한 답)</p> <p>시험방법: 실시간 줌으로 (아래 시간표 참고)</p>
<p>과목: 중국어 문장분석과 활용</p> <p>날짜 : 4월19일 오후 1시~2시 정상수업 2시10분부터 중간시험 실시</p> <p>시험유형 : 스피치 5분~10분 (질문에 대한 답)</p> <p>시험방법: 실시간 줌으로 (아래 시간표 참고)</p> <p>본인이 시험보는 시간에 맞춰서 참여하세요. (약 1분 정도 미리)</p> <p>시험범위 : 교과서 1과~5과 '읽어보기' 주제 중 하나 선택</p> <p>1과 주제 : 실제상황에 따라 본인의 쇼핑 방식에 관한 소개</p> <p>2과 주제 : 최근의 날씨 소개</p>	<p>본인이 시험보는 시간에 맞춰서 참여하세요. (약 1분 정도 미리)</p> <p>시험범위 : 교과서 1과~5과 '읽어보기' 주제 중 하나 선택</p> <p>1과 주제 : 실제상황에 따라 본인의 쇼핑 방식에 관한 소개</p> <p>2과 주제 : 최근의 날씨 소개</p> <p>3과 주제 : 이번 학기 선택한 과목에 대한 소개</p> <p>4과 주제 : 어떤 장소의 위치, 역할, 가는 방향에 대한 소개</p> <p>5과 주제 : 본인이 좋아하는 요리에 대한 소개</p>

선택한 이유 그리고 그 수업들을 통해 어떤 부분을 배우고 성장하고 싶은지를 발표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기에 미리 중국어로 원고를 작성해서 중국인 친구에게 연락하여 틀렸거나 자연스럽게 읽지 않은 문법을 교정받고, 녹음을 요청해 그 녹음본을 틀어놓고 웨도잉(원어민 음성을 듣고 따라하는 외국어 공부 방법)하며 꾸준히 연습하였습니다. 발표가 종료되고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들리지 않았던 단어의 성조를 다시 가르쳐 주셨고, 열심히 노력하고 교정을 받았기에 뇌리에 박혀 그 발음은 앞으로도 절대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이 수업을 통해 저의 중국어 실력을 극대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배웠던 표현을 활용하여 작문을 연습했습니다. 교수님께 이러한 저의 목표를 말씀드렸고, 자유 주제를 택하여 작문을 하였고,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내면 며칠 후 수정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배웠던 표현을 응용해 작문 연습을 하다보니 그 문형이 체화되어 문장 표현 능력이 일취월장했다는 피드백을 받았고, 자신감이 더욱 향상하여 중국어가 더욱 더 좋아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중국어 문형분석과 활용> 수업을 통해 저는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하고 저 자신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금강대학교의 LOTUS 핵심 역량군에 따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눔'입니다. 중국어는 복잡한 한자, 4개나 되는 성조 등 한글과는 다소 다른 언어 체계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외국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잘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공부하다가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며 중국어 표현들을 설명해주고, 이에 대한 유래를 소개하며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헛갈리거나 비슷한 표현들을 어느 상황에 쓸 수 있는지를 비교해가며 사진을 첨부해 설명을 하여 누리꾼들과 구독자들의 큰 환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네이버 추천 글에도 제 블로그가 소개되어 이제는 네이버 검색을 하면 저의 블로그가 상단에 뜰 정도로 인지도 있는 외국어 학습 도움 사이트로 자리잡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중국어에 고민이 있는 금강대학교 학우들을 전화나 문자로 상담해주고, 제가 학습했던 것을 토대로 학습법과 조언을 해주며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어 능력'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한 학기동안 어학연수를 하였지만 한국에 돌아온 후 중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실력이 감퇴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을 통해 실력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고 있던 표현들을 활용하고 표출하면서 이전보다 중국어 수준이 더욱 향상한 소중한 기회로 거듭났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성 존중'입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중국에 대한 편견이 해소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중국에 살았던 적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왜 그러한 문화와 행동양식을 지니고 있는지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원어민 유아려 교수님은 한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거주하시면서 각 문화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계시기에 이러한 의문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중국은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거대한 인구와 영토를 가진 국가이기에 다양한 민족의 특징을 파악하며 세계를 보는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미래 설계’ 역량입니다. 저는 중국어를 배우기 전까지 구체적인 꿈이 없었으나 잘하는 것이 생기고, 이는 자신감으로 연결되어 외국어에 대한 욕심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프랑수와 스페인어도 도전하게 되어 열심히 그리고 꾸준하게 노력한 결과 중급 레벨(유럽외국어 기준 B2단계) 시험에 응시하여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중국어 문형분석과 활용>과목은 중국어 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세계를 보는 시각 그리고 타인과 나누고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저의 역량을 한껏 높여준 ‘효과과목’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목이 학교에 개설되어 있다는 것이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유아려 교수님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남은 2개월 시간도 성실하게 노력하고 실력을 쌓아 우수한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image shows a screenshot of a blog post. On the left, there is a table of contents for a book titled '중국어 문형분석과 활용' (Chinese Grammar Analysis and Application). The table lists various grammar topics such as '중국어 문형분석과 활용' and '중국어 문형분석과 활용' with corresponding page numbers. On the right, there is a video player showing a woman in a red shirt speaking. Below the video, there is a caption in Korean: '강의주제 및 강의내용과 블로그 내용(중국어 컨텐츠)'. The video player also shows a cartoon chicken illustration and some text in Chinese.

강의주제 및 강의내용과 블로그 내용(중국어 컨텐츠)



[장려상]

‘미디어 일본어’ 수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남준우 / 글로벌지역통상학(일본)

구분	전공 ■	교양 □	교수명	마츠하시 사치요
교과목	미디어일본어			
추천 이유	원활한 상호작용/개방적인 수업/학생중심 수업/다양한 수업자료/다양한 교수법/ 유용한 지식전달/깨달음을 주는 수업/이해하기 쉬운 설명/정해진 틀이 없는 수업			
한줄 평	미디어 일본어 수업은 존 키팅의 수업 이다.			

‘미디어 일본어’ 수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미디어 일본어라는 수업은 여러가지 미디어 매체를 한국과 비교하며 일본의 미디어 매체를 알아가는 수업이다. 이 수업은 일본에 관심이 있고,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다면 들어볼 가치가 충분한 수업이라고 자신있게 추천한다.

일상생활에서 신문이나 TV뉴스에서 일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이 정치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예능에 관련된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의 예능프로그램이나 무대를 그냥 보면 한국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많은 차이점이 있다. 신문 기사를 보더라도 세로쓰기로 되어있으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한다. 광고를 할 때에도 한국과 똑같은 제품이지만 한국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던 특징을 더욱더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과 일본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배울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마케팅부분에서도 적어도 일본만큼은 자세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업을 추천한다.

추천 교과목을 한 줄로 평가하자면 이 수업은 존 키팅의 수업이다. 라고 말하고 싶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 존 키팅이라는 선생님이 나오는데 이 수업이 그 선생님의 수업과 닮은 점이 많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 수업은 다른 수업과는 다른 특별한 특징이 있다. 바로, 교재가 없다는 점이다. 교재가 없기 때문에 정해진 틀에서만 어떤 내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러한 것을 배웠는데 이러한 부분이 좀 더 궁금하다. 이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것에 대해서 더 살을 붙여가며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교재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도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 시간에 진행할 주제에 대해서 알려주신다. 그리고 다음 수업시간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그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끔 미리 만들어진 단톡방에 동영상이나 관련된 사이트 링크를 올려 주신다. 단톡방에는 그 날 수업한 내용 중에서 어려운 내용이나 문법, 단어가 있었다면 교수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여 파일로 올려 주시거나, 이해하기 쉬운 내용의 동영상 링크를 올려 주셔서 그 날 수업에서 놓친 내용을 수업이 끝난 후에도 복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날 배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수업은 전공 수업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일본어 실력이 좋지 않더라도 교양 수업처럼 가볍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물론, 대부분의 과제가 모두 일본어로 작성하거나 자료를 찾을 때도 일본어 능력을 많이 필요로 하긴 했지만, 수업을 들을 때에는 편하게 즐기면서 수업을 들었다. 그래서 수업시간은 3시간이라는 긴 시간이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시간은 3시간의 반인 1시간 30분정도로 느껴졌다.

수업을 듣다 보면,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 때가 있다. 그 때, 나는 거의 일본어로 대답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지만, 가끔가다 생각이 나지 않는 단어나 어려운 단어가 나온다면, 한국어를 섞어가며, 발표를 할 때도 있었다. 교수님께서도 일본 분이시지만 한국어를 매우 잘 하시기 때문에 발표할 때 무조건 일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들지 않아서 이 점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말하고 싶다.

과제는 일본어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많다고 앞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과제를 제출할 때에는 일본어로 작성하고 일본어로 작성한 것이 100%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어로도 같이 작성해서 제출한다. 한국어로 제출하는 이유는 제출한 과제물을 교수님이 확인하실 때에 이 학생이 어떠한 의도로 이 단어나 문법을 선택하였을 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피드백을 주실 때 더욱더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과제를 제출하면, 바로 다음 날 피드백을 받는다. 대부분 다음 날 교수님께서 피드백해주신 파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출했던 과제의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은 채로 피드백을 받아 어떤 부분에서 단어나 문법이 잘못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서 효과적으로 일본어를 공부할 수 있었다.

이 수업은 들으면 들을 수록 다른 수업을 들었을 때와는 다르게 더욱더 자신의 학습역량이 향상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첫 번째 시간에 진행했던 수업내용을 소개하며 학습역량이 향상된 점을 설명하겠다.

첫 번째 시간에는 '나카하라 츄야'라는 일본의 시인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나카하라 츄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100분 정도의 길이로 정리되어 있는 동영상과 보고 오는 것이 첫 번째 수업 시작전의 과제였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그 동영상으로 배경지식을 얻은 다음,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교수

님께서 과제로 미리 보고 온 동영상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한 퀴즈를 만들어서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고 수업을 시작하셨다. 수업시간에는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ppt자료를 보며, '나카하라 츠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셨다. '나카하라 츠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는 이 시인의 작품을 살펴본 후에는 학생 개개인에게 한국의 시와 일본의 시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 작품의 특징에 대해서 차례대로 질문을 하셨다. 이 때 학생들은 일본어로 발표를 하거나 한국어로 발표를 하였다. 나는 전공 수업이므로 전부 일본어로 발표하려고 노력했다. 학생 개개인의 생각을 들어본 후에 교수님의 생각을 덧붙여서 추가 설명을 해주셨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이 작품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첫 번째 시간의 과제는 '나카하라 츠야' 시인의 작품인 『サーカス』를 낭독하여 녹음한 다음, 녹음한 파일에 배경음악을 넣거나, 이 작품에 관련된 장면을 ppt로 만들어서 낭독한 파일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다.

이 과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작품의 시를 정확한 발음으로 낭독하기 위해 여러 번의 연습이 필요하였고 인터넷에서 일본인이 '나카하라츠히야'의 시를 낭독한 것도 찾아보며, 읽는 방법과 읽는 속도, 발음 등을 똑같이 따라하려고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이 시인에게 관심이 생겨 다른 작품도 찾아봤을 정도로 단순히 낭독한 것을 녹음하여 파일을 만드는 과제이지만, 한국의 시뿐만 아니라 일본의 시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일본의 문학작품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내용도 알게 되었다.

불과 첫 번째 시간이었지만, 나의 학습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학습 성과만 정리해보자면,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을 보았는데, 이 동영상은 한국어 자막이 없기 때문에 전부 일본어로 설명하고 있었고, 수업시간에 퀴즈를 풀기 위해서는 동영상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했기 때문에 100분정도 집중하여 내용을 파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외국어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느꼈다. 그리고 수업시간에 퀴즈를 풀 때에는 교수님께서 질문하시면 일본어로 대답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외국어 능력이 향상될 수 있었다. 수업중간에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에는 다른 학생의 발표를 주의 깊게 들었으며, 발표 내용에 공감하며 대인감수성을 키웠으며,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 때에는 다른 학우들과 교수님께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었다. 물론 이과정에서도 일본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도 향상되었다. 과제를 하는 시간에는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야했기 때문에 정확하고 올바른 내용의 자료를 수집하고 선별하여 정보활용능력이 향상되었다. 그리고 '나카하라 츠야'의 작품을 살펴볼 때에는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고분석하여 살펴보았기 때문에 분석적 사고능력이 향상되었다.

첫 번째 시간에 단지 3시간만에 이런 많은 학습역량이 향상되었으므로 내가 받았던 14번의 수업에서 향상된 학습역량은 더욱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수업을 선택해서 듣는다면, 한 학기가 끝났을 때 자신의 모습과 처음 수업을 들었을 때의 모습을 비교해보는다면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겼을 것이다. 단지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만으로도 많은 학습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이지만, 수업 시간 외에 과제를 할 때나 혼자 공부할 때에도 더욱더 노력한다면 학습역량은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수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여 보람찬 한 학기를 보내기를 바란다.



[장려상]

회계, 누구나 가능하다

박민희 / 행정학

구분	전공 ■	교양 □	교수명	왕현선
교과목	회계원론			
추천 이유	유용한 지식전달			
한줄 평	회계원론 수업은 가능성이다.			

회계, 누구나 가능하다



회계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는 나오는 거리가 아주 먼, 관심 밖의 단어라 생각했다. 그러던 중 주식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기업의 재무제표와 회계에 대해 알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기본적인 재무제표와 회계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주식을 시작하는 것은 한글도 모르고 공부를 시작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였으며, 회계에 대해 알고 싶어졌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에도 회계수업이 있었고, 그 중 왕현선 교수님의 회계원론에 관심이 생겼다. 교수님의 꼼꼼하고도 상세한 강의계획서를 보고 꼭 교수님의 수업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교수님의 강의목표 중 '회계는 경제활동을 식별, 측정,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의 언어라고 한다. 주식이나 채권 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업의 언어인 회계를 모르면 안된다. 학생들이 회계원리를 공부하고 나면 회계정보를 전달하고 해석하며 이를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법을 이해할 수 있다.' 부분이 내가 회계를 배우고 싶은 이유와 일치하였고,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다. 교수님은 '사례와 함께 하는 회계원리'를 교재로 사용하시며, 여러 사례를 통해 더욱 쉽게 회계를 접할 수 있도록 수업을 이어나가셨다. 그 덕에 재무제표를 보는 법, 작성하는 법, 여러 회계처리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회계원론 수업은 마냥 어려워만 보이던 회계를 나도 배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나도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스스로 느끼게 해준 수업이라 생각한다. 이 수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언어인 회계에 대해서 모두 정확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회계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배워 보고 싶었지만, 어려울 것 같아서 도전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왕현선 교수님의 '회계원론'을 수강하여 사례를 통해 쉽게 회계를 접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수업은 COVID-19 사태에 알맞게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다. LMS 시스템 상에 올라온 강의를 기간 내에 수강하고 과제나, 토론, 퀴즈를 제출하면 한 주치의 출석이 인정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매번 실시간 줌 수업을 진행하면 아무래도 부담이 생기기 마련인데, 교수님은 평소에는 LMS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시고, 4주에 한 번씩 학생들이 수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한 것은 없는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실시간 줌 수업을 진행하셨다. 이러한 수업 방식에 아주 만족하였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LMS 질문란에 올려라고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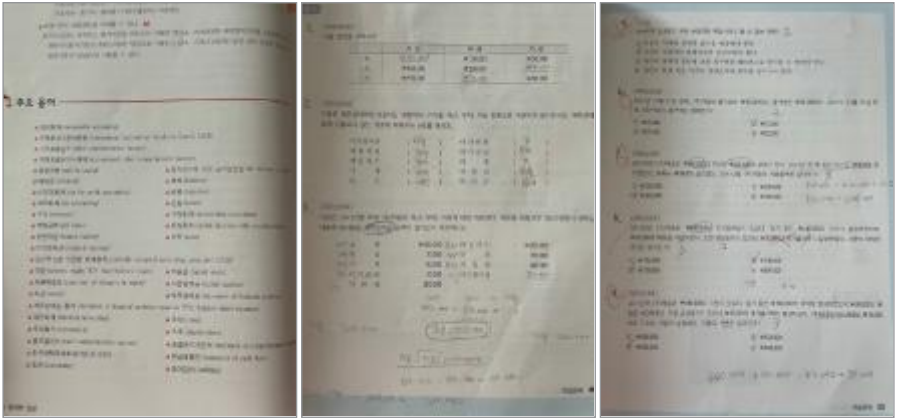
번호	토론제목/토론기간	참여여부	나의계시
22	사채발행가격의 결정 11주 3회차 인정시간 : 30분 토론기간 : 21/05/10 00:00 - 21/06/21 23:59	○	1건
21	이차비용과 사채발행차금 11주 2회차 인정시간 : 25분 토론기간 : 21/05/10 00:00 - 21/06/21 23:59	○	1건
20	유행자선의 재평가 10주 3회차 인정시간 : 20분 토론기간 : 21/05/03 00:00 - 21/06/21 23:59	○	1건
19	유행자선의 감가상각 10주 2회차 인정시간 : 20분 토론기간 : 21/05/03 00:00 - 21/06/21 23:59	○	1건
18	원가흐름의 가경 9주 3회차 인정시간 : 15분 토론기간 : 21/04/26 00:00 - 21/06/21 23:59	○	1건
17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9주 2회차 인정시간 : 20분 토론기간 : 21/04/26 00:00 - 21/06/21 23:59	○	1건

[붙임 1 - 토론 형식의 과제]

NO	종류	시험명	용사	용사기간	재용시기간	용시일시
1	수시평가	자본금 14주차 2회차 용시 시간 : 23분	용시하기	2021.05.31 00:00 ~ 2021.06.21 23:59	-	-
2	수시평가	이익잉여금 14주차 3회차 용시 시간 : 27분	용시하기	2021.05.31 00:00 ~ 2021.06.21 23:59	-	-
3	수시평가	수시시험 13주차 3회차 용시 시간 : 20분	용시완료	2021.05.24 00:00 ~ 2021.06.21 23:59	-	2021.05.29 23:47:24 ~ 2021.05.29 23:52:55
4	수시평가	수시평가 13주차 2회차 용시 시간 : 25분	용시완료	2021.05.24 00:00 ~ 2021.06.21 23:59	-	2021.05.29 23:52:59 ~ 2021.05.29 23:53:11
5	수시평가	수시시험 12주차 2회차 용시 시간 : 20분	용시완료	2021.05.17 00:00 ~ 2021.06.21 23:59	-	2021.05.22 20:46:42 ~ 2021.05.22 20:47:53
6	수시평가	수시시험 12주차 1회차 용시 시간 : 20분	용시완료	2021.05.17 00:00 ~ 2021.06.21 23:59	-	2021.05.22 20:36:48 ~ 2021.05.22 20:46:34
7	수시평가	수시시험 12주차 3회차 용시 시간 : 25분	용시완료	2021.05.17 00:00 ~ 2021.06.21 23:59	-	2021.05.22 20:48:03 ~ 2021.05.22 20:48:54

[붙임 2 - 퀴즈 형식의 과제]

내해주셨기에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여쭙보는것에 있어서도 부담이 없었다. 단순히 수업만 듣고 끝나면 스스로 수업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늘 과제로 토론이나 퀴즈를 진행하시면서 간단한 문제를 풀어보며 수업 내용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셨다.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과제에 대한 많은 부담이 있어왔다. 하지만 교수님은 수업내용을 다시 상기해 볼 수 있는 선에서 간단한 과제들만 내주시면서 과제에 대한 부담도 줄여주셨다. 평가방식에 있어서도 시험은 세세한 기준을 세워 점수를 세부적으로 주셨고, 과제도 채점점수를 확인가능하도록 해주셔서 스스로 수업을 잘 해내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



[붙임 3 - 교재의 용어와 종합복습예제 문제]

회계원론 수업은 단순히 이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손으로 익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의 교재도 '사례와 함께하는 회계원리'인 만큼 강의 시간에 배운 개념들과 교재에 포함된 사례들을 함께 보며 완전한 나의 지식으로 만들 수 있었다. 교재에서 각 장을 마무리 할 때에 종합복습예제와 연습문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풀어보며 하나의 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많은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이를 모두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어를 보면 그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를 하기 위해 용어 개념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하였다. 그 덕에 회계원론 중간 시험에서는 평균보다 조금은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

회계원론 수업을 통해 자신이 없어 도전하지 못하고 관심만 가지고 있던 회계를 문제와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하며 배울 수 있었다. 회계원론 수업은 도전하지 못할 것만 같던 것에 스스로 용기를 내어 도전하고, 이를 이루어내는 나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인식하게 해준 은인과의 같은 수업이라 생각한다. 회계원론 수업을 통해 LOTUS 핵심역량 중 창의융합, 혁신추구적 부분에 있어 한층 더 성장하였다고 생각한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인재가 되기 위해 새로운 부분에 도전하여 이를 이루어내고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인재, 더 나은 나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탐구하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 나가는 금강형 인재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장려상]

일본어 성적 급상승의 비밀

신정인 / 글로벌융합학부

구분	전공 □	교양 ■	교수명	마츠하시 사치요
교과목	시사일본어 듣기			
추천 이유	원활한 상호작용/이해하기 쉬운 설명			
한줄 평	시사일본어 듣기 수업은 노력한만큼 성적이 나오는 것이다.			

일본어 성적 급상승의 비밀



1. 교과목 소개 및 추천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되어버려 ZOOM이라는 실시간 화상 회의를 통해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 50분까지 수업을 하는 일본어 수업 시사일본어 듣기는 기초 문법을 복습하면서 짧은 문장으로 나누면서 청해력을 확실히 익혀 가는 강의다. 텍스트에는 센텐스 마다 한국어 번역이 붙고 있어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다. 음성파일을 듣기전에 한국어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일본어를 들어본다. 반복해서 음성파일 듣는 연습을 통해 청해력을 향상시킨다. 처음에는 들리지 않은 단어들도 반복해서 듣는 연습을 하면 들리는 빈도가 증가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텍스트에는 삽화가 많고, 시각적인 정보도 풍부하니 더 이해하기 쉬울듯하다. 장면 마다의 대화는 패턴이 있으므로, 듣는 연습을 통해 청해력 뿐만 아니라 대화력의 향상에도 연결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본 강의를 통하여 2021년 1학기 동안 성적이 많이 오르고 또한 평소보다 일본어 단어를 많이 접했고, 일본어를 듣고 말하는 것이 어느정도 한 단계 트였기 때문에 다른 학우분들에게도 이 과목을 추천해주고 싶다.

2. 수업 내용

시사일본어 듣기는 다른 수업들에 비해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교수님께 질문을 하여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고 수강인원이 적은 편은 아니지만 교수님 수업방식이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에게 최대한 관심을 써 주시는 것 같다. 그리고 교수님이 다른 수업들보다 학생들에게 유독 발표를 많이 시키셔서 항상 수업에 집중을 하고 있어야 한다. 수업 도중 잠시 한눈을 팔게 되면 자신의 차례가 오게될 때 당황하여 대답을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수업하는 내내 집중을 하고 있어야 한다. 시사일본어 듣기 수업은 무엇보다도 교수님과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많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수업을 하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학생들은 교수님께 바로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 교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수업이 끝난 후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여 질문을 하고 피드백(feedback)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인 이 시사일본어 듣기 수업 평가는 대개

시험 40%(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20%, 과제 20%, 기타 20%이다. 특히 마츠하시 교수님은 출석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특별한 이유없이 지각이나 결석을 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은 아마도 한 학기 점수가 높게 나오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매 수업 후 주차마다 과제를 내주시는데 이것또한 꾸준히 제출해야 높은 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수업 참여

나는 2018년도에 입학하여 1학기 동안 일본어 말하고 듣기를 수강하였다. 결과는 D0였다. 당연한 결과였다. 수강인원 중 꼴찌였기 때문이다. 일본어에서 기본중의 기본인 히라가나 조차 몰라서 일본어 수업내내 거의 대부분을 이해를 못해 한 학기동안 일본어 수강시간만 되면 괴로웠다. 그 시절 난 그저 시간만 보내려고 강의를 수강한 것 같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군대를 다녀온 뒤 2021년도에 다시 복학을 하여 수강신청기간에 신청을 하는데 시사일본어 듣기가 보였다. 순간 지난번 일본어 평가 결과가 D0였던 것이 생각이 나서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해보기 위해 망설임 없이 시사일본어 듣기를 신청하였다. 개강 후 무작정 전에 일본어 강의를 들었을 때 사용하였던 히라가나가 들어가 있는 일본어 교재를 구해서 일단 계속 히라가나를 말하면서 암기를 했다. 그래도 잘 안 외워지자 이번엔 노트에 쓰면서 외웠다. 확실히 여기까지 하니까 마침내 히라가나는 다 외웠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할지 몰라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다. 답변은 간단했다. 단어 암기였다. 나는 현재 시사일본어 교재에 있는 단어를 한 노트에다가 쪽 나열하여 작성한 후 계속 반복하면서 외웠다. 내 생각에는 일본어를 잘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반복적인 연습인 것 같다. 예를 들어 전자는 첫 날에 새로운 단어 30개를 외우고 둘째날에 새로운 단어 30개를 셋째날에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단어 30개를 외우는 것이면 후자는 첫날에 단어 30개를 외우고 둘째날에는 첫날 단어 30개에 새로운 단어 20개를 외우고 셋째날에는 첫날 단어 30개와 둘째날 단어 20개, 새로운 단어 10개를 외우는 것이다. 과연 전자와 후자중 어떤 방법으로 한 것이 더 많은 단어를 외웠을까? 많은 사람들은 단어의 양 때문에 전자를 선택하겠지만 나의 생각은 후자이다. 내가 후자를 선택한 이유는 이 방법대로 꾸준히 해서 잘 잊어먹지 않고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단어를 암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사일본어 듣기수업 후 교수님께서 과제를 내실 때 일본어를 한국어로 해석하는 과제를 많이 내주시는데 그때마다 나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일본어 실력이 부족하여 일본어 한 단어 한 단어마다 교재를 찾아보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든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끝까지 하여 기간 내에 제출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문법이 있다. 문법은 더 무식하게 공부하였다. 교재를 아무리 봐도 잘 이해가 가지않고 오히려 헛갈리기만 하였다. 그래서 나는 노트에다가 교재에 있는 문법 내용을 계속 적었다. 그러다보니 어느순간 교재를 보지 않고도 문법 내용을 노트에 쓸수가 있었다. 나는

이러한 방법들로 꾸준히 노력하다보니 2018년도 1학기때 일본어 수업을 듣는 학생 중 꼴찌였다가 이번 2021년도 1학기 중간고사때 9등을 하였다.

4. 성장

아직 기말고사를 보지 않아 종합적인 평가 학점은 어떻게 나오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전보다는 일본어가 많이 늘은 것을 내 스스로 느낀다. 나는 시사일본어 듣기 수업을 통하여 전보다 훨씬 변한 것을 체감하였다. 그 무엇보다 일단 외국어 능력이 한 단계 더 성숙해졌고 공부를 해 본적이 없어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를까? 그런 쓸데없는 고민도 무척이나 많이 하였는데 막상 해보니 공부는 한 만큼 오르는 것 같다. 전 보다 성적도 올라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 자존감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강의들도 시사일본어 듣기처럼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며 이 글을 읽는 다른 분들도 공부에 대한 생각만 하지 않고 마음을 먹었다면 지금 당장 책상 앞에 앉아서 생각을 하였던 공부를 실천하면 나중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 생각된다.



[장려상]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법

주승현 / 행정학

구분	전공 □ 교양 ■	교수명	포리(Fourie)
교과목	대학영어1		
추천 이유	원활한 상호작용/개방적인 수업/학생중심 수업/ 다양한 교수법/이해하기 쉬운 설명		
한줄 평	대학영어1 수업은 영어를 완성하는 확실한 길이다.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법



1. 수업 소개 및 추천 이유

제가 소개할 수업은 대학영어1입니다.

이 수업은 포리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며 기본적인 영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전반적으로 영어 능력을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업이다. 이 수업을 추천하는 첫 번째 이유는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어 영어 실력이 부족하거나 문제집만 풀던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수업이 영어로 진행됨에도 교수님께서 쉬운 단어선택과 정확한 악센트, 느린 발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누구든지 수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시며, 수업 참여의 기회를 골고루 배분해,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에게도 배움의 기회를 보장해 주시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수업 내용의 특성상 학생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학우들 앞에서 표현하고 공유하며 의견을 말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생각한다. 이에 대하여 후술하게 될 수업 내용에 자세히 설명하겠다.

2. 수업 내용 (수업 특징 및 장점, 교수님의 상호작용/동기유발/평가/교수법 등)

수업시간은 두시간이며, 이 수업시간은 충분히 길지 못하기에 과제에 많은 부분 의존을 하고있다. 하지만 이는 수업 내용의 부실을 뜻하지 않고, 연습과 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를 확실하게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 수업만의 특성은 “듀오링고를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 줌 소회의실을 통한 학생들의 토론, 다른 학생들 앞에서 발표의 시간 가지기,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을 녹음하기, 완전 영어수업, 전용 사이트를 통한 자료공유, 여러 자료와 lms를 통한 문법수업, 단어시험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이 특성들에 대해 하나씩 서술해 보도록 하겠다.

듀오링고를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

이 수업에서는 듀오링고라는 앱과 연동한 과제를 내어 영어 수업을 진행한다. 이 듀오링고란 케임브리지 대학교 루이지 폰 안과 그 제자 세버린 해커가 만든 외국어 학습 어플리케이션이다. 이 듀오링고의 특징은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이 있으면 영어 학습이 가능하며, 원하는 주제의 단어, 혹은

문법, 다양한 스토리 등의 콘텐츠를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으며, 말하기 듣기 받아쓰기 작문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이 구성되어 있으며, 영어를 레벨별로 점차 높아지는 난이도를 통해 수준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다. 또한, 리더보드를 통해 세계의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거나 내 성취도를 공유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영어를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다. 언어 학습에 있어서 해당 언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며, 하루 10분씩 매일 영어를 접함으로써, 영어에 대한 감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게다가 듀오링고는 내가 문법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게임형식으로 흥미도 유발해 주니 영어 학습에 있어서 아주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줌 소회의실을 이용한 토론활동

이 수업에서는 줌의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그룹을 이루어 서로 영어를 활용해 의견을 나누고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후 이 내용을 발표한다. 이는 학생들의 회화능력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생들은 서로 대화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 근거를 표현할 수 있게 되고 논리적인 표현이 가능해지며, 부족한 어휘를 보충하는 것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발전을 위한 동기 부여도 된다. 코로나로 대면수업이 제한된 상황에서 줌의 이런 기능을 활용하여 부족한 영어회화를 보충하고 금강대 학우들과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하는 것은 굉장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다른 학생들 앞에서 발표의 시간 가지기

이 수업에서는 짧은 작문을 하여 이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모두가 발표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 못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 모든걸 영어로 진행하기 때문에, 영어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영어를 어려운 문장도 잘 읽을수 있으나 실제로 영어로 말하러 하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사람들을 위한 영어 회화 클래스도 있을 정도로 영어 회화는 만만치 않다. 사람들 앞에서 영어로 회화할 수 있고, 원어민 교수님께서 어색하거나 실제 쓰지않는 표현들을 그 자리에서 지도해 주시니 영어 실력이 오르고 싶지 않아도 오를 수밖에 없다.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을 녹음하기

Conversation Questions(대화를 위한 질문들)을 이용해 영어로 5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나의 대답을 녹음하고 스스로 들어보는 시간을 가진다. 그저 발화만 하는 것 보다는 자신의 발음을 녹음해 직

접 들어보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가질수 있어 굉장히 유의미한 활동이다. 사투리를 주로 쓰는 사람의 억양에 사투리 억양이 묻어있으나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평소 자신의 발음이 얼마나 어색한지 자신은 알기 쉽지 않다. 하지만 이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발음을 들어보게 되면, 자신의 부족한 점이나 어색한 점을 확인할수 있고, 이를 반복적으로 녹음하면서 점차 자신의 발음이 개선되는 것을 느낄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어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단어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구문에 대한 이해도와 적용력이 부족해 말을 더듬게 되는 것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완전 영어수업

이 수업은 완전영어수업으로 진행된다. 교수님은 한국어를 일절 사용하지 않으며, 최대한 쉬운 단어와 느린 발화를 통해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 수업에서는 오직 영어만 사용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몰입도를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 있다. 필자 또한 부족한 영어실력을 핑계로 한국어를 자주 활용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 수업에서는 오직 영어만을 활용하기 때문에 영어 단어를 문맥적으로 이해하거나, 영어사전을 활용하게되고, 이는 영어 어휘를 굉장히 늘려주었다. 또한 영어를 알아듣기 위해 항상 집중해서 수업을 듣게 되니 수업의 학습효율 또한 크게 향상되는 것을 느꼈습다. 이 수업에 한국어가 활용되지 않기에 부족한 영어실력 때문에 수업에 따라가지 못할까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할 필요 없다. 교수님께서 학생들 알아듣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같은 내용을 두 번, 세 번 설명해주시며, 다른 학생에게 한국어로 물어보거나 해석을 부탁하는 것을 장려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영어를 굉장히 못하더라도 충분히 수업을 따라가고 좋은 성적을 얻을수 있을 것이다.

전용 사이트를 통한 자료공유

수업을 위해 교수님께서 매년 구글을 이용해 사이트를 만드신다. 이 사이트를 통해 숙제와 수업에 필요하거나 활용된 자료들을 구할 수 있으며, 전 시간에 배웠던 문법을 복습하거나 예습을 할 수 있다. 이 사이트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에, 자주 활용을 하게 된다. lms에 올라오는 문법 관련 동영상은 여기에서 복습할 수 있다.

여러 자료와 lms를 이용한 수업

문법은 영어를 학습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가 이 수업을 듣게 된다면, 굉장히

쉽게 문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기존 학원이나 학교에서는 공식을 암기하는 방법을 활용해 문법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to부정사를 배울 때 to부정사는 to+동사원형이며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다” 이런식으로 암기를 한 뒤 문제에 적용해 보는 식이다. 하지만 이 수업에서는 to부정사가 사용되는 상황이나 방식을 동영상상을 통해 학습하고, 작문을 해보거나 빈칸채우기에 사용해 보며, 사용법을 익히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기억에 상대적으로 더 오래 남는다.

단어시험

단어는 영어를 배우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단어를 모른다면 해석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교수님께서도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매주 단어시험을 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다음 단원을 학습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인 단어들을 미리 예습하게 되고, 수업에 뒤처지는 학생이 없다.

3. 수업 참여 - 수업 참여에 있어 필수적인 노력과 및 학습 노하우

이 수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기울여야할 노력은 여러가지 있다

첫 번째로, 교과서 예습과제를 확실하게 끝마쳐야 한다.

이 수업은 짧은 수업시간이란 제약이 있으므로, 미리 과제를 통한 예습을 해와야 충분한 진도를 나가고,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개인 학습에 있어서도 숙제를 해오지 않는다면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 것이다.

두 번째로, 듀오링고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듀오링고를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가 부족한 문법 및 어휘를 습득할 수 있다. 쉬는시간 혹은 친구들과 식사 후 쉬는 시간, 또는 자기 전 등 남는 시간을 영어 학습에 적극 활용할 경우, 영어 실력에 있어 큰 성취를 얻을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녹음과제를 수행할 때 그저 한번 녹음하고 끝내지 말고, 다시 들어보며 문법상 어색한

곳은 없는지, 발음이 이상하지는 않는지, 악센트가 정확한지 확인해 올바르게 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 녹음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부족한 발음과 어휘를 늘릴 수 있고,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본인의 악센트를 교정할 수 있다. 특히 발음과 악센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원어민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네 번째, 수업 발표에 적극 옹하기

수업 도중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문장을 읽거나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하신다. 이는 태도점수에 포함된다. 수업시간 발표에 적극적으로 응해야만, 본인의 어휘 활용이 정확한지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영어를 사용해 발화하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야 만족할 만한 언어적 성취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단어 외우기 및 문법 학습하기

매주 보는 단어시험만이 아니라 수업 도중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뜻을 찾아보고 이를 학습하려 노력해야 한다. 단어는 영어 학습에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이며, 모르는 단어를 그냥 넘어갈 경우 해당 어휘를 다시 만나게 될 때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는 문법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문법을 정확하게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며, 수업진행과정에서 배우는 문법은 확실히 학습해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수님께서 사이트에 해당 문법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과 수업에 필요한 단어들을 정리해 올려놓으셨으니 수업 전후에 이 사이트를 활용해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기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기에 교수님의 지시사항이나, 설명을 알아듣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주저하지 말고, 다시 설명해 주기를 요구한다면 거리낌없이 설명해 주시며, 이에도 이해할 수 없다면 다른 학생들이 한국어로 설명해 준다. 이는 교수님께서도 권장하신 사항이며, 부담없이 질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4. 성장 - 학습 성과 / 수업을 통한 나의 변화

이 수업은 영어 수업이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에 있어서의 성장이 가장 컸다. 평생 입시영어만 해왔기 때문에 영어를 내 입으로 말해본 적이 없었고, 나의 생각을 글로 적어볼 일도 없었다. 그렇기에 이 수업을 처음듣고 많이 당황하였으며, 내 영어능력에 회의감을 많이 느꼈다. 문제를 풀때는 당연히 적용하던 문법적 지식이나 구문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으며, 단어 또한 생각나지 않았다. 또한 영어단어의 스펠링은 알아도 어떻게 읽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단어도 많았다. 이 수업을 들으며, 그런 단점들을 깨닫게 되었고 그에 대한 개선의 여지를 느꼈으며, 현재 수업 초기에 비해 많은 성취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 이전에 비해 영어 발화에 굼김이 줄었으며, 어휘선택이 좀 더 자유로워졌다.

의사소통능력과 정보활용능력 에서도 발전이 있었다. 소회의실에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가져왔으며, 인터넷에서 정보를 조사해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정보활용능력에서의 발전을 가져왔다. 영어를 잘 못하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 힘든 사람 혹은, 영어 회화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사람은 이 수업을 꼭 들었으면 좋겠다.



[장려상]

국제정치학 강의를 듣다

하희철 / 공공정책학부

구분	전공 □	교양 ■	교수명	최위정
교과목	국제사회의 변화와 이해			
추천 이유	원활한 상호작용/학생중심 수업/ 유용한 지식전달/깨달음을 주는 수업/이해하기 쉬운 설명			
한줄 평	국제정치학 수업은 녹화본 수업의 혁신이다.			

국제정치학 강의를 듣는다



인터넷 강의와의 인연은 길기다. 수십 년 전, 초등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름도 잘 기억 나지 않는다. 컴퓨터 시간에 어린 학생들을 특수 교실에 가둬놓고 강의를 듣게 만들었다. 사이버 가정학습.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가정에서조차 따분한 수업 내용을 듣도록 강조했다. 심지어 이름은 '가정'학습인데 대부분 학교에서 듣게 했다. 어찌나 지루한지 학생들은 선생님이 보고 있지 않으면 평소에 거들떠 보지도 않는 야후 꾸러기, 주니어 네이버 같은 곳에 들어갔다. 지뢰 찾기를 그때 처음 알았다. 줄러서 옆에 있는 학생 모니터를 보면 웬 동물원을 만들고 있다.

중학교 올라가서야 무의미한 사이버 가정학습이 끝났다. 하지만 이상한 게 추가됐다. 하브루타. 학생 주도 학습이라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는다. 학생들이 직접 활동을 하며 배운다는 것이다. 웃긴 건 집에서 수업에서 활동할 내용을 강의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강의는 선생님이 직접 녹화한 것이다. 학교에서 들을 거 집에서 직접 듣고 와야 한다.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녹화한 강의는 일반 수업 내용과 다를 바 없다. 현장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루하다. 그 지루한 것을 집에서 자의로 들어야 한다. 숙제도 하기 싫어서 쉬는 시간 10분 동안 몰아서 하는 학생들인데 1시간 분량 강의를 집에서 들을까? 당연히 안 듣는다. 학교 수업 활동은 진행되지 않는다. 선생님은 다시 설명한다. 집에서 듣는 인강이란 이렇다. 선생님 앞에서 직접 듣는 것보다 당연히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선생님들조차 사이버 교직 이수 강연을 싫어한다. 수업 자습 시간에 국어 선생님께서 노트북을 보고 계셨다. 뭐하시나 가서 봤더니 유튜브를 보고 계셨다. 나도 함께 봤다. 수업 종이 올렸다. 선생님께선 유튜브를 끄셨다. 그러더니 나타나는 강의 영상. 그렇다. 선생님들조차 영상만 틀어놓고 딴 짓을 하신다. 학생들이면 오죽하겠느냐 말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코로나가 터졌다. 화상 수업이 주를 이루기 시작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수 개월 간 강의실 냄새 한 번 맡아보지 못했다. 비대면 수업의 시작이었다. 실감은 적다. 대부분 녹화 강의다. 앉아서 듣는다. 초등학교 때가 느낌이었다. 온몸이 근질근질하다. 그때처럼 동물원을 만들어서 기린이랑 사람을 가두어 둘 순 없었다. 노트를 펴고 필기를 시작했다. 이

항분포에 대해 적던 나는 그날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방학 숙제로 나올 때 30일간 맑은 날을 유지했다고 주장하는 5줄짜리 일기를 개학 전날 다 쓰고 그랬다. 그정도로 일기를 싫어했다. 강의는 놀랍다. 그런 내게 일기의 참재미를 일깨워줬기 때문이다.

국제정치학 녹화본 강의를 처음 접했을 때도 비슷한 심정이었다. 벌써부터 오늘 하루 일과의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을 생각해두고 있었다. 아직 저녁도 안 먹었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그날 내가 일기를 쓰는 일은 없었다. 전개에서 생각해두었던 결말 부분 복선도 까맣게 망각해버렸다. 강의가 재미있었기 때문이다. 적잖은 충격이었다. 대학 교수님은 강사님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교수님은 연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강의의 재미는 필수적이지 않다. 대학은 스스로 배워나아가야 하는 곳이다. 실제로 최위정 교수님께서도 강의 내내 대학이란 곳은 스스로 배워야 하는 곳이라고 강조하셨다. 강의가 재미없어도 학생 네가 고생해야 한단 뜻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 실제로 그렇다. 이 강의는 달랐다. 유튜브 영상도 10분 넘어가면 클릭조차 하지 않는 내가 배속과 10초 넘기기 없이 강의를 다 들었다. 실로 놀라웠다. 심지어 열심히 받아적기까지 했으며 샤워할 때 강의 내용을 흥얼거리기도 했다. 이 놀랍고도 신비로운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 그래서 썼다. 에세이를

교수님만의 특징이라면 목소리의 중허함이 있다. 해리포터 스네이크 교수를 연상하는 의견을 겸비하셨는데 목소리는 냉혹한 윈스턴 목소리이다. 진한 에소프레소에 참치 냉동고에서 얼린 마시멜로 한 개 반을 넣은 느낌이었다. 달팽이관에 착착 감기는 무게를 지녔지만 거칠게 괴롭히지 않는다. 부드럽게 먹살을 2초 정도 잡고 푸는 감각이었다. 얘기하실 때도 강약을 활용하시어 중요한 순간에 강하게 들어오시고 이야기를 이어나가실 땐 매희롭다.

이야기의 구성에도 짜임새가 있다. 처음 시작할 땐 대부분 개념 설명이나 배경 소개부터 시작한다. 이 부분이 보통 지루하다. 최위정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강의는 그렇지 않다. 개념 설명을 비유 없이 논리와 정의만으로 이어나가신다. 비유가 없으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으레 생각하지만 아니다. 비유는 이해했다는 착각을 심어줄 수 있어 위험하다. 비유 없이 대상을 설명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성공했을 때의 효과가 상당하다. 연상 기억 없이 바로 그 개념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난이도 개념 설명을 최위정 교수님께선 효과적으로 소화해내신다. 배경 설명도 마찬가지로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해내신다. 배경을 얘기하다보면 내용을 정리하지 않아 이것저것 불필요한 것까지 말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나를 소개하면 그것의 원인 혹은 뒷배경을 또 알려주어야 하기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설명이 늘어지는 것이다. 교수님께선 그렇지 않다. 핵심을 잘 잡으셔서 내용이 길어지지도 않고 중요한 것을 빠트려 이해를 방해하지도 않으신다.

교수님의 수업이 지루하지 않은 것은 수업 내용에만 있지 않다. 교수님의 확실한 가치관에도 있다. 가끔씩 학생들이 건의했던 내용, 대학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 등을 얘기하시는데 특이하다. 보통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학생들이 지루해하기 시작하면 관련 썰이나 일화를 푼다. 수업과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수업과 상관없는 내용을 해서 유쾌하지만 수업에 집중하기에는 어려운 분위기를 만드는 분들도 있다. 최위정 교수님께서선 일화를 일화처럼 푸시지 않는다. 그때의 일화를 교수님의 가치관에 연결시키신다. 가령 수업 과제 제출 기한을 일주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인 지침을 설명하시면서 내용보다 형식이 앞서선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다. 이점이 재밌으시다. 이 형식이 첫 번째가 되어서 안 된단 가치관은 이후 수업에도 계속 모습을 드러낸다. 어벤져스에서 닉퓨리가 계속 나오는 즐거움과 흡사하다. 수업에서 학생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교수님의 가치관 또한 수업을 집중하게 만드는 여러 요인 중 하나다. 왜냐 호감이 가기 때문이다. 아무리 수업이 재밌어도 개인적으로 원한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수업은 집중하기 까다롭다. 보기 싫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수님께서선 앞서 언급한 여러 요인들과 함께 학생을 우선 생각하시는 가치관이 듣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 물론 금강대학교 모든 교수님께서서 이러한 요인을 가지고 계시긴 한다면 최위정 교수님께서선 다른 매력으로 다가오신다. 같은 초콜릿이라도 쿠앤크에 있는 초콜릿과 민트초코에 있는 초콜릿이 다르게 다가오듯 이 또한 비슷하다.

교수님이 수업은 가히 놀랍기 때문에 내 손을 바빠 움직이게 만든다. 교수님의 말씀에 나오는 단어 선택이 꽤나 흥미로워서 타이핑하는 재미가 있다. 처음엔 노트에 교수님 말씀을 하나하나 직접 필기하며 수업을 들었다. 집중력이 배가 됐다. 하지만 필기한 내용을 다시 한글에 옮겨 타이핑하는 것이 번거로웠다. 그래서 노트 필기를 생략하고 처음부터 타이핑을 했다. 효과는 놀라웠다. 연필보다 빨랐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을 바로바로 적을 수 있었고 수정과 삽입도 간편해서 교수님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을 중간중간 넣기 쉬웠다. 이렇게 적은 내용을 하루에서 이틀 후 다시 꺼내어 읽는 것이다. 읽고 다른 문서를 커서 다시 적는다. 이렇게 하면 기억에도 오래 남는데다가 다시 적으며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일석이조의 효과다. 학습법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니터 앞에서 그대로 따라 말하는 것이다. 타인이 하는 말을 듣기만 하는 것과 그 말을 본인 입으로 소리 내보는 것에는 꽤 큰 차이가 있다. 직접 해보면서 느꼈다.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변형을 주어 말하는 것도 학습에 큰 효과가 있다. 변형을 준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하는 부분을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용을 머리 속에 넣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정리도 된다. 이렇게 교수님 수업에서 했던 학습 방법을 다른 강의에도 적용하여 들었다. 대학 수업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올라오는 각종 자기계발 영상에도 활용할 수 있어 좋은 학습법이라고 생각한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교수님 수업은 재밌다. 그 재밌는 수업을 제대로 듣기 위해 듣고 적고 말하는 오감 학습법을 활용했다. 효과는 굉장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에세이를 읽는 이라면 누구든 어제 요금을 낸 넷플릭스를 끄고 국제사회의 이해와 변화 lms를 킬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교수님의 강의 효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지식 전달 욕구를 얻게 된다. 힘들게 일하고 퇴근하신 어머니께서 드라마를 보고 계실 때면 작은 TV 화면 앞에서 국제정치학을 설파하게 된다. 100년밖에 안 된 신생학문! 전쟁을 막기 위해 태어나다! 여기서 한 번 숨을 고르고 청중과 눈을 마주친다. 그리고 청중 너머를 바라보며 먼가 거룩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세계대전 앞에 숫자가 붙어 있듯이! 국제정치학은 첫 번째 이론은 실패하고 만다. 그 실패한 이론은 바로 이상주의 이론! 여기서 이론을 설명할 때 여운을 주어야 한다. 개념 설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식 전달 욕구를 해결하고 나면 어머니의 피곤에 지친 눈빛은 초롱초롱하게 바뀐다. 당장 서점에 가서 국제정치학 이론서를 사고 싶어하시는 눈빛이다. 아니면 드디어 아들놈이 입을 달아서 좋아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 어찌 됐든 이 지식 전달 욕구는 나의 웅변 실력을 드높여줬으며 리더십을 길러주었다. 어떻게 이게 리더십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드라마를 보고 싶어하시는 어머니께 평생 듣도보도 못한 국제정치학을 설파한다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다. 이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것은 설득 능력을 얻었다는 것이고 이는 곧 리더의 덕목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이 노력은 친구들과 외식을 할 때 빛을 보인다. 보통 나의 강건한 눈빛과 경건한 목소리가 내 친구들로 하여금 닭갈비 무한 리필집으로 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또한 개성 넘친 헛바닥을 지니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꼭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계산은 각자 한다.



[참가상]

공직자실무영어

권순모 / 행정학

구분	전공 ■	교양 □	교수명	최창현
교과목	공직자실무영어1			
추천 이유	학생중심 수업/다양한 수업자료/유용한 지식전달/이해하기 쉬운 설명			
한줄 평	공직자실무영어 수업은 가장 실용적이고 필요한 수업이다.			

공직자실무영어



1. 교과목 소개 및 추천 이유

내가 추천하고자 하는 교과목은 행정학과 전공의 2학년 수업인 최창현 교수님의 공직자 실무영어 수업이다. 내가 이 수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있어 가장 실용적이기 때문이다. 내가 금강대학교 행정학과를 선택해서 온 이유는 졸업 후 공무원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당시 금강대학교는 소수정예를 표방하고 공무원 시험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우리학교의 행정학과로 진학한다면 다른 학교, 과를 졸업하고 뒤늦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보다 한걸음 빠르게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뿐만 아니라 행정학과를 전공으로 하는 학우들도 대부분 일반 사기업보다는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준비할 것이다. 5급이나 7급의 경우에는 영어시험이 토익으로 대체되었고 9급의 경우 아직까지 시험과목으로 남아있다. 특히 9급 공채시험의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는 공통과목으로서 조정점수로 반영되는 행정학, 행정법 등 선택과목에 비하여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영어가 매년 당락을 결정짓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이라는 기관이 물론 지식을 쌓고 탐구하는 곳이지만 학생의 입장에서는 취업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이나 공무원을 준비하는 행정학과 학생으로서는 학교 수업으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메리트가 있다. 우리 학생들은 학기 중에 토익이나 영어 공부를 하려면 독학을 하거나 인강을 듣거나 스튜디오모임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주로 방학기간을 활용해 학원을 다니며 토익이나 영어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런데 공직자실무영어 수업의 경우 토익 시험이나 공무원 영어 시험 문제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학기 중에 스스로 공부를 하다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학교 전공 수업으로 강의를 수강하다보니 의무감을 가지고 끝까지 수업 진도에 맞춰 공부를 할 수 있다. 또한 영어 과목은 암기과목과는 다르게 단기간에 성적이 상승하지 않고 꾸준히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공부하고 문제에 적용하여 풀어야 한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공직자 실무 영어 수업을 들으면 해결된다.

추가적으로 굳이 행정학과 학생으로서 공기업이나 공무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타 학과 학생들도 기본적으로 취업을 하거나 이력을 작성할 때 영어 능력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행

정학과 학생뿐만 아니라 타 학과 학생들에게도 이 공직자 실무 영어 수업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2. 수업 내용

공직자 실무 영어 수업은 최창현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신다. 최창현 교수님께서서는 영어 학원과 학교에서 10여 년 간 토익 및 공무원 영어를 강의하셨다.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품을 뺀 핵심 영문법을 가르쳐주시고 이를 통해서 토익 및 공무원 영어 시험 문제를 풀이를 해주신다. 매주 수업 자료를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다음주 강의 전에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스스로 공부할 수도 있다.

수업 평가의 경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중간 퀴즈형식의 문제가 있었다. 시험 역시 수업 스타일과 유사하게 토익 및 공무원 영어 시험 형식의 문제가 나온다. 수업을 꾸준히 들으면서 예습 및 복습을 하며 문제를 풀어왔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영어에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도 충분히 들을 수 있다. 만약 본인이 영어 공부에 욕심이 있지만 다른 학우들에 비해 기본기가 부족하고 성적이 자신 없다면 본인이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을 교수님께 제출한다면 평가에 있어 가산점을 주시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강의 초반에 교수님께서 수업 진행 방식 및 효율적인 예습방법에 관해 학생들의 의견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성향에 맞게 적당한 양과 방법에 관해 말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이번 학기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 중이다. 대다수의 수업의 경우 ZOOM을 통한 실시간 수업을 한다. 하지만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수업이 아닌 교수님의 녹화강의로 이루어져있어 시간적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3. 수업 참여

이 수업은 매주 문제 형식의 자료가 제공되어 나간다. 그리고 다음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문제에 대해 정답 및 풀이를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전에 문제를 본인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료에는 정답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문제를 분석하고 해석해보면서 공부를 한 후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주어진 단어 외에도 본인이 모르는 단어를 따로 표시한 후 정리하고 공부를 한다면 더욱 빠르게 영어 실력이 올라갈 것이다.

지금은 취업을 한 상태라 다른 실시간 수업의 경우 매번 참가하기 어려워 자료위주로 공부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 수업은 퇴근 이후에도 내가 시간을 내어 공부를 할 수 있었다. 특히 영어의 경우에는 수업이 끝나거나 토익에서 원하는 성적을 한 번 받는다가나 공무원 시험에 충분한 점수를 받는다고 쓸 일이 없는 것이 아니다. 꾸준히 공부를 해서 더 좋은 실력을 쌓고 좋은 점수를 만들어 놓는다면 두고두고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던 공부를 하면 좋다.

4. 성장

우선은 이 수업을 들으면서 한동안 손 놓고 있던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초반에는 분명 아는 것이지만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고 헛갈렸던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또렷하게 떠올랐다. 또한 맞는 문제가 점점 많아지면서 공부에 흥미가 생겼다. 반드시 목표점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수업에 맞춰 편안하게 따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부담감이 적고 교수님께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었다.

우리 학교에서는 LOTUS 핵심역량이라고 해서 글로벌 리더십, 지식탐구, 창의융합, 인성, 공감협업 이렇게 크게 5가지의 역량강화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공직자 실무 영어 수업을 통해서 여러 분야에서 나의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 가장 큰 부분은 역시 글로벌 리더십과 지식탐구 분야이다. 글로벌 리더십 중에서는 외국어 능력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강의 이름부터 실무 영어이듯이 외국어 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다음으로 지식탐구 분야에서는 정보활용 능력, 분석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영어라는 것이 단순히 암기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단어를 다 안다고 영어를 잘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문법을 다 안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문법을 다 아는 것은 아니고 모든 단어를 다 알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다. 비슷하게 창의융합 부분에서 문제해결 능력과도 연결되어 있다. 영어는 세계의 공용어라고 할 만큼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에게 쓰인다. 그만큼 영어로 된 많은 문학작품, 논문 등 다양한 글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 내가 알고 있는 단어, 문장, 글, 문제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새롭게 분석하고 적용하여 풀어야 한다.

단순히 공직자 실무 영어 수업과 성적, 눈앞의 결과만 본다면 외국어 능력, 문제 풀이 능력이 많이 발전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자기조절 및 관리 능력과 자기미래 설계에 대한 능력도 발전했다고 느꼈다. 그동안 학교 수업의 경우, 사실 평상시에 미루고 시험기간이 닥쳤을 때 버락치

기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영어의 경우 벼락치기가 어렵고 자신의 기본 능력을 올려 두어야 했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를 했다. 이런 식으로 정해진 양을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하다보면 나의 실력이 느는 것이 느껴지고, 여기서 자기만족이 생겨 다시 또 나아가는 발판이 되었다. 또한 단순히 이번 학기의 성적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공부를 하고 토익이나 토플 등 다른 영어 시험에도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공부를 할지, 언제쯤 어떤 공부를 할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계획을 세우는 능력도 기를 수 있었다.

최창현 교수님의 공직자 실무 영어는 토익이나 공무원 영어 능력을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공부 습관을 바꾸고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많은 행정학과 학우들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을 공부하는 학우들도 한 번 들어본다면 모두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가상]

실천의 중국어

김 신 / 불교학

구분	전공 □	교양 ■	교수명	최진이
교과목	중국어 읽고 쓰기			
추천 이유	원활한 상호작용/학생중심 수업/이해하기 쉬운 설명			
한줄 평	중국어 읽고 쓰기 수업은 나를 실천하게 한다.			

실천의 중국어



먼저 수업에 대해 소개하자면 <중국어 읽고 쓰기> 수업은 중국어 초급 과정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어 독해와 읽기 학습을 하는 수업으로 초급 과정에서 발음과 병음 훈련을 했다면 간단한 문장이나 문단을 읽고 독해해보는 작문/독해 수업이다. 중국어 기초를 배우긴 했지만 군대를 다녀오고 기초마저도 제대로 복습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시작해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지금 난 중국어 기초는 물론 본문에 있는 많은 글들과 문장을 해석 할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이 생겼다.

물론 나를 제외하고도 중국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도 여럿 있었다. 그 학생들은 병음조차 읽을 줄 모르는 상태에서 수업을 시작했는데 교수님께서는 그런 학생들을 혼자 학습하도록 흔히 말해 ‘방치’ 하지 않으셨다. 수업에 부족함을 느끼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병음 수업과 기초부터 시작하여 수업을 진행 하였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직접 녹음파일을 보내주시고 듣게 하여 수업 외에도 기초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도움을 직접적으로 주셨다. 비록 내가 그 도움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나 역시 기초지식이 부족해 수업에 따라가지 못했던 수업이 지금까지 조금씩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기초는 모르는 상태로 수업 진도는 수업진도대로 따라가려 발버둥치고, 기초는 기초대로 따로 찾아 공부했던 기억이 있다. 그럴 경우 기초가 없는 상태기에 내가 공부한 것과 수업내용에 있어 차이가 발생 할 수 있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수업외적으로 가르침을 주시니 수업내용과 괴리감이 들일도 없었고 모르는 부분에 있어 확실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그 학생들의 읽기, 작문 능력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나 향상되어서 매번 수업을 할 때마다 놀라곤 했다.

이러한 교수님의 체계적인 가르침은 대학교 수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항상 자신이 듣고 싶은 수업, 내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있는 수업을 들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때로는 필수적인 수업을 듣기위해 자신이 수업을 원활하게 따라가지 못함을 알더라도 수업을 수강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학생들의 교육역량을 파악하여 학생들을 위한 올바른 한 학기 커리큘럼이 만들어 지는 것이 대학교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배우고자 하는 의지와 교수님을 믿고 함께 공부하고 복습할 시간은 학생 자신이 만들고 노력해야 한다.

교수님께서서는 또한 다양한 시각적 자료와 학생들의 수업참여에 중점을 두셨다. 첫 번째로 줌(zoom)수업의 이점을 활용하여 수업내용과 관련된 직접 경험하고 느끼신 중국에서의 경험과 재미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수업에서 경극이나 여행지 같이 중국의 문화와 관련 된 내용을 학습하면 쉬는 시간이 끝날 때 마다 학생들이 직접 느끼고 경험해 볼 수 있도록 'YOUTUBE' 로 짧은 경극을 보여주시거나 수업내용에 나온 여행지의 모습이나 다양한 중국의 문화를 영상과 함께 설명해 주셨다. 이러한 방법은 책의 내용을 글로만 이해하는 것보다, 또는 문법과 작문만 연습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고 수업에 대한 흥미나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두 번째는 단어 시험이다. HSK 자격증 공부도 해보았고, 자격증도 따보았던 경험으로 중국어를 학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단어' 이다. 한자를 잘 몰랐던 나에게 중국어 단어는 '그림' 이었다. 외우기 정말 어려웠고 성조와 단어 한글 뜻까지 외워야 하므로 한 개의 단어는 영어단어 세 개 정도 외우는 것과 비슷했던 것 같다. 교수님께서서는 본문 진도를 나가고 수업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LMS 시험기능을 통해 격주로 그 날 배운 단어와 다음 단원에서 배울 단어를 미리 복습 / 예습 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 또한 학생이 시간을 들여 공부법에만 따른다면 오늘 수업내용을 복습하고 후회에 배울 수업의 내용을 예습할 수 있도록 학습설계가 되어있었다. 따라서 시험 공부를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기보다는 매 수업 때 들었던 내용, 학습내용이 항상 머리에 머물고 있었고, 벼락치기가 아닌 평소학습을 할 수 있어 다른 수업을 듣는 것에도 아무런 부담이 없었던 수업이었다. 세 번째로 읽기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 참여 읽기 인데 비대면 수업의 특성상 읽기 수업은 학생들 모두가 참여하기 어렵고 딜레이가 발생하기 쉽다. 하지만 교수님께서서는 첫 시간부터 학생들의 화면을 모두 켜주길 바라셨고 학생들 역시 모두 화면을 키고 적극적으로 교수님의 발음, 성조, 그리고 독해법을 배울 수 있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수업참여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역시 정말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네 번째는 작문참여이다. 세 번째에서 말했듯 학생들의 수업참여도는 최상이라고 봐도 무방했다. 읽고 독해하는 연습을 성공적으로 했다면 작문 연습은 텍스트 참여로 하였다. 줌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화이트보드같이 흰 화면을 띄워주시면 오늘 배웠던 내용, 문법을 이용하여 학생스스로 자유롭게 작문하여서 적었다. 나 역시 컴퓨터 자판으로 중국어를 작문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매번 중국어 수업에서 정해진 글과 책만 읽었었지 내 스스로 배운 단어로 일상작문을 하고 그것을 읽는 연습은 해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 수업을 통해 내가 원하는 문장을 자유롭게 지었고, 바로바로 교수님의 피드백을 통해 문법과 어법에 맞는 문장을 손쉽게 만들어 볼 수 있었다. 이렇게 함께 내가 원하는 문장을 작문 하고 또 읽어보았던 것은 아직까지도

문법 하나하나 성조 하나하나가 기억에 생생하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과 교수법으로 교수님께서서는 항상 학생과 함께하는 수업을 진행하셨다. 덕분에 수업 참여율도 거의 100%였고 처음 지도를 받았던 학생들도 다소 속도는 느리겠지만 이제는 중국어 한 단원의 본문쯤은 쉽게 해석하고 말해볼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교수법이 이렇게 다양하고 자신이 참여만 하면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의지와 함께 따라가겠다는 다짐이다. 나 역시도 매주 본문의 단어를 예습 / 복습 했고 그 날 배운 문법은 교수님이 알려주신 것과 같이 내 표현대로 자유롭게 작문해보며 공부했다. 하지만 그 양이 절대 많지 않았다. 나 역시 다른 수업 공부도 해야 했고 개인적인 공부도 해야 해서 중국어에 많은 시간을 할당 할 수는 없었다. 한주에 한 시간이면 복습을 하는 데에 있어 충분했다. 학생들 중 분명히 수업 초반부터 '나는 이 수업은 못 따라가니 포기해야겠다.' 라고 생각해본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교수법이 어찌고 학습법이 어찌고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모든 학습에 있어 가장 중요한건 '실천'과 그에 따른 성취감이다. 열심히 공부해봐야 소용없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발전 없이 똑같은 제자리걸음을 하기 마련이다. <중국어 읽고 쓰기> 수업을 넓게 본다면 아직 자신의 공부를 해본 적 없고 항상 수동적인 공부, 남들과 같이 시험을 위한 기계적인 외움과 학습을 해왔던 학생에게 자신의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도 모든 공부를 그렇게 해왔고 배움에 있어 항상 걱정을 많이 해왔기에 학생들이 그 걱정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는지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걱정'이 아니라 '실천'이다. 이 실천의 중국어 <중국어 읽고 쓰기>가 아니더라도 최진이 교수님의 수업을 학생들이 꼭 한 번 들어보고 내 스스로 하는 능동적인 공부가 무엇인지 함께 깨달아 보았으면 한다. 끝으로 하단에 이미지는 학생들과 교수님께서 함께 참여한 수업의 질문과 스스로 병음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과제를 내주시는 나의 육성 녹음 파일이다. 이 녹음파일을 녹음하면서 나의 성조와 중국어 발음을 충분히 고민해보고 즉각적인 피드백 받을 수 있었고 다른 사람 앞에서 중국어를 말하는 것에 자신감을 갖게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질문

他们怎么去爬山?

Tāmen **zěnmē** qu páshān?
어떻게

他们**骑自行车**去爬山。

爬山是**谁**出的主意?

Páshān shì **Shéi** chū de zhǔyì?
누가

是**山田**出的主意。

他们什么时候去爬山?

Tāmen **shénmēshíhòu** qù páshān?
언제

他们**这个周末**去爬山。

폴더	필터	검색	파일명	압축크기	원본크기	압축률	종류
...	ZIP	중국어.zip	녹음 (25).m4a	1,418,638	1,431,067	1%	M4A 파일
			녹음 (27).m4a	1,607,326	1,621,686	1%	M4A 파일



[참가상]

매주 과제가 기대되는 과목

김단후 / 경영학

구분	전공 □ 교양 ■	교수명	손세훈
교과목	인간관계와 심리학		
추천 이유	원활한 상호작용/개방적인 수업/학생중심 수업/ 다양한 교수법/유용한 지식전달/깨달음을 주는 수업/이해하기 쉬운 설명		
한줄 평	인간관계와 심리학 수업은 과제가 기다려지는 수업이다.		

매주 과제가 기대되는 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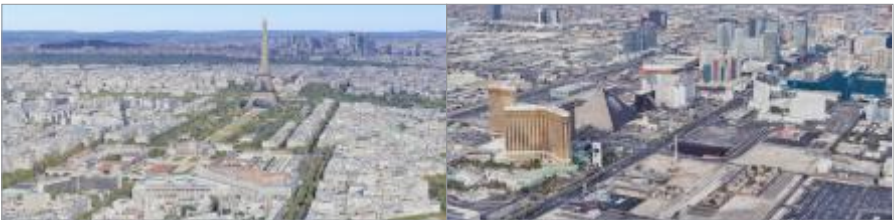
나는 2021년 1학기에 '인간관계와 심리학'이라는 교양수업을 들었다. 강의계획서에 나온 수업설명을 간단히 추려본다면, 이렇게 나와 있었다. '이론적인 내용은 가급적 줄이고 인간관계 중심으로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내용을 추려 다양한 심리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알아본다.' 강의설명을 읽어보니 내가 생각하던 교양수업의 방향이랑 같아 강의 개요, 목표를 자세히 읽어 보았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본인의 심리적 성향을 알아보고 소셜미디어나 다양한 온라인 활동과 글쓰기를 통해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기르고자 하고, 기본적인 심리학에 대한 이해과 지식을 높이고 실생활에서 대인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주별 강의계획을 보니 MBTI, 손금, 관상 등 흥미를 일으키는 다양한 주제가 있었다. 바로 해당과목을 신청하고 준비해야할 교재 등을 확인했지만 필수적으로 준비해야할 것은 없었다.

첫 주 오리엔테이션에서 재미있게 수업에 대해 설명해주시는 교수님과 앞으로 배울 흥미로운 수업주제를 듣고 이 수업은 반드시 수강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본격적으로 수업을 나가는 2주차에서 MBTI 과제가 올라왔다. MBTI 검사결과를 보고 이전에 검사를 해봤다면 바뀌었는지 혹은 검사결과에서 설명하는 내 성격에 대해 자신이 공감하는 부분을 적어보는 과제였다. 이렇게 재미있는 과제는 처음이었다. 보통 과제라고 하면 당연히 기한에 대한 부담과 과제자체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하기 싫어지고 계속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제는 온라인 강의를 모두 수강한 후 바로 실행했다. 2년 전 검사해본 MBTI결과가 지금과 다른지 궁금했고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금방 MBTI검사를 마치고 일전에 검사한 결과와 비교해 보고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니 이전과 성격이 많이 변한 내 모습을 보고 놀라기도 했고 검사결과에 공감도 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글로 옮겨 과제로 제출했다. 온라인 강의도 교수님께서 어렵지 않고 재밌게 설명해주셔서 재밌었는데 과제까지 재밌었다. 다음 강의가 기대됐다. 이후 과제로는 구글어스로 여행하고 싶은 장소 보여주기, MBTI 관련 추가 경험담이나 여행계획 작성하기, 니온 얼굴 인식 앱으로 본인과 닮은 연예인의 생애 살펴보기, 구글 아트 앤컬처로 자신과 닮은 초상화 찾기, 관상과 손금으로 자신의 성격 알아보기, 자기가 살고 싶은 집 찾아보기, 스트레스 해소법 적기, 나는 전생에 어떤 집에 살았을까 (심리테스트), 스넵으로 알아보는 성격테스트

에고그램 심리테스트, 자신과 닮은 대통령(지도자) 찾아보기 등이 있었다. 모두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모두 재미있는 과제들이었고 하면서 나를 되돌아보기도 하고 내가 몰랐던 나의 성격을 보다 잘 알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성격을 보며 다양함도 알 수 있었다.

과제는 교수님께 따로 제출하고 자유게시판에도 올려 다른 학생들이 제출한 내 과제를 열람할 수 있게 진행이 됐다. 처음에는 내 이야기를 게시판에 올리니 조금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다른 친구들이 먼저 올린 과제를 보며 나도 자신 있게 게시할 수 있게 되었다. 과제를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이 수업에서 특별했는데 인간관계와 심리학 수업인 만큼 다른 학생들의 다양한 성격을 보고, 그 성격이 각자 자기가 살고 싶은 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여행 계획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등 직접 볼 수 있어 다양함을 배울 수 있었다. 몇몇 친한 친구들과 MBTI 검사 결과나 살고 싶은 집, 여행계획 등을 공유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의 생각과 성격을 보니 더 많은 다양함을 볼 수 있었다. 우리 모두 살아온 경험이 다르고, 선천적인 또는 후천적인 영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누가 틀린 것이 아닌 다름을 인정할 수 있었다. 또 MBTI, 스펙성격 검사, 전생의 집으로 알아보는 성격검사 등 나의 성격을 검사해 직접 나의 성격을 듣고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니 앞으로 나의 단점이 보일 때는 더 신경 써 단점을 최소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양한 성격 검사를 하니 대체로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남들을 잘 받아들이는 성격이었는데 그래도 간혹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을 볼 때면 '저 사람은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던 내가 이제는 '나와 조금 다른가보네? 혹은 저 사람은 저게 더 좋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마주할 인간관계 문제에서 보다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수업에서 과제를 하며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앱을 접할 수 있었다. 구글어스를 활용해 여행가고 싶은 곳을 골랐고, 니온이라는 얼굴 인식앱을 체험했고, 구글 아트 앤 컬처로 저와 닮은 초상화를 볼 수 있었고, 내가 전생에 어떤 집에 살았는지 알아보는 심리테스트, 스펙으로 알아보는 성격테스트 등 다양한 체험을 했다. 아래 모습은 구글어스를 통해 다양한 세계장소를 찾아 본 것이다.



구글어스를 통해 다양한 세계장소를 찾아 본 것

중간고사는 중간고사까지 제출했던 과제를 정리해서 제출했다. 다른 시험에 비해 마음이 가벼워 너무 좋았다. 교양과목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전공과목시험 준비하기 너무 바빠 교양에는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과목 하나라도 이렇게 가볍게 중간고사를 끝낼 수 있으니 나머지 시험에도 도움이 됐다. 하지만 이 중간고사도 평소에 과제를 성실하게 해야 하므로 바쁘지 않은 시간에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이 에세이를 작성하는 지금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다. 기말고사 역시 중간고사와 비슷하게 지금까지 제출한 과제 정리와 자기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 과목을 거의 다 이수하고 나니 나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도 나는 나보다 남의 성격이나 기분을 먼저 생각했다고 생각하는데, 수강 후에는 단순히 남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내 상황을 보고 남의 상황도 보고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나에 대해 이전보다 정확히 알게 되어 남을 볼 때도 여유가 생겼다. 나에 대해 공부할 수 있고 동시에 다른 친구들이 자기 자신을 공부하는 과정도 볼 수 있었다. 사람을 대할 때 시야가 더 넓어진 것 같고, 인간관계에서 사소한 문제는 이전과 달리 크게 두렵지 않다. 지금까지 수강했던 교양과목 중 앞으로의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과목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해서 가장 원했던 수업 진행 방식과 유익함으로 앞으로 해당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추천할 것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오프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면 이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참여해보고 싶다.



왼쪽에서 순서대로 구글 아트 앤 컬처, 심리로 알아본 전생의 집, MBTI 검사이다.

이 과목을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과목들과 같이 어려운 이론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닌 경험을 통해서 어려운 부분은 쉽게 배우고, 나를 더 잘 알 수 있고, 앞으로 나에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지식들을 배우기 때문이다. 심리학에 관심이 없어도 인간관계에서 발전이 있을 것이고, 심리학에 흥미를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 과목을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참가상]

지금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김솔비 / 행정학

구분	전공 □	교양 ■	교수명	홍지인
교과목	미래교육 디자인			
추천 이유	깨달음을 주는 수업			
한줄 평	미래교육디자인 수업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꿈을 일깨워주는 수업이다.			

지금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1학년 때 재밌는 교양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 외부 교수님께서 강의해주시는 '미래교육 디자인'이라는 수업을 골랐다. '미래교육 디자인'이라는 수업 제목부터 내가 직접 교육을 디자인한다는 느낌이 들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수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강의 계획서에는 각종 토론과 ppt 발표를 통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자신의 생각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다른 어떤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는지를 배우는 수업이라고 나와 있었다. 원래부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던 터라 이 수업 역시 나에게 가장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하여 선택하였는데 수업을 듣는 내내 내가 탁월한 선택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업의 주제는 현재 우리 교육 및 현대 사회의 문제점들을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이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주제는 한국 교육의 문제점이었다. 수많은 문제점 중에서 우리 조가 중점적으로 두었던 문제는 바로 과도한 경쟁률이었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현재 우리 사회의 인식 때문에 우리들은 빠르면 초등학교 때부터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을 통해 대학 진학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하며 학교에서도 대학 진학을 위해 학생들에게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만을 강조할 뿐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적인 부분은 전혀 신경 써주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원래부터 체육 쪽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체육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좀 더 늘림으로써 학생들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모두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고안해 내었다. 뿐만 아니라 체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정말로 원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폭 넓게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우리 조는 체육활동 중진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평소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과제에 접목을 시키니 생각보다 적극적이고 즐겁게 과제에 임했던 것 같다.

이 과제를 하면서 나는 우리 조원들과의 크고 작은 의견 충돌을 겪었다. 한 조원은 주입식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다른 한 조원은 지나친 사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간단한 주제를 가지고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보고 내가 무조건

적으로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내가 미처 보지 못하고 놓치고 있었던 포인트들을 조원들이 잡아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좀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조별 과제를 하다 보니 나의 의견을 다른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과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방법을 배웠다. 처음에는 나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는데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나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나의 의견은 제시만 할 뿐이지 무조건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 오히려 의견을 말하는 게 편해졌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때는 정해진 정답만을 말해야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의견을 내세우면 어떡하지,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는데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은 다 다른 것이고 이런 정답이 없는 문제들은 오히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줄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더욱 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하나의 과제를 끝내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경험들을 했지만 이 과제의 다음 과제는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는 과제였다고 단언할 수 있다. 두 번째 과제는 바로 21년 후에 변해야만 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들을 발표하는 것이었다. 처음에 나는 21년 후에는 기술적인 면에서 발전하여 자율주행 자동차라던가, AI의 발달 등을 떠올렸는데 다른 조원들은 우리 사회의 인식에 집중하여 남녀평등이라던가, 학력평등 등을 제안하였다. 이런 사회적 인식 쪽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나로서 조별 과제는 나를 한층 성장시키는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결국 우리는 사회적 인식에 집중하기로 하였고 그 중에서도 남녀평등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다. 21년 후라고 하면 막연히 먼 미래 같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후손들이 막 사회에 발을 들일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불평등이라던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식들을 변화시켜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남녀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해 대략 4가지의 방법을 제시하였고 지금 당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지도 고안해내어 정말 21년 후에는 우리가 겪고 있는 부당함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기를 바랐다. 사회적 인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솔직히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나 역시 언행을 조심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익숙해진 나의 버릇과 사람들의 태도에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있었다. 이번 수업을 통해 그런 나의 행동을 반성하게 되었고 우리가 제시했던 실천 가능한 방안들만이라도 적극적으로 행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단순히 과제를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아간다고 생각하니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한층 성장한 기분이었다. 또한 교수님은 PPT 발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더 다양하고 폭 넓은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 발표를 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나를 한없이 작게 만들었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 역시 내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조별 과제를 마치고 교수님은 같은 조원이었던 사람들에게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셨다. 이 과제는 조원들을 평가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와 같이 과제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던 조원들의 특징이나 성격 등을 파악하여 작성하라는 것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내가 몰랐던 나의 특징을 알게 되고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장점이 있으면 그 장점을 살려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교수님은 이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버스 대절 문제로 아쉽게 무산되었지만 박람회도 초청해주시는 등 학교에서는 절대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추진하셨다. 대학교에 들어 온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수업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수업을 준비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 교수님의 노력에 반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교양이라고 하면 단순히 학점을 채우기 위해 필수로 들어야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전공보다 더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고 내가 관심 있는 수업만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전공보다는 학점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수업에 입학 때도 덜 부담스러운 것 같다. 만약 이 수업이 전공이었다면 내가 정말 즐겁게 입학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미래교육 디자인'은 특별하지는 않았던 수업 방식이었지만 지금까지 3년 동안 들은 수업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다른 학우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수업이다. 다시 이 수업을 듣는다면 그 전보다는 더욱 적극적인 수업 참여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만들어가고 싶다.



[참가상]

번역의 첫걸음

김운선 / 경영학

구분	전공 □	교양 ■	교수명	강가희
교과목	신문사설 번역			
추천 이유	원활한 상호작용/학생중심 수업/유용한 지식전달/이해하기 쉬운 설명			
한줄 평	신문사설번역 수업은 번역의 첫걸음 이다.			

번역의 첫걸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영어를 접하게 된다. 하지만 나는 영어를 번역할 때 짜여진 방법에 따라 번역하지 않았다. 단어가 뭔지 몰라도 대략적으로 문맥상 유추한다던가 어려운 번역들은 넘어갔다. 요즘은 번역 사이트가 잘 되어 있어서 번역을 공부하는 것을 미뤄왔기도 했다. 그러다가 이번 학기에 강가희 교수님의 신문사설번역 강의를 듣게 되었다.

사실 영어실력이 부족하다보니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요즘 해리포터에 빠진 나는 영어 원서를 읽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수강신청을 했다. 신문사설번역 강의의 최고의 장점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었던 기초적인 문법들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도 알게 되었다.

교수님은 너무 어렵지 않은 영어 기사를 가지고 오셨는데 처음에는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인 준동사를 찾는 것을 연습시켰다. 영어를 해석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한 가지는 한국어와 영어의 동사의 순서가 다르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사를 먼저 찾는 것이 영어 번역의 첫 단계라는 것을 강조하셨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사와 동사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동사와 준동사를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그 둘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에 따른 과제도 미리 내 주셨다. 동사와 준동사의 차이점,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와 같은 기초적인 부분들을 원서를 통해서 직접 번역을 통해서 수업을 들으니 정말 좋았다.

무작정 문법으로만 배워왔던 것들이고 번역을 할 때에는 알게만 적용하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배우니 더 재밌었다. 그렇게 교수님께서서는 매 주마다 미리 다음 시간 수업에 번역해 볼 Text를 올려주셨고 어렵지 않은 과제를 내주셨다. 내가 가장 좋았던 점은 교수님께서 한국어를 영어로 재번역해보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셨다는 부분이었다. 동사를 먼저 떠올리고 서술어를 붙여나가는 형식으로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연습은 사실 어렵기도 했지만 한국어와 영어의 다른 문법적인 부분을 좀 더 상기시켜주는 부분이었다. 영어 원서 번역이 어렵다고만 느껴져서 망설였던 나지만 이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이나마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참가상]

人間萬事 勞動之下[인간만사 노동지하]

김은태 / 행정학

구분	전공 □	교양 ■	교수명	임무송
교과목	노동법개론			
추천 이유	원활한 상호작용/학생중심 수업/다양한 수업자료/ 유용한 지식전달/깨달음을 주는 수업			
한줄 평	노동법개론 수업은 인류애의 결정체 이다.			

인간만사 노동지하



현대 인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코 노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사를 통틀어 유례가 없을 정도로 경제적인 삶, 효율적인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에게 노동에 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다는 것은 자신에게 보장된 권리와 의무를 유기하는 것과 진배없다고 말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한다. 노동에 관련한 법률을 배우고 익히기에는 사회에 나가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나, 그에 대한 손실비용이 막대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에 앞서 대학교에서 노동법에 관한 지식을 쌓고 나아가 적용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기에 후일 이 글을 읽으실 학우분들에게 감히 기회를 놓치지 마십사 추천 드리는 바이다.

본인이 노동법이라는 법학에 관심을 가지고 수강을 결정한 이유는 단순히 본인이 준비하는 시험 수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였다. 아직 학생인 본인에게 노동이라는 단어는 아직까지 체감될 수준의 것은 아니었으며, 앞서 법학이라는 나무를 이루고 있는 무수한 가지[분야] 중 하나라는 단상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노동법개론 수업을 수강하면서, 본인의 생각이 어처구니없고, 짧은 식견이었는지 여실히 깨달을 수가 있었다. 노동이라는 것은 현대인에게 있어 불가분의 영역에 진입한 개념이고, 노동에 관하여 인간, 즉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지고한 싸움과 투쟁의 결과물이 노동법인 것임을 학습할 수 있었다. 물론 교수님께서서는 해당 수업에 있어서 무겁기만 한 교수방식만을 고수하신 것은 아니셨다. 여러 가지 이슈화된 사건과 기사들을 가지고 노동법이 어떻게 적용되었고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는지, 많이 선진화된 노동법에 맹점과 지금도 투쟁하는 각계각층의 노동자들에 관한 사례들을 설명 해주시면서 공부에 대한 집중이 수업시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해당 사례와 기사를 찾아보며 추가적인 학습을 지속하면서 노동법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이 이번 노동법개론을 학습하면서 가장 크게 고무되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기라성같은 다른 강의들도 충분히 많지만 노동법개론을 가장 크게 추천하는 점은 바로 교수님의 전문성이 너무나도 돋보였기 때문이다. 법학을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해당 법학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들을 학습하고 후에 관례라든지 행정 사례를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생

각한다. 그간 혼자 법학을 공부하면서 전자는 해결되었지만, 후자는 혼자만의 학습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노동법개론도 같은 실수와 착오를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앞섰지만, 그것은 기우에 불과했다. 교직에 서기 전 실무에 오랫동안 몸담으며 몸소 체험하신 사례와 일화들을 곁들여 설명하시는 교수님의 교수 방법은 그간 법학에 관한 갈증을 해결해주는 오아시스와도 같은 역할을 했다고 자신하여 말씀드릴 수 있다. 덧붙여 아직은 미완단계지만, 공직을 준비하고, 법학을 기반으로 한 삶을 사려고 준비 중인 나에게 교수님이 해주신 여러 가지 조언은 단순히 학교에서 만난 교수와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인생에 있어 앞서 걸어본 선배로서의 조언으로 느껴져 퇴색되었던 나의 방향과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지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부끄럽지만 사실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수업이 아니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었기에 학기 초에는 조금 방만하게 생각하며 널널하게 수강해도 괜찮지. 라는 건방진 생각이 든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오히려 교수님의 전술했듯이 열정적인 교수방식과 풍부한 법률적 지식, 행정 사례를 예로 들며 해당 수업이야말로 단순히 학점을 추구하며 수강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수업이 아니라 앞으로서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혜”를 수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으니 오히려 비대면 인터넷 수업을 통한 학습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업시간 도중에 이해하지 못하고 놓쳤던 부분을 LMS에 탑재해놓으신 자료들을 다시 공부하며 반추하여 완전히 소화시킬 수 있도록 활용했으며, 수강 시간에 학습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미리 제공된 자료를 수업에 앞서 예습하며 심층적인 학습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은 결과, 노동법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재고하며 나름대로 체계를 갖춰 학습할 수 있었다. 우리 학교의 특성상 안타깝게도 법학만을 위주로 체계적으로 법학을 공부할 기회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법학을 공부하는데 앞서 막연하고 딱딱해서 공부의 갈피를 찾지 못하는 학우님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본인도 아직 공부하는 학생이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은 자각하고 있지만 감히 학우님들께 조언을 드리자면, “헌법”에 대한 공부와 학습을 게을리 하지 말라는 것이다.

교수님도 수업 중에 강조하신 내용이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학우들을 비롯하여 학생이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법학은 모두 헌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더 명확하고 알기 쉽게 실체화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법학을 공부하는 대학들에서는 우선적으로 학생들에게 헌법에 대한 제반 지식을 쌓을 것을 권유하여 법학에 대한 접근을 효율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 말인즉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는 무엇인지 왜 그러한 내용이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부여되고 있는지에 대한 입법 취지를 공부한다면 무작정 법률을 암기하는 것보다 명확하게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개별 노동법을 공부함에 앞서 헌법 제32조(근로의 권리와 의무), 제33조(노동3권)을 학습하고 개별 법률을 공부한다면 개별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가 어떠한 법원[法源]에 의

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흐름을 파악했다면 한층 더 수월하게 법학을 공부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사족이지만 이번 학기는 본인에게 너무나 힘든 학기였다. 예기치 못한 집안의 우환으로 인하여, 공부와 진로에 대한 의욕도 많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포기할까? 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노동법개론의 담당 교수님인 임무송 교수님이 희망을 잃지 말고 공부를 놓지 말라는 격려와 진심어린 조언을 통해 마음을 개심하고 잃어 버렸던 초심을 되찾아 다시 한 번 의지를 불태워 공부와 애초 목표했던 성과를 이뤄내기로 마음먹을 수 있었다. 앞서 내가 생각했듯 단순히 전공이라서, 들어야만 해서라는 일차원적인 이유보다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고,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 채찍질 하며 다시 달릴 수 있게끔 도와주었기 때문에 해당 과목을 추천하는 바이다.

대학생이라면, 학과 수업을 통한 지식 획득과 학점 취득 역시 중요한 가치이자 덕목일 것이다. 그러나 사회 진출과 취직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목전에 두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더하여 생각한다면,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과목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지에 대한 생각이 있지 말고 한번 해보시라 권유하고 싶다.

글 서두에도 밝혔듯, 본인에게 노동은 아직 먼 나라의 이야기였다. 하지만 노동법을 수강하며, 인간의 모든 행위가 노동이 아닐까에 대한 생각에 도달할 수 있었고, 그것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육체노동은 빙산의 일각이었고, 과거에는 법률에 의하여 인정받지 못했던 “감정 노동”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포함되어 보장받은 것이 불과 몇 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과 비교적 최근에 인정받은 가사노동과 육아 노동, 단순히 노동에 대한 법률적 외연이 넓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와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 인간이 삶을 풍족하게 영위하기 위한 모든 행위들이 노동으로 규정되어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 씩 노동쟁해가 발생되고 그로 인해 희생되고 있는 노동자가 많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노동자는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법학, 그리고 사회 과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사회에 관한 관심을 거두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역사책의 한 페이지로 기억하고 감흥없이 지나쳤던 전태일 열사의 분신을 시작으로 셀 수 없이 수많은 노동자의 투쟁과 분투로 인하여 지금의 근로기준법이 마련되고 각종 노동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노동자의 권익이 개선되고 법률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도달했지만 안타까운 평택항 하이선호 군의 사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지금도 이름 모를 누군가의 가족, 친구, 동료가 법의 사각에서 위협하게 노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러한 깨달음은 본인에게 결코 작은 부분이 아니었으며, 우둔한 나조차도 깨달을 수 있었기에 현명한 학우 여러분들께서는 더욱 더 큰 배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덧붙여, 지금은 본인도 일개 학생으로서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한 처지지만 해당 수업을 바탕으로 앞으로 공직에 나아가 사회적 약자와 음지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는 공직자가 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항상 본 에세이의 글이 앞으로의 인생과 목표를 향한 발걸음의 일보라고 생각하고 항상 정진할 것임을 맹세한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학우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목표의 대소를 떠나 개인의 인생에서 목표라는 것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며 힘들고 힘들겠지만 우직하게 그 목표를 향해 같이 나아가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응원의 차원에서 칠혹같이 어두운 시대에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한 가지 글귀를 소개하고자 한다. 三年不飛又不鳴(삼년불비불우명)이라는 고사성어다. 큰 뜻을 위한 준비하는 자는 그 뜻만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금강대학교에서 학습하는 시간이 학우 여러분들이 크고 높게 날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강 대의 역할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비록 본 에세이가 과목 하나만을 추천하게 되어 있어 안타깝지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동법을 포함하여 금강대학교의 모든 교과 과목에서 중요하지 않은 과목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노동법을 공부하면서 과거에 배웠던 헌법, 행정법과 같은 다른 법학에 대한 지식을 리마인드할 수 있었고, 반대로 과거에 쌓아놓았던 지식이 노동법을 학습하는데 있어 크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서로 다른 학문끼리 상생하여 시너지를 내는 모습과도 같이 본인이 쓴 에세이가 필자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 글을 읽는 여러 학우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본인의 졸문이 진심으로 학우 여러분의 학습에 미약하나마 보탬과 어려운 시기에 힘이 날 수 있는 자그마한 응원이 되었으면 하는 진심과 함께 본 에세이를 끝마친다.



[참가상]

논리적 사고를 위해

김준태 / 행정학

구분	전공 ■	교양 □	교수명	김성률
교과목	헌법총론			
추천 이유	깨달음을 주는 수업			
한줄 평	헌법총론 수업은 사고력을 위한 수업 이다.			

논리적 사고를 위해



본인이 추천하는 수업은 김성률 교수님의 '헌법총론'이다. 헌법에 대해 다루는 과목이지만, 그 중 기본권에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다룬다. 기본권에 관련된 이론들을 학습한 후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을 검토해 학생들이 개별 기본권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친다.

기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권리이다. 그런 권리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강의를 듣게 된다면 자신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많은 역사적 운동들이 얼마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이 과목의 진행방식은 교수님이 주신 자료를 기반으로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후 과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강의는 헌법에 대해 기초지식이 없던 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알맞은 난이도와 속도로 진행하였으며 제공된 자료는 배우는 기본권에 대해 외국에서의 발전과정,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에 대해 설명되어있어 더욱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었다.

이 과목에서 내가 가장 마음에 든 부분은 과제에 대한 내용이다. 과제는 각 강의에서 배운 내용에 대한 ox퀴즈와 교수님이 제공하는 주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기반으로 토의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첫 주차 과제에서는 만점을 받지 못했다. 헌법과 기본권이라는 주제가 낯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을 미비하게 적었다. 교수님은 바로 과제평가에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시면서 어떤 과정이 미비했는지, 이 과목의 과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셨다.

헌법총론의 과제가 가장 마음에 든 부분은 개인의 사고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과제 중 토의 내용에 대한 주제는 다소 민감한 주제일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런 주제에 대해 자신이 어떤 입장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 과목에 대한 논리전개과정을 평가한다. 그 과정이 얼마나 탄탄한지, 그 근거를 정확히 두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을 가감 없이 표현할 수 있다.

다음은 과제 중 가장 좋았던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 주차의 내용에 대한 본인의 답변이다. 현대 사회

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이고, 누구나 이에 대한 개인의 답변을 갖고 있지만 논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이슈이다. 이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전개하며 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주제였다고 생각한다.

4. 평등원칙과 관련하여 성별에 구별 없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현재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남자만의 병역 의무이행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군복무에 대한 박탈감과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성 평등 정책에 대한 반대기제로 나오는 것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에서 국방에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2항에서 병역의무에 대한 이행으로 인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로 인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일부 단체들의 극렬한 페미니즘 운동가들에게 남성들도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내 입장은 국방의 의무는 국민 모두가 이행하고 있고, 남녀의 능력에 따라 병역의무는 남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합리적일 수는 있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처우는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현재 사병 월급은 병장 기준 67만원 수준으로 본인이 복무하던 시절에 비해 3배 이상 올랐다. 하지만 최저시급에 비교하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사회에 격리되어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1년이 넘는 시간동안 복무하는 이들에게는 박탈감이 느껴지는 수치인 것이다. 또한 군인에 대한 인식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나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분명 그들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것이 맞는데 “대한민국 남자라면 가야지” 같은 차별을 불러올 수 있는 시각들은 더욱 박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병역의무에 관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노력하고 고생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며 불합리한 처우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만족한 부분은 논리에 더욱 탄탄한 근거를 갖추는 연습이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이전엔 어설픈 양비론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과 논쟁하는 것에 굉장히 피로감을 느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고 둘 다 틀렸고 그냥 논쟁하지말자는 쪽이었다. 그런데 이 강의를 듣게 되면서 논리적 근거를 들며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낼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 본인이 행정학도가 아니라도 사고하고 표현하는 것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강의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참가상]

귀엽고 깜찍한 산스크리트어 어떠신가요?

서건희 / 불교인문학부

구분	전공 <input type="checkbox"/> 교양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수명	하영수
교과목	초급산스크리트		
추천 이유	다양한 수업자료/유용한 지식전달/이해하기 쉬운 설명/ 불교관련을 진로로 정한 경우에는 필히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		
한줄 평	초급 산스크리트어 수업은 귀욤뽀작한 수업 이다.		

귀엽고 깜찍한 산스크리트어 어떠신가요?



언어가 귀엽다고 하면 어떤 거 같은가? 상상이 안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들이 흔히 접하는 언어라고 하면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영어나 뽀빠의 어렵고 우리들이 배운 한자와 다서 형태가 다르며 성조가 존재하는 중국어나, 문법이 다소 비슷하며 애니메이션으로 쉽고 접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한자가 있는 일본어 등을 보면 아마 귀엽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귀엽다는 것은 개인적인 시선이기 때문에 취향이 다 다르겠지만 어지간한 거 아닌 이상 귀엽다고는 못할 것이다. 허나 본인이 소개하는 과목은 언어이며 또한 우리들이 흔히 접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현대어가 아닌 고전어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이 추천하는 강의는 바로 초급 산스크리트어이다.

산스크리트어란 무엇인가?

아마 산스크리트어라는 것을 들어봤을 사람이 있을 지도 있고 전혀 생소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교 전공인 사람들은 많이 들어봤을 것이며 산스크리트어보다는 범어에 더 익숙할 것이라 생각한다. 산스크리트어, 혹은 범어라고 하는 언어는 인도의 고전어이자 힌두교, 대승불교 등의 경전의 언어이며 현재 인도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언어라고 한다. 우리들이 흔히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것도 이 범어를 번역해서 나온 것이다. 도대체 산스크리트어가 어떤 언어길래 귀엽다고 하는 것일까? 산스크리트어를 예시로 하나 표현하자면 गच्छति라는 것이 있다. 오잉..? 이게 귀엽다고 할 수 있을까..? 약간 지렁이같기도 하다. 또한 글자가 하나로 붙어있는 것이 어찌 보면 괴상하기도 하다... 귀엽다는 것은 개인적은 취향이기도 하지만 본인도 처음에 산스크리트어를 볼 때 무슨 지렁이가 구불거린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것의 의미를 알아보면 약간은 귀여울지도 모른다. गच्छति는 영어로 쓰면 gacchati라고 읽는다. 이는 어근 간다는 의미의 √gam이 3인칭 단수의 형태로 바뀐 것이 gacchati이다. 그럼 영어처럼 3인칭 단수 앞에 오면 동사의 형태가 바뀌는 것처럼 산스크리트어도 비슷한가? 그건 아니다. गच्छति는 해석 하면 '그는 간다.'라는 해석이 된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인걸까? 어근이 형태가 바뀐 것인데 왜 문장이 되는 것일까?

산스크리트어의 특징

본인이 아직 학생이며 초급만 배운 새내기라는 점과 본인이 공부하면서 느낀 것에 대한 특징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정확하거나, 보다 깊이 파고들지는 못한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산스크리트어는 기본적으로 단어에 성별이 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양은 남자, 음은 여자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남성단어가 있고 여성단어 등이 있다. 또한 문법은 내가 느끼기로는 아마 지금까지 배운 어순이랑은 다소 어색하고 다르다고 생각한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등의 어순과는 상당히 이질적인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다른 특징으로는 수가 다르다. 우리들이 흔히 단수, 복수라는 개념이다. 영어나 한글을 보면 단수나 복수의 개념이 있는데 산스크리트어는 이 수의 개념이 다른 것이 아닌 수가 하나가 더 많다. 단수, 복수의 개념 말고도 양수라는 것이 존재한다. 각각 하나일 경우 단수, 둘 일 경우 양수, 셋 이상부터는 복수라고 한다.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특징들만 봐서는 귀여움을 느낄 수 없으며 이 언어가 왜 추천하는 지 이해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거기에 흔히 접했던 언어와 상당히 이질적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들 수가 있다. 이 특징이 본인이 생각하는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1. 우리들이 전혀 모르는 언어이다.

아까 언급했듯이 산스크리트어는 우리가 정말 흔히 접한 언어는 아닐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나면 전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감만 없다면 받아들이기 쉽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한국어와 영어를 배울 때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 까 싶다. 가득하게 그려져 있는 그림에 빈 공간을 찾아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더욱 쉬운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우리들이 흔히 접한 언어들은 주변이랑 다소 비슷한 점이 있어서 헛갈리거나 혹은 의문이 생기기 마련일 텐데 산스크리트어는 전혀 모르는 백지의 상태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 언어에 대한 거부감만 없다면 조금 산스크리트어 강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옛날 사람들의 지혜

한글의 우수성이 무엇일까?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사들이 우리 인간들의 구강과 발성구조를 면밀히 연구하고 그것을 글자로 표현하여 보다 백성들이 쉽게 글자를 습득하고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국어를 배울 때 구개음, 후음, 치음 등 입안 구조에서 혀바닥의 위치나 혀바닥이 어떤 식으로 입천장과 접촉하는 지에 따라 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한글은 표기되어 있는데 산스크리트어도 비슷하다. 산스크리트어에는 '데바나가리'라는 한글과 같은 개념의 글자가 있다. 데바나가리는 우리들이 한글의 입안 모양과 혀바닥 위치에 따라 소리가 다른 것처럼 표기되어 있다. 후음에는 कखगघ 가 있다. 각각 ka, kha, ga, gha라고 읽는다. 이 밖에도 구개음,

권설음, 치음, 순음, 치찰음 등 상당히 자세하게 입안 구조에 대해서 소리가 나온 것이 표기가 되어 있다. 구개음이나 치음 등으로 설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입안 구조를 생각하면서 발음을 하면 아무 리 치음 접한 언어라고 할 라도 생각보다는 발음이 잘된다.

3. 단어 하나에 의미가 다양해 해석하는 재미

이는 아마 조금 취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산스크리트어는 기본적으로 단어가 문장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스크리트어 문장을 보고 해석을 할 때 이를 고려하면서 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암 호를 해석하는 듯한 재미가 느껴진다. 대표적인 것이 아까 언급한 गच्छति(gacchati)이다. 본명 간 다라는 어근이 3인칭 단수 형태로 바뀐 형태지만 단순히 저 단어만 쓰면 ‘그는 간다.’가 된다, 하지만 앞에 남성명사 राम 가 명사로 오게 되면 ‘라미는 간다.’로 해석이 된다. 영어에서 수일치를 시키듯이 산스크리트어에서도 수일치를 시키기 때문에 단수명사인 राम가 오면 동사는 3인칭 단수인 गच्छति가 온다. 당연히 목적어도 있으며 목적어까지 오면 해석은 더욱이 재밌어진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산 스크리트어는 수가 다른 언어와 조금 다르며 또한 주격, 목적격, 구격, 여격 등 우리들에게도 있는 격들 또한 있기 때문에 이것들까지 고려하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재미가 있다.

최종적으로 추천하는 이유

위 특징들이 본인이 초급산스크리트어를 추천하는 이유이다. 우리들이 흔하게 접한 적이 없는 언어 이며 고전어다 보니 전혀 모르는 언어지만 이것이 장점이 되어서 백지에 그림을 그리듯 쉽게 습득 을 할 수가 있고 한글과 같이 구강구조와 혀바닥의 위치에 따라 바뀌는 소리에 대해서 자세히 표기 가 되어있어서 발음 또한 따라 하기 편하며 한 단어에 문장의 의미가 담겨있거나 우리들이 접한 문 법과 색다른 문법이지만 그것 또한 해석하는 재미가 있다. 또한 데바나가리가 상황에 따라 글자가 바뀌는 등 본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전공 수업이다 보니 불교관련으로 진로가 정해져있는 사람들이나 강의뿐만 아니라 산스크리트어 자체를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 어를 공부하는 것 보다는 암호 해독하는 것에 대해 관심과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에게도 전혀 접해 본 적이 없는 낯선 언어이며 어순이나 상황에 따라 글자가 바뀌거나 해석이 달라지는 귀엽고 깜찍 한 산스크리트어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참가상]

나의 사춘기에게

이서진 / 사회복지학

구분	전공 ■	교양 □	교수명	배라영
교과목	청소년이해론			
추천 이유	원활한 상호작용/학생중심 수업/다양한 수업자료/ 유용한 지식전달/깨달음을 주는 수업/이해하기 쉬운 설명			
한줄 평	청소년이해론 수업은 나의 청소년기를 되돌아보는 시간 이다.			

나의 사춘기에게



2018년도 동계방학 중에 다녀온 해외봉사를 기점으로 청소년지도사라는 꿈을 갖게 되었다. 라오스에 있는 학교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대부분은 어린 아이들이었고, 몇 명은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있었다. 모든 수업에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참여하는 어린 아이들과는 다르게 청소년들은 수업에 비협조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곤 했다. 하지만 봉사가 끝나갈 쯤에 마음의 문을 열고 헤이집이 아쉬워 눈물을 보이는 아이들이 나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말을 안 듣는 아이에게 칭개구리라고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의 청소년기가 그랬던 것 같다. 이유 없는 반항심과 주변의 시선, 부모님의 관심이 부담스럽고 귀찮기만 하던 시절이 있다. 공부 보다는 노는 것이 좋았던, 가족보다는 친구와의 대화가 더 좋았던 때가 생각난다. 그 시절에는 때로는 관심을 받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았으면 하며 어른들에 대한 알 수 없는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유독 예민하고 감성적이고 반항심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중2병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많은 청소년들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고 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이 성인으로 자라서 멋진 사회인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환경과 매체, 문제 상황을 해결 하면서 어른이 되어간다. 그들은 알맞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여야 하고, 혼자 이뤄내는 것이 아닌 부모님이나 선생님, 청소년지도사와 같은 주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그들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지도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지만 대학교 4년을 다니면서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복지 분야 강의는 개설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아있었는데, 올해 '청소년이해론'이라는 과목이 개설되어 수강하게 되었다.

이 강의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자면 청소년기의 이론과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청소년기의 신체적 변화, 인지적 변화, 정서적 변화를 이해하고 청소년의 적응적 행동뿐만 아니라 부적응적 행동에 대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청소년상담에서 자주 다루는 문제와 치료개입 전략을 살펴보고, 일반적으로 상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을 배움으로써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제를 감소시키고 건강한 성장발전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의이다. 주변에 아동 또는 청소년 복지에 관심이 있는 학우들을 많이 보았는데 내년에 또 개설된다면 추천해주고 싶은 강의 중 하나이다.

1	4차시	중간평가 4차시 (3시간 50분)	중간평가	2021.04.30 09:00 - 2021.05.21 22:00	2021.05.06 14:30 - 2021.05.06 14:30	중간평가	0	4	4	4
1	5차시	중간평가 5차시 (3시간 50분)	중간평가	2021.04.23 09:00 - 2021.04.23 14:30	2021.04.23 09:00 - 2021.04.23 14:30	중간평가	0	4	4	4
2	4차시	강의 7차시 (3시간 50분)	강의	2021.04.19 09:00 - 2021.05.21 22:00	2021.04.19 09:00 - 2021.04.19 14:30	강의	0	4	4	4
3	4차시	강의 8차시 (3시간 50분)	강의	2021.04.19 09:00 - 2021.05.21 22:00	2021.04.19 09:00 - 2021.04.19 14:30	강의	0	4	4	4
11	4차시	강의 8차시 (3시간 50분)	강의	2021.04.19 09:00 - 2021.05.21 22:00	2021.04.19 09:00 - 2021.04.19 14:30	강의	0	4	4	4
11	4차시	강의 8차시 (3시간 50분)	강의	2021.04.19 09:00 - 2021.05.21 22:00	2021.04.19 09:00 - 2021.04.19 14:30	강의	0	4	4	4
12	4차시	강의 8차시 (3시간 50분)	강의	2021.04.19 09:00 - 2021.05.21 22:00	2021.04.19 09:00 - 2021.04.19 14:30	강의	0	4	4	4
11	4차시	강의 8차시 (3시간 50분)	강의	2021.04.19 09:00 - 2021.05.21 22:00	2021.04.19 09:00 - 2021.04.19 14:30	강의	0	4	4	4
11	4차시	강의 8차시 (3시간 50분)	강의	2021.04.19 09:00 - 2021.05.21 22:00	2021.04.19 09:00 - 2021.04.19 14:30	강의	0	4	4	4

중간고사를 기점으로 지금은 녹화강의로 진행하고 있지만 중간고사 전까지는 줌을 통한 화상 강의를 진행하였다. 다른 사회복지 관련 과목에 비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 좀 더 집중 할 수 있었고, 꿈과 관련이 되어 있는 강의내용이라서 그런지 3시간이라는 강의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강의는 총 3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며, 3시간 중 2시간은 교수님께서 책 내용과 ppt를 바탕으로 이론을 설명해주셨고, 나머지 한 시간은 그날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오픈 북 형식으로 퀴즈를 풀었다.

퀴즈는 보통 3문제에서 5문제 정도로 출제 되었는데, 오픈 북이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풀 수 있었고, 교수님께서 그 날 배운 핵심적인 내용만 골라 출제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쉽게 정리할 수 있었다. 또한 퀴즈를 통해 복습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었으며, 중간고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중간 중간 여러 동영상들 통해 나눌 수도 있는 점심식사 후의 강의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며,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셨다. 특히 교수님께서는 학생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하여 발표하고, 토론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나는 특히 이 활동이 흥미롭게 느껴졌다. 2년 째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면서 대부분의 강의를 녹화강의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강의는 여러 학우들, 교수님과 소통을 하면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오히려 대면강의를 할 때보다 모든 학우들이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 또한 강의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나의 의견을 말해보는 연습과 동시에 다른 학우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등의 생각을 하며 나의 생각과 비교해볼 수 있었고,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중간고사 이후인 지금도 LMS 게시판을 통하여 교수님께서 다양한 질문을 올려주시고 학생들이 응답하는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업과 관련된 공지사항이라든지 시험 또는 과제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수시로 공지해주시고 있다.

배라영 교수님께서는 우리학교 여자기숙사 1층에 위치한 상담실의 상담선생님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에 적임자라고 생각하였다.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좋았던 점 중 하나는 심리검사를 직접 해볼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성격검사와 강점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결과지를 토대로 약 한

Q&A

내재화, 외현화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을 상담시 어떤 상담이론을 적용해보고싶은가? 이유는 무엇인가?

작성사: 배라영(공공정책학부) | 등록일: 2021-05-06 17:41 | 조회수: 12

위의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간단히 올려주세요^^

이서진 2021-05-11 14:26

답변
수정

청소년기의 내재화 문제는 부적응의 표현이 가장 통제되어 억압적이고 소극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정서적·인지적 부각을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행동치료이론을 적용하여 청소년 시기에 나타나는 소극적이고 억압적인 우울의 감정이나 공포, 행동, 사고 등을 변화시키면서 감정과 행동을 수광을 목표로 상담을 진행하고자 한다. 외현화 문제의 경우는 감정이나 행동의 적절한 통제가 결여된 부적응으로 인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주의상담이론 중 해결중심상담이론을 적용하여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상담을 통해 변화를 이끌고 초점을 새로운 행동유형으로 두어 부정적인 문제는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싶다.

시간 동안 교수님과 개인상담을 통해 결과를 분석하고 진로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었다. 이 강의를 수강하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상담을 하는 것이 많은 시간이 들며 번거로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진행해주신 교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2018년도 금강대학교에 입학할 당시 검사했던 성격검사와 비교해보면서 지금의 성격이 예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 나의 진로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며 진로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청소년이해론 수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지만 특히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해볼 수 있었고, 토론 수업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강의를 듣기 전부터 청소년지도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강의를 수강하면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떠한 역량을 강화시켜야 하는지를 찾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발표와 토론 수업을 통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며 문제를 여러 가지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고를 키우게 되었다.

4학년 1학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졸업을 하기 전에 ‘청소년이해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어보았고, 주변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면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아 재미있게 수강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교수님께서 진행하신 토론 방식의 수업을 통해서 사고력을 키울 수 있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무기력해져 있던 나를 비롯한 많은 학우들이 활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강의중간평가에 따른 시험이나 과제와 관련하여 나를 비롯한 학우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셨기 때문에 전보



다 더 즐거운 마음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볼빨간사춘기’라는 가수의 ‘나의 사춘기에게’라는 노래가 떠올랐다. 사춘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 성장통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위로하는 노래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어른들은 ‘철이 없다.’, ‘아직 크려면 멀었다.’와 같은 말을 하며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나친 학업 스트레스와 친구문제, 가족문제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과 자살 같은 위험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공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클라이언트와의 라포형성이 가장 중요하며, 이것이 상담을 하기에 앞서 첫 번째 순서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능력이 필수이고, 이해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이해론’ 강의를 통해서 전보다 나의 꿈을 체계화 시킬 수 있었으며 할 수 있다는 믿음도 가지게 되었다. 매년 사회복지의 역사나 사회복지 행정, 철학이나 법과 관련된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강의만 듣다가 청소년이라는 익숙한 대상으로 미래에 내가 현장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이나 기술들을 배울 수 있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 전공을 희망하는 학우 또는 청소년, 상담에 관심 있는 학우들에게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강의이다.



[참가상]

사회복지에 대한 고찰

이승혁 / 글로벌지역통상(미국)

구분	전공 ■	교양 □	교수명	고수현
교과목	사회복지상담론			
추천 이유	개방적인 수업/다양한 수업자료/ 유용한 지식전달/깨달음을 주는 수업/이해하기 쉬운 설명			
한줄 평	사회복지상담론 수업은 동기부여 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고찰



사회복지상담론은 사회복지학의 전공분야로 볼 때는 사회복지실천론 및 사회복지실천기술 교과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심리학의 전공분야로 볼 때는 상담심리 교과목과도 연결된 융복합적인 내용으로 구성이 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복지를 위하여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주변환경을 포함한 사례관리에 중점을 둔다. 사회복지사가 사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내담자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등의 태도와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심리상담적 기법의 대화기술을 가져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내담자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확인하고 이해하여 현실적 해결 방안을 찾도록 도와주고 정서적 고통을 해소하고 긍정적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내담자가 자신의 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응하도록 지역사회에 관한 정보 및 법률적 자원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기술을 획득하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이들은 내담자의 요구와 특성에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더 나은 복지체계와 지역사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내담자를 지원하는 책임과 사명감을 지니고 있다. 사회복지사가 좀 더 전문적이고 상위적인 위치에서 내담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경청, 수용, 의사소통기술과 같은 상담기술과 전략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유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이 강의를 수강하며 자연스럽게 여러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었는데, 강의 내용뿐만이 아닌 교수님의 경험 등을 통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상담에 대한 내용을 개인에게도 대입하여 나아가 스스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 본 강의를 추천한다.

사회복지상담론은 매주 강의와 관련 자료가 올라온다. 강의는 녹화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매주 큰 챕터 1개씩을 진행하여 진도에 대한 부담이 없다. 본인은 실시간 강의에 대한 여러 부담이 있어 이에 만족을 느꼈고, 또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어 넉넉한 강의 수강 기간에도 만족을 느꼈다. 강의는 주로 교수님의 내용 설명으로 이루어지며, 가끔 강의 중간에 내용에 관련된 교수님의 의견이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한다. 녹화 강의가 시간적 여유로 인해 좋은 점도 있지만, 과거 대면강의일 때에 교수님과 다른 수강생들과 질문을 주고받으며 유쾌하게 진행되었던 강의

가 현재는 실시간으로 의견을 주고받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게 느껴질 때도 있다.

코로나로 인해 강의를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많은 대학생들이 과제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상담론은 1~5주차까지만 매우 간단한 과제가 주어지고 이후 자유로운 강의가 진행된다. 교수님의 특별한 지도법이라고 한다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문학 도서, 혹은 영화를 선정하여 감상문을 남기는 것이었다. 이는 사회복지상담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수강생도 하여금 도서, 영화를 통해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느껴졌다.

단순히 강의만 듣다보면, 어느 강의든 지루할 수 있기 마련이다. 이런 경우에, 강의 내용을 스스로에게 대입하여 들으면 조금 더 흥미가 생기는 것 같다. 또한 내가 사회복지상담사라면, 그에 관련된 전문직이라면 어떻게하는 생각으로 강의를 수강할 때, 강의 내용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수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상담론의 내용 중 인간 발달단계의 사회복지상담 대상이라는 목차 중 심리성적 인간발달단계가 있는데, 해당 내용에 스스로를 대입하여 본인 또한 비슷한 단계로의 발달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더욱 흥미가 생기고 강의에 집중할 수 있었다.

사회복지상담론을 수강하면서 가질 수 있는 학습 성과는 아무래도 공감협업역량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상담 대상, 즉 클라이언트들의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여 공감을 표하는 대인감수성과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향상을 느낄 수 있었다.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타인과의 관계형성을 뿔 수 있는데, 단순히 사회복지상담이 아닌 그 외적으로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참가상]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수업

이종희 / 불교학

구분	전공 ■	교양 □	교수명	고승학
교과목	불교영어실습			
추천 이유	이해하기 쉬운 설명			
한줄 평	'불교영어실습' 수업은 불교와 영어 모두 도전하게 되는 응원이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수업



이 과목은 무려 3년 전 수강한 과목이다. 교양만 들던 1학년 이후 처음으로 전공 수업을 듣게 되면서 불교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전공 강의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 고민 끝에 당시 학사지도교 수님이시던 고승학 교수님 수업인 불교영어실습을 수강하게 되었다. 강의명에서 알 수 있듯 불교를 영어로 배우는 것인데, 나는 수강 전 불교와 영어에 모두 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예상보다 어렵거나 전공 지식이 있어야만 들을 수 있는 수업은 아니었다. 부처님의 생애부터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며 오히려 '불교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깨졌다. 전공이 불교임에도 불구하고 기초 지식이 없어 타인에게 불교학파라고 말할 때 '혹시라도 불교에 대해 물어보면 어찌지?'라는 걱정이 들었는데 이 강의를 듣고 그런 걱정은 사라졌다. 많지는 않아도 작지만 소중한 지식을 얻게 되었다.

또한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노력하면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잠재적 영어 천재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 물론 매 수업마다 예습을 하면서 그만큼 노력했다. 실력은 부족하지만 수업은 재밌고 알차기 때문에 수업에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컸다. 원래 다른 과목은 예습은커녕 복습도 2주에 한 번씩 했었는데, 돌아보니 그 과목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컸던 것 같다.

수업의 한 시간은 영어 수업으로 이루어졌는데, 영어 발음기호 읽기나 한글을 영어로 쓰기 등을 배웠다. 어쩌면 기본적인지만 디지털화로 인해 영어 사전보다 전자사전이 익숙해져 발음기호를 읽을 필요 없어진 우리 세대에서 꽤나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처음 접하는 부분이라 어려움을 겪었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강의해주셨다. 또한 매 시간마다 너무 쉬워 흥미를 잃지 않게, 어려워 포기하지 않을 정도의 예상 문제들을 풀어해주셨고, 시험 전 여러 번의 퀴즈로 시험 대비도 함께 해주셨다.

교수님의 꼼꼼한 수업 준비와 학생들의 예습과 복습으로 원활한 상호 소통이 있어 수업은 대체로 즐겁되 적당한 긴장감이 있었고, 기초 지식 없어도 수강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불교학과 학생 중 전공에 대한 부담과 걱정이 크다면 이 수업을 먼저 수강하여 두려움을 떨치는 것을 추천한다.



[참가상]

경영학과라면 꼭 들어야할 전공

이한병 / 경영학

구분	전공 ■	교양 □	교수명	이경재
교과목	재무관리			
추천 이유	원활한 상호작용/개방적인 수업/학생중심 수업/ 유용한 지식전달/이해하기 쉬운 설명			
한줄 평	재무관리 수업은 경영학과 학생이라면 꼭 들어야할 전공 이다.			

경영학과라면 꼭 들어야할 전공



1. 교과목 소개 및 추천 이유

재무관리는 경영학과 2학년 전공과목으로 개설된 강의이다. 강의내용은 주로 기업의 자본이 어떻게 조달되고, 또 조달된 자본을 가지고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는지, 어떤 근거를 통해 투자를 결정하는지와 같은 기업의 재무관련 의사결정 방법들로 이루어져있다.

교과목을 추천하기에 앞서 2021년도 2학기를 마지막 학기로 두고 있는 현 4학년 학생으로서 매학기 수강신청을 하며 들었던 생각은 전공과목에 대해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크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같은 조건의 강의라면 이왕이면 내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강의, 친근한 교수님, 적은 과제를 따라가게 되는 것 같다. 하지만 다른 모든 학과에서도 마찬가지이듯 듣고 싶지 않더라도 앞으로 커리큘럼을 따라가기 위해 반 필수적으로 들어야하는 강의들이 존재하고 경영학과에서 그러한 과목을 뺏으라고 한다면 내가 추천하고자 하는 '재무관리' 강의가 그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현재 경영학과 학생이지만 2학년 2학기까지 국제통상학부의 중국전공을 했던 사람으로 경영학과의 모든 전공에 대해 무지한 상황이었고, 졸업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2020년도 1학기부터 경영학과 전공을 수강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가능한 시간에 맞춰 수강신청을 하다 보니 순서에 맞지 않게 3학년 강의를 먼저 수강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수업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재무관리를 수강하게 됐는데, 다른 강의들보다 먼저 이 수업을 들었다면 더 수월하게 강의들을 이수할 수 있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왜 경영학과의 많은 강의들이 강의계획서에 선수학습 내용으로 재무관리를 수강하면 좋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본격적으로 이번학기 '재무관리'를 들으면서 다른 학우들에게 추천하고자하는 이유를 말하자면, 앞서 말했다면 커리큘럼 상 기초가 되는 과목이기 때문도 있지만 이번학기의 경우 이경제 교수님의 강의 방식이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물론 비대면 강의의 특성 때문에 이러한 강의 형식을 잡으신 건진 모르겠지만 일방적인 교수방식이 아닌 학생들과 소통하고, 상호 질의하는 방식이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을 주었고, 앞으로 수강해야할 과목들의 기초를 잘 잡아줄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되어 다른 학우들에게도 추천해주고 싶다.

2. 수업 내용

이 수업은 경영학과 대부분의 강의의 기초가 되는 내용 구성임과 동시에 금융기업에 취업했을 때 실무에 도움이 될 내용들을 담고 있다. 따라서 경영학과 학생은 물론이고 타과 학생들에게도 분명 유익한 강의일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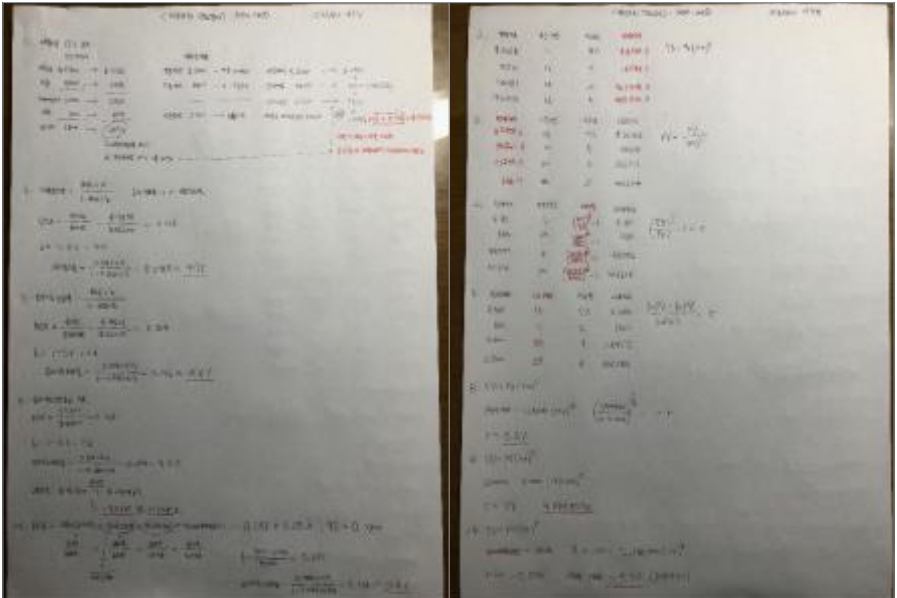
이번학기 이경재 교수님은 학생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셨는데, 14주 동안 강의를 진행하시면서 거의 모든 주차에 한 사람 당 한 번 이상의 질문을 하셨던 것 같다. 그 질문이 꼭 수업 내용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최근 주식 열풍과 관련된 학생들의 생각을 묻는단든지 이런 것이었는데, 이 방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업에 참여하고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았다. 또한 매주 수업시작 전에 바로 전 주차의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휴여나 따로 복습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금주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셨다.

학생들이라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성적일 텐데 기본적으로 출석, 수업 참여도, 과제, 중간·기말고사로 나누는 평가 방식에서 앞서 언급했던 질의 방식으로 인해 수업 참여도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과제의 경우 수업 중 풀었던 연습문제를 다시 과제로 출제함으로써 어렵지 않게 제출 가능하고, 수업 내용을 자연스럽게 복습하게 되는 효과도 있다. 마지막으로 중간·기말고사는 단답형과 서술형으로 출제되는데 단답형은 학생들에게 미리 제공된 PPT자료에서 출제되고, 서술형은 방금 이야기한 과제에서 재출제되는 형식이다. 따라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과제 역시 성실하게 제출한다면 성적은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한다.

3. 수업 참여

내가 수업에 참여했던 방식에 특별한 점은 없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매주 수업 중간에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질문을 받았을 때 최대한 답에 가깝게 대답하기 위해 고민하고 전공과목 특성상 함께 듣는 학우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질문했던 것 같다.

곧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간고사에서 나름 만족스러운 성적을 받았던 노하우를 공유하자면 과제를 성실하게 하는 것이다. 평가 방식에서 이야기했듯이 과제로 부여된 연습문제들이



*2021년도 1학기 '재무관리' 과제 예시

중간·기말고사에서 제출제되는데 과제만이라도 해설에 의존하지 않고 반복해서 풀어보고, 계산도 직접 해보면서 성실하게 수행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재무관리' 수업이 경영학과와 다른 전공과목의 기초가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 이수하고 넘어간다면 다른 강의를 수강하는 데 있어서 분명 이점이 있을 것이기에 그냥 이 순간만 넘어가자는 생각보다 최선을 다해서 이수할 수 있으면 좋겠다.

4. 성장

이번학기 재무관리뿐만 아니라 3학년 과목인 투자론, 4학년 과목인 파생상품을 함께 수강하고 있는데 재무관리에서 배웠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부분 있어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LOTUS 핵심역량과 관련해서는 지식담구의 분석적 사고, 창의융합의 문제해결과 창의적 사고, 공감 협업의 의사소통능력 부분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경재 교수님께서 이번학기 재무관리 교수방식을 소통과 질의형식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주제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고민하고, 그에 대해 답변하고, 학우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강화될 수 있는 역량이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든다. 분명 이것들 외에 다른 핵심역량 역시 성장했을 것이지만, 방금 언급한 네 가지 세부역량 만큼은 이 수업을 수강하기 전과 후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참가상]

세계와 인권

정세윤 / 공공정책학부

구분	전공 □	교양 ■	교수명	박은종
교과목	인권과 세계시민			
추천 이유	유용한 지식전달/이해하기 쉬운 설명			
한줄 평	인권과 세계시민 수업은 우리가 아직도 꺼려하는 다문화 문제에 대해 배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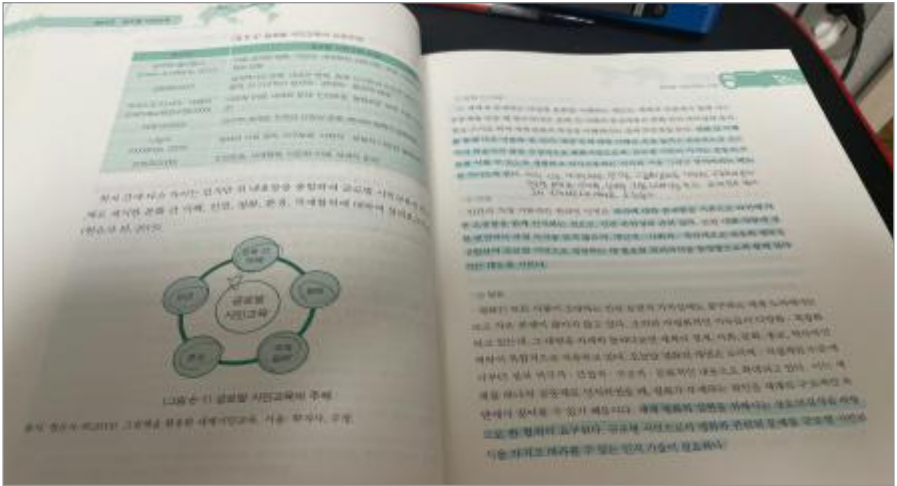
세계와 인권



안녕하세요 제가 발표할 교과목은 박은종 교수님이 하시는 “인권과 세계시민” 교양 과목입니다. 먼저 저의 성격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면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제일 처음 인권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분명 인권은 사전으로도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 한다 라고 쓰여 있는데 이렇게 마땅한 권리도 못받는 사람들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여 저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 대학에 왔고 대학에 처음 와서 교양 신청을 했던 과목이 박은종 교수님의 “다문화의 융합” 이라는 교양 교과목이었습니다. 다문화도 인권에 한 부분이기 문에 열심히 수업을 받았고 이번 21년도 1학기에 마침 박은종 교수님이 “인권과 세계시민” 교과목을 만들어서 저는 이 수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과목을 소개하는 이유는 먼저 우리가 인권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깊이 들어가면 매우 다양하여 조금은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인권과 세계 시민 교과목은 전반적으로 시민 교육을 주제로 시민교육, 시민의식, 글로벌 시민교육, 인권 시민교육, 다문화 시민교육, 평화 시민교육 환경-생태 시민교육 등에 대해 배우며 이러한 학습 외에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인권과 세계시민” 강좌는 교수와 학생, 학생 상호 간 등 다방향, 쌍방향 소통으로 강의를 운영하고자 하십니다. 세계화 시대의 주인공이자 미래 사회 주역인 학생들이 인간의 기초 기본적 권리인 인권의 소중함과 다문화시대의 주역으로서 세계시민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교과목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인권과 세계시민' 수업을 통하여 세계인들과의 공감과 소통을 통하여 서로의 의견을 교류하고 배려, 나눔을 실천하는 세계시민성을 신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강좌에서는 인권과 세계시민에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토의, 토론을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체적 입장에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수업의 특징은 교수님이 녹화강의를 통해 영상을 제공해주십니다. 저는 이 수업의 방식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화상 수업을 통해 충분



히 질의응답을 할 수 있지만 학생들을 배려하여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에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해주었습니다.

수업의 평가 방식은 금강대학교LMS시스템에 있는 토론 시스템을 통해 책에 있는 내용들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동시에 듣습니다.

수업 진행 방식은 ‘글로벌 시민교육’ 교재를 이용하여 세계화 시대, 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 사회 주역인 학생들이 인가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인 인권의 소중함과 다문화시대의 주역으로서 세계시민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따라서 저희들은 “인권과 세계시민” 수강을 통하여 세계인들과의 공감과 소통을 통하여 서로의 의견을 교류하고 배려 나눔을 실천하는 세계시민성을 신장하게 복돋아줍니다. 이올라 천부적인 인간의 존엄성(인권)에 바탕을 둔 인권의 소중함을 알고 자신의 인권과 견주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소양을 함양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세계화 시대 민주시민, 세계시민으로서 공동체 역량과 새로운 변혁적 세계시민 리더쉽을 신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개념과 예시 위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제가 수업을 들을 때 학습하는 방법은 개념과 특징들은 형광펜을 통해 색칠하고 추가적으로 모르는 게 생기면 인터넷을 찾아봐 내용을 보충하여 씁니다.

저의 학습 노하우는 고등학교와 다르게 누군가가 저를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 처음에 학점을 따는게 어려워서 저는 그냥 모르는 것이 나오면 찾아보고 그것도 이해를 못한 다면 교수님에게 직접 질문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는 한국에 온 외국인은 한국에 맞춰가면서 살아가는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차이를 인정하고 수긍해왔습니다. 사회의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문화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우리의 행동과 문화적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다른 문화에 수용하고, 통합하고, 동화되게 한다음 문화적 다양성은 오늘날 세계에서 매우 중요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가상]

배우는 자의 자세와 바른 생각

홍서빈 / 공공정책학부

구분	전공 ■	교양 □	교수명	임무송, 김찬우, 김구민
교과목	AI 시대의 공공성과 행정책임			
추천 이유	원활한 상호작용/개방적인 수업/학생중심 수업/다양한 수업자료/ 다양한 교수법/깨달음을 주는 수업			
한줄 평	AI 시대의 공공성과 행정책임 수업은 필독 도서이다.			

배우는 자의 자세와 바른 생각



별로 무엇 하나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는 2021년도의 한 학기를 보낸 문득 나는 내가 진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나? 궁금해졌다. 비대면 강의의 장점이라 할 수도 있고 단점이라 할 수도 있는 누군가의 직접적인 가르침 없이 '혼자 공부하는 것'. 나는 나를 객관적으로 되돌아 보았을 때, 단점에 더 가까웠던 거 같다. 공부하는 것보다는 노는 걸 더 좋아하고, 계획에 맞게 내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고도 표현 가능한 나는 이번 학기를 보내면서 들은 수업, 돈, 시간 모두를 날리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금강대학교 수업 에세이'를 작성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무엇 하나 얻어간 것이 없다고 생각한 나였기에 에세이를 쓰면서 나는 막막하기만 했다. 하지만 지금, 다시 한번 나에게 '아무것도 얻어간 게 없어?'라는 질문을 누군가 던진다면 나는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다. 하나, 하나, 차근, 차근 다시 생각해 보았다. 분명 모두가 이 수업에서는 내가 이러한 부분을 열심히 했고 이 수업에서는 이런 부분을 얻을 수 있었고, 이 수업에서는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등의 생각보다 작지만 많은 내가 배운 배움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대표가 되는 배움의 흔적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다, 'AI 시대의 공공성과 행정책임' 수업으로 결정지었다.

맨 처음에 이 수업을 신청할 때에는 새로운 수업 방식인 팀티칭을 시도한다고 하여 생소하기도 하였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궁금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매 수업이 아침 일찍 실시간 강의로 진행된다는 강의 계획서를 보고서는 무기력과 귀차니즘에 빠져 사는 나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선사하였다. 때문에, 계속된 고민을 하다 꿈이 공무원인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수업인 것만 같아, 눈물을 머금고 대망의 수강 신청 날, 나는 후회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서는 신청 버튼을 클릭하였다. 하지만 2021년의 1학기 종강이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라도 나는 이 수업을 들은 것에 있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먼저 내가 궁금해했던 팀티칭의 수업 방식은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 명의 교수가 번갈아 가며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수업을 듣기 전에는 이 팀티칭이라는 수업 방식이 수업 내용에 혼란을 줘 오히려 수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었다. 하지만 막상 수업을 듣고 나니 교수님들께서 사전에 상의를 철저히 하셔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딱, 딱, 끊기는 느낌 없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레 수업을 들을 수 있었으며 같은 내용의 수업이지만 묘하게 색다른 느낌

을 받을 수 있었다. 서로가 가르치시는 방식에 차이가 있고 어느 부분에 초점을 더 두느냐의 미세한 차이에 따라 수업의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한 가지의 맛에서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재미있는 수업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 분의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이 수업에서 가르치는 방식 중 하나, 공통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매 시간마다 ‘토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누구 앞에서 말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편인데 ZOOM을 통해 토론을 진행하여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지 않는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을 남 앞에서 말하는 것은 변함이 없기에 나는 내 말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어떡하지?, 오류가 있으면?, 조리 있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등의 많은 걱정을 안고 두려움에 떨며 토론 주제에 나를 던졌다. 처음에는 당연히 긴장되어 다른 발표자가 하는 말은 듣지 않고 내가 한 말을 되새기며 내 걱정이 되는 질문에 답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나는 점점 녹아 들어갔고 그 주된 원인에는 교수님들이 있었다. 자신의 의견을 어떻게 말하든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고 내 의견을 다 말하고 난 후에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라고 늘 고맙다는 인사를 해주셨다. 또, “모르면 묻고, 틀리면 고치고, 잘못하면 뉘우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된다.”라는 말씀을 늘 해주셨기에. 나는 내가 하는 말에 있어서 자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말들을 듣고 나는 자라게 되었다. 소극적인 나에서 틀리면 뭐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약간의 대담함을 가지게 된 나는 이런 작은 말들로 인해 단단해질 수 있었고, 꽃을 피울 수 있게 된 것은 교수님과 다른 학우들과 나의 생각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꽃 피울 수 있었던 것 같다.

이 수업의 취지는 강의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변화하는 AI 시대에 발맞춰 공무원이 가져야 할 행정윤리를 배우는 수업이다. 그래서 부정부패에 관련한 사건에 대해 많은 토론을 나누곤 했는데 이때 나는 ‘청렴’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공무원의 시점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학우들이 자신이라면 부정부패가 일어난 이러한 상황에서 근거를 들어 공무원의 덕목을 지키겠다고 말했는데 나는 정확한 개념이 없었을뿐더러 부패와 관련된 사건에서 ‘일단 내가 휘말리지 않아야겠다.’라는 등 공무원의 도리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였다. 하지만 다른 학우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를 설득하게 되었고 수업의 취지에 맞는 마음가짐과 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더 대담한 내가 되었고 내가 하는 말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내가 되었다. 2021년 한 학기 동안 내가 아무것도 얻어간 게 없다고 생각하기에는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데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이전의 나는 간과하지 않았나 싶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 가

져야 할 '칭람'에 대한 정의를 다시 배우면서 윤리의식을 다시 가지게 되었고, '토론'을 통해 내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 또한 기를 수 있게 되었으며 동시에 상대방과 나와서의 생각 차이를 인정하는 다양성을 존중하게 되었다. 때문에, 이 수업을 듣기 전의 나와 같이 무기력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나아가지 못하는 다른 학생들이 있다면 행정윤리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에 대한 것 등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AI 시대의 공공성과 행정책임' 수업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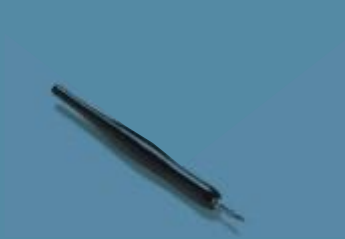
2021학년도 1학기 금강 학이시습지
수업에세이 공모전作品集

편 집 로터스칼리지 교수학습지원센터

발 행 금강대학교

발 행 일 2021년 6월

주 소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상월로 522
<http://www.ggu.ac.kr>



금강대학교